

총괄

이진면(연구위원)

경제금융 동향

세계경제 이정환(선임연구원)

국내경제 황진태(부연구위원)

금융경제 변혜원(부연구위원)

최이섭(연구원)

국내보험시장 동향

이경희(전문연구위원)

박정희·김세중(책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해외보험시장 동향

이정환(선임연구원)

박정희·김세중(책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이정환(선임연구원)

박정희·김세중(책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보 험 동 향

2009년 겨울호

목 차

테마진단	1
보험설계사 이직원인과 시사점	1
우리나라 유동성제약 가국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분석	14
경제금융 동향	34
1. 세계경제	34
2. 국내경제	56
3. 금융경제	67
국내보험시장 동향	74
1. 보험산업 총괄	74
2. 생명보험	76
3. 손해보험	87
해외보험시장 동향	105
미국 동향	105
일본 동향	113
중국 동향	121
유럽 동향	129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140
통계표	153

테 마 진 단

◆ 보험설계사 이직원인과 시사점

안철경 연구위원, 권오경 연구원

1. 서론

보험설계사의 이직은 고객만족, 생산성, 미래의 수익 등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이직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중요함.

- 국내 보험시장은 보험설계사의 대량도입과 대량탈락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보험유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개선과제로 제기됨.
 - 90년대 초 시장개방기와 IMF 금융위기 시 불안정했던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은 2000년 이후 크게 개선되었으나 최근 들어 하락 추세를 보임.¹⁾
- 최근 국내 보험유통시장은 보험설계사의 신규충원보다는 기존 조직에서 스카우트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는 등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의한 채널조직의 변화가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됨.
 - 보험설계사 이직의 배경에는 독립대리점(GA)의 활성화 또는 판매전문회사와 같은 독립채널의 도입 가능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기존 조직의 보험설계사가 독립대리점으로 이직하는 주된 이유는 상품경쟁력(다양한 상품판매 기회), 선지급 수당체계 그리고 보험설계사 양성체계 등을 꼽음.²⁾

1) 생명보험 보험설계사의 정착률, 18.4%(FY97) → 41.5%(FY07) → 32.6%(FY09 상반기)

2) 안형준, 『독립대리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41.

- ☐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업의 영업성과 및 지속적 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이직은 보험회사 경쟁력의 상실과 연계되는 중요한 경영 정책상의 과제임.
- 보험설계사는 TM, CM, 방카슈랑스 등 비대면 또는 제3자 채널의 등장으로 과거에 비해 그 역할이 다소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회사의 핵심적인 경쟁력의 원천임.
 - 보험설계사의 이직은 고객만족, 생산성, 미래의 수익 등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이직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처가 중요함.
 - 체계적인 보험설계사 관리시스템 미흡으로 이직이 높게 나타날 경우 이로 인해 마케팅 및 경영관리 측면에서 비용손실은 물론 성장성에도 악영향을 초래하여 보험회사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됨.
- ☐ 본고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이직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이직이란 동종 또는 이종 보험회사 간 이동, 보험회사와 대리점 또는 대리점 간 이동 경험을 의미하며,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분석함.

- ☐ 이직이란 광의로는 조직 외부로의 이동과 조직 내부로의 이동을 모두 포함하지만 협의로는 조직 외부로의 이동만을 의미(Rose, 1991)³⁾하며, 본 연구에서는 동종 또는 이종 보험회사 간 이동, 보험회사와 대리점 또는 대리점 간 이동 경험을 의미함.
- ☐ 생명보험설계사(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및 대리점 사용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데이터를 확보함.

3) R.W. Rose, 「Comparison of Employee Turnover in Food and Beverage and Other Departments in Hotel Properties」, Texas Woman's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1, pp.19-21.

- 설문조사 기간은 2개월(2009.8~2009.9)이었으며 총 800부를 배포하여 최종 631부를 유효 데이터로 활용하였고,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9\%$ 임.
 - 생명보험회사별 설계사 분포는 대형사 212명(52%), 중소형사 118명 (29%), 외국사 79명 (19%)으로 현재 보험설계사 수를 고려하였으며, 그밖에도 대리점 사용인 179명, 기타 보험판매인 43명이 포함됨.
 - 이직원인 질의 항목은 총 21개(<표 1> 참조)로 문헌조사를 거쳐 보험회사 채널 기획부서 및 일선 지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구성함.
 - 총 631명중 1회 이상 보험판매자로서의 이직경험자는 41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6%에 해당함.
- ☐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기초통계분석 및 집단 간 차이분석(t-Test)을 실시함.

3. 보험설계사의 이직원인

보험설계사의 주된 이직원인은 경제적 보상요인, 조직 내 인간관계요인, 개인의 영업능력상태로 나타났으며, 고소득 보험설계사는 조직 내 인간관계요인이 저소득보험설계사는 경제적 보상요인이 이직 시 높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영업성고가 낮고 연령 및 판매경력이 많은 보험설계사의 이직경향이 높게 나타남.

가. 이직원인

- ☐ 이직경험을 갖고 있는 보험설계사(이하 '이직보험설계사')의 이직원인 조사 결과, 경제적 보상요인(선지급 제도, 수수료 수준, 수당환수제도), 조직 내 인간관계요인(관리자의 리더십, 직원 갈등) 및 개인의 영업능력상태(유지율, 슬럼프 전환)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 반면 '가정환경', '배우자의 권유', '본인의 명예'와 같은 개인적 원인과 회사의 언더라이팅 기준, 전산시스템 불편, 보험회사 브랜드, 신분발전제도 등 회사의 마케팅 시스템 요인은 낮게 나타남.

<표 1> 전체 보험설계사의 이직원인 순위

(단위: 점/5점 만점)

순위	이직원인	평균	표준편차
1	선지급 제도	3.3302	1.0317
2	수수료 수준	3.3150	1.0852
3	관리자의 리더십	3.2595	1.0408
4	유지율 하락	3.2197	1.3982
5	수당환수제도	3.2026	1.0825
6	분위기 전환(슬럼프)	3.0929	1.0881
7	조직 내 직원 간 갈등	3.0182	1.1457
8	상품경쟁력(담보, 종류)	3.0016	1.0008
9	보험설계사 양성제도	2.9834	1.0407
10	회사의 정책상품 판매강요	2.8787	0.9723
11	지인 및 동료소개	2.8496	1.0667
12	우수보험설계사 우대제도	2.8486	1.0010
13	복리후생	2.8333	1.0222
14	신분발전제도	2.8267	0.9823
15	언더라이팅 기준	2.7854	1.0274
16	본인의 명예	2.7637	0.9987
17	보험회사 브랜드	2.7471	0.9929
18	가정환경	2.6639	1.0232
19	초기정착금 제도	2.6573	1.0463
20	전산 및 시스템 불편	2.5946	0.9231
21	배우자의 권유	2.2774	1.0080

- ☐ 회사 및 채널별 보험설계사의 이직원인 조사 결과, 수수료 관련, 관리자의 리더십 그리고 유지율 하락이 주된 이직원인으로 나타남.
- 대형 생보설계사는 수당환수제도와 관리자의 리더십, 중소형 생보설계사는 유지율 하락과 수수료 수준, 외국계 및 GA는 수수료와 관련한 다수 항목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상품경쟁력, GA는 슬럼프 탈출을 위한 분위기 전환이 주된 이직원인에 포함됨.

<표 2> 회사 및 채널별 주요 이직원인

순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계	GA
1	수당환수제도	유지율 하락	선지급 제도	선지급 제도
2	관리자의 리더십	수수료 수준	수당환수제도	수수료 수준
3	유지율 하락	관리자의 리더십	수수료 수준	관리자의 리더십
4	선지급 제도	선지급 제도	유지율 하락	분위기 전환
5	수수료 수준	수당환수제도	상품경쟁력	유지율 하락

□ 소득 수준별 이직원인 조사 결과, 고소득 보험설계사는 주로 ‘조직 내 인간관계 요인’, 저소득 보험설계사는 ‘경제적 요인’ 이 이직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 고소득 보험설계사는 이직의 원인으로 관리자의 리더십, 분위기 전환, 조직 내 직원과의 갈등 및 환수제도 순이었으며, 저소득 보험설계사는 선지급 제도, 수수료 수준, 수당환수제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 소득 수준별 이직원인 순위

(단위: 점/5점 만점)

순위	고소득 보험설계사	저소득 보험설계사
1	관리자의 리더십 (3.4769)	선지급 체계 (3.4407)
2	분위기 전환(슬럼프) (3.3923)	수수료 수준 (3.3900)
3	조직 내 직원 갈등/수당환수제도(3.1908)	수당환수제도 (3.1925)
4	수수료 수준 (3.1203)	관리자의 리더십 (3.1255)
5	선지급 체계 (3.1053)	유지율 하락 (3.0717)
6	유지율 하락 (3.0840)	보험설계사 양성제도 (3.0270)
7	상품경쟁력(담보, 종류) (2.9924)	상품경쟁력(담보, 종류) (2.9887)

주 : 고소득 및 저소득의 기준은 각각 400만 원 이상(21%), 200만 원 이하(45%)임.

<표 4> 보험설계사의 소득 수준별 이직원인 분석

(단위: 점/5점 만점)

이직원인	소득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선지급 체계	저소득	3.4407	1.0151	2.8562***
	고소득	3.1053	1.0590	
수수료 수준	저소득	3.3900	1.0704	2.3349**
	고소득	3.1231	1.0493	
수당환수제도	저소득	3.1925	1.0681	0.0139
	고소득	3.1908	1.1171	
복리후생제도	고소득	2.9057	1.0347	0.8095
	저소득	2.8168	1.0138	
관리자의 리더십	저소득	3.1255	1.0280	-3.2118***
	고소득	3.4769	1.0055	
조직 내 직원 간 갈등	저소득	2.9385	1.0816	-2.0961**
	고소득	3.1908	1.2033	
유지율 하락	저소득	3.0717	1.0794	-0.1028
	고소득	3.0840	1.1900	
전산 및 시스템 편의성	저소득	2.5875	0.9234	0.6293
	고소득	2.5267	0.8533	
상품경쟁력(담보, 종류)	저소득	2.9887	1.0018	-0.0354
	고소득	2.9924	0.9156	
회사정책상품강요	저소득	2.9115	0.9605	0.7719
	고소득	2.8321	0.9620	
언더라이팅기준 불만	저소득	2.8769	0.9943	1.3547
	고소득	2.7287	1.0588	
가정환경	저소득	2.7915	1.0130	2.2151**
	고소득	2.5462	1.0647	
지인 및 동료 권유	저소득	2.9425	0.9730	0.8431
	고소득	2.8462	1.2292	
배우자 권유	고소득	2.3256	0.9677	0.9667
	저소득	2.2231	1.0212	
분위기 전환(슬럼프)	저소득	2.9122	1.0703	-4.2038***
	고소득	3.3923	1.0528	
본인의 명예	저소득	2.7637	0.9431	-0.5655
	고소득	2.8231	1.0452	
보험회사 브랜드	저소득	2.7829	1.0094	0.5553
	고소득	2.7231	0.9884	
초기정착금	저소득	2.7663	1.0428	1.2640
	고소득	2.6231	1.0802	
보험설계사 양성제도	저소득	3.0270	1.0470	0.5851
	고소득	2.9615	1.0298	
우수보험설계사 우대	저소득	2.9382	1.0361	0.4280
	고소득	2.8923	0.9171	
신분발전제도	저소득	2.9073	1.0413	1.1660
	고소득	2.7813	0.9131	

주 :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수준을 의미

- 보험설계사의 소득 수준에 따른 이직원인 차이분석(t-Test) 결과, 선지급 제도, 수수료 수준, 가정환경 요인, 관리자의 리더십, 조직 내 직원 간 갈등, 분위기 전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표 4> 참조).
-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저소득 보험설계사가 높게 나타나는 이직원인은 선지급 제도, 수수료 수준, 가정환경 요인이며, 고소득 보험설계사에게 높게 나타나는 이직원인은 관리자의 리더십, 조직 내 직원 간 갈등, 분위기 전환 요인임.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명예, 유지율 또는 상품경쟁력 요인에서는 고소득 보험설계사, 기타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저소득 보험설계사의 이직원인 점수가 높게 나타남.
- 높은 성과의 보험설계사는 낮은 성과의 보험설계사에 비해 직무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통해 보다 많은 보상을 받게 되어 직무만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직무성과와 이직간의 관계는 부(-)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직무성과가 높은 보험설계사는 조직 내 갈등, 리더십 부재, 관리자로서의 승진 욕구 등이 이직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됨.

나. 이직 보험설계사의 특성

- 이직보험설계사 집단과 이직 미경험 보험설계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판매경력 등 개인특성과 판매성과(계약건수, 월평균 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드러냄.
- 개인특성에서는 이직자의 연령(43.8세) 및 경력(7.56년)이 이직 미경험자(각각 40.3세, 5.13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연령 및 경력이 이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 이는 주로 과거에 입사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들이 최근의 금융환경이나 회사의 고능률 보험설계사 정책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임.
- 성과측면에서는 이직자의 계약건수(4.2건) 및 소득 수준(271만원)이 이직 경험이 없는 자(각각 4.9건, 307만원)에 비해 낮아 이직과 성과 간에는 부(-)의 관계를 보임.

<표 5> 이직 보험설계사 특성분석(전체데이터)

구 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t-값
개인특성	연령 (세)	이직	414	43.8285	8.7749	4.6540***
		미이직	208	40.3317	8.9702	
	경력 (년)	이직	406	7.5616	6.2594	4.5810***
		미이직	185	5.1297	5.3298	
	학력수준 (0:고졸 ↓, 1:대졸 ↑)	이직	401	0.5910	0.4923	-0.3745
		미이직	206	0.6068	0.4897	
성과특성	월평균 계약건수(건)	이직	418	4.2129	2.9317	-2.4846**
		미이직	213	4.9014	3.9039	
	월평균 모집액 (만 원)	이직	418	72.0957	56.2028	-.05155
		미이직	213	74.7653	70.8037	
	월평균 소득 (만 원)	이직	418	270.7321	196.4353	-1.8223*
		미이직	213	307.2160	303.1552	

주 :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수준을 의미

- 회사별로 이직자와 이직 미경험자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경력, 건수, 소득 수준에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성과변수(계약건수, 모집액, 소득)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⁴⁾
- 대형 생보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이직자 270만원, 이직 미경험자 356만원으로 이직자의 소득 수준이 낮게 나타남.
- 또한 이직자의 보험영업 경력이 이직 미경험자에 비해 평균 1.5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에 있어서는 차이를 드러내지 않음.

4) 중소형사 및 GA는 이직자 및 미이직자 집단의 표본 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분석하지 않음.

<표 6>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이직보험설계사 특성

구 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t-값
개인특성	연령 (세)	이직	115	42.8087	9.5218	1.3542
		미이직	92	41.0544	8.9250	
	경력 (년)	이직	114	7.0439	6.4976	1.7486*
		미이직	91	5.4835	6.1542	
	학력수준 (0:고졸 ↓, 1:대졸 ↑)	이직	114	0.5000	0.5022	-1.1376
		미이직	95	0.5789	0.4963	
성과특성	월평균 계약건수(건)	이직	116	4.5948	2.1223	-1.8273*
		미이직	96	5.4063	4.1766	
	월평균 모집액 (만원)	이직	116	72.0086	39.2042	-1.2924
		미이직	96	82.7396	78.3861	
	월평균 소득 (만원)	이직	116	270.8621	140.7001	-2.3314**
		미이직	96	356.2292	362.9363	

주 :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수준을 의미

- 외국계 생보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이직자 295만원, 미이직자 472만원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는 계약건수나 모집액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이직자의 성과가 미이직자에 비해 확연히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평균 연령은 대형 생명보험회사와는 달리 이직자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보험설계사 경력도 두 집단 간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음.

<표 7>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이직보험설계사 특성

구 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t-값
개인특성	연령 (세)	이직	52	37.6539	4.3606	-1.5306
		미이직	26	40.3461	11.1461	
	경력 (년)	이직	53	4.1164	2.9459	0.4120
		미이직	23	3.9000	3.2102	
	학력수준 (0:고졸↓,1:대졸↑)	이직	53	0.9811	0.1374	1.3078
		미이직	25	0.9200	0.2769	
성과특성	월평균 계약건수(건)	이직	53	4.1509	2.5973	-2.2756**
		미이직	26	6.1923	5.4038	
	월평균 모집액 (만원)	이직	53	77.7170	62.7800	-2.3225**
		미이직	26	120.1923	98.8534	
	월평균 소득 (만원)	이직	53	294.7736	184.7082	-2.8463***
		미이직	26	472.3462	371.6701	

주 :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수준을 의미

4. 시사점

보험설계사 이직의 주된 원인인 “경제적 보상요인”과 “조직 내 인간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수료 지급방식의 유연성, 보험설계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보험설계사의 주된 이직원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조직 내 인간관계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은 보험설계사의 소득과 소속회사(채널)별로 우선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채널전략 수립 시 이직률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경제적 보상요인과 관련해서는 선지급 제도, 수수료 수준, 수당환수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보험설계사의 선호도와 더불어 회사의 영업전략이나 경

영상황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보험설계사의 이직률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직률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보험설계사의 장기적인 소득흐름을 고려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필요함.
- 수당지급방식의 선호도 조사 결과, 부분 선지급방식(모집익월 70% 지급, 이후 1년 분급), 부분 분급방식(모집익월 50% 지급, 이후 1년 분급), 완전 선지급방식(모집익월 수수료 총액 100% 지급) 순으로 선호하였음
 - 반면 장기 분급(모집익월 50% 지급, 이후 2~3년 분급) 또는 완전 분급방식(수수료 총액을 2~3년에 걸쳐 동일한 수준으로 매월 지급)은 매우 낮음.
- 따라서 수수료 지급방식에 따라 차등화 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분급 방식의 수수료 지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8> 수수료 지급방식 선호도 조사(전체보험설계사 vs 이직보험설계사)

	전체보험설계사		이직보험설계사	
	관찰수	비중(%)	관찰수	비중(%)
완전 선지급방식	116	19.0	82	20.1
부분 선지급방식	291	47.5	188	46.1
부분 분급방식	141	23.0	95	23.3
장기 분급방식	33	5.4	24	5.9
완전 분급방식	31	5.1	19	4.7
계	612	100.0	408	100.0

- 소득 수준에 따른 수당지급방식의 선호도 조사결과 고소득 보험설계사에 비해 저소득보험설계사가 완전 선지급방식을 더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수당지급방식 선호도 조사(고소득보험설계사 vs 저소득보험설계사)

	고소득보험설계사		저소득보험설계사	
	관찰수	비중(%)	관찰수	비중(%)
완전 선지급방식	25	18.9	55	23.0
부분 선지급방식	67	50.8	91	38.1
부분 분급방식	31	23.5	64	26.8
장기 분급방식	5	3.8	17	7.1
완전 분급방식	4	3.0	12	5.0
계	132	100.0	239	100.0

주 : 저소득보험설계사 200만 원 이하, 고소득보험설계사 400만 원 이상

- 회사별 수당지급방식 선호도 조사결과, 회사의 전속채널보다는 독립대리점 채널이 완전 선지급방식을 더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수당지급방식 선호도 조사(회사/채널별)

(단위: %)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GA
완전 선지급방식	17.7	19.5	15.4	24.0
부분 선지급방식	57.6	46.0	53.8	40.6
부분 분급방식	16.7	26.5	15.4	27.4
장기 분급방식	4.4	0.9	9.0	4.0
완전 분급방식	3.4	7.1	6.4	4.0
계	100.0	100.0	100.0	100.0

- ☐ 보험설계사의 이직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보험설계사의 장기근속을 유인하는 다양한 제도를 자사의 재정적 능력과 보험설계사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도입하여 보험설계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장기근속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보장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수당의 장기지급제도 확립으로 나타남.

- 보험설계사의 장기근속제도 확립 시 모집조직의 먹튀방지 및 보험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11> 보험설계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 선호도 조사

	전체보험설계사		이직보험설계사	
	관찰수	비중(%)	관찰수	비중(%)
수당의 장기지급제 확립	204	33.4	134	33.5
퇴직급여보장	234	38.3	144	36.0
장기근속자 복리후생 강화	160	26.2	117	29.3
관리자로의 승진제도	13	2.1	5	1.3
계	611	100.0	400	100.0

◆ 우리나라 유동성제약 가구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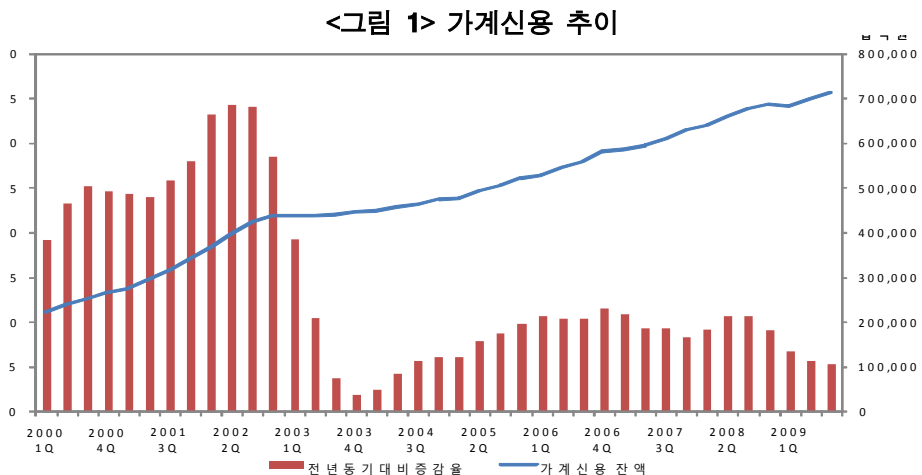
유경원 연구위원, 변혜원 부연구위원

1. 서론

가계부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가구가 유동성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유동성제약 가구의 규모 및 특징, 경제적 영향 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 금융의 발달로 가계부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은행 등의 가계부문 영업확대와 저이자 기조에 따른 가계 대출 수요 확대로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주 : 실선은 가계신용 분기 잔액(우측)을, 막대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좌측)을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부채가 특정계층에 몰려 있음.

- 가계부채의 분포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누어 보면 고소득계층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득(4·5분위)계층이 전체 가계부채 중 63%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소득(1분위) 계층의 경우 8% 정도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소득계층별 부채보유 비중

(단위: %)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부채(100)	8.0	12.5	16.4	24.9	38.3

주 : 개별 가구의 부채를 합하여 가계부문 전체 및 소득계층별 부채액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계층별 보유 비중을 구하였음

자료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7. 6

-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금융의 확대로 유동성제약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 취약계층의 대출 등 금융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계층에 대한 은행 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위험에 보다 많은 노출이 되고 있음.

- 특히,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층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불법 사금융 등을 이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높은 이자부담과 불법 추심행위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

* '09년 상반기 금융위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 대부업 대출 규모는 5.2조 원으로 나타남(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9.9.17).

- 한편, 최근 들어 취약계층이 적정한 가격의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불이익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음.

- 그간 정부는 신용회복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대책을 마련·시행해 왔으나, 경기침체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서민금융수요 충족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
- 2009년 9월 정부에서는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확대하여 ‘미소금융사업’을 추진
 - 동 사업은 재계 기부금 약 1조원과 휴면예금 출연금(7천억원)등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 약 20~25만 가구이상의 저소득층 대출제약을 해소할 계획
- 그러나 서민금융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동성제약이 있는 가구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계층이라 할 수 있는 대출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가구의 규모와 특성, 유동성제약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임.
 - 경제이론은 유동성제약이 있을 경우 개인은 소비지출 최적화를 달성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시사
- 본고에서는 소비자금융의 발달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제약 가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유동성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가구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함.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0차년도 자료의 유동성제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유동성제약 가구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 가구의 소득 및 자산·부채 수준, 교육, 직업 등 경제·사회적인 특징을 파악
 - 경제학 이론에서 예측하는 유동성제약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즉 소비의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 여부를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증대되고 있는 소비변동성에 관한 시사점 제공

2. 국내 유동성제약의 현황과 발생원인

국내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7~10등급) 고객군 가운데 약 280만명 가량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서민층 금융수요에 비해 금융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됨.

가. 현황

- ☐ 유동성제약(Liquidity Constraint) 현상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경제·사회적인 이유로 서비스 접근에 있어 제약이 있을 때를 지칭함.
- ☐ 대출과 관련된 서민금융정책의 대상계층은 통상적으로 민간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의 개인 신용도 평가결과 7~10등급으로 분류된 개인들임.⁵⁾
 - 금융회사들은 이들 저신용자에 대해 1~6등급으로 분류된 자에 비해 위험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에 소극적임.
 - 기존의 저축은행 등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들도 2000년대 초반 소액신용대출 부실화 등으로 그동안 PF대출 등 고위험·고수익위주의 영업에 치중
- ☐ 2009년 6월말 현재 신용평가회사인 KCB 기준에 따르면 826만명이 7~10 등급자로 이들 계층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중 26% 가량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중 16%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으며 18%가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애로를 겪고 있어 개략적으로 약 280만명 가량이 대출제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는 금융거래를 할 필요가 없거나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5) 신용평가회사는 개인의 신용도를 1~1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상위등급이 하위등급보다 신용도가 좋은 것으로 통용

나. 발생원인

- ☐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유동성 제약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로 금융시장의 불완전이 지목됨.
 -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면 소비자들은 소득의 흐름이 불규칙하더라도 저축과 차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재화의 기간 간 거래를 통해 소비를 평활화(Smoothing)하게 됨.
 - 현실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동성제약에 직면하게 되고 현재의 소비가 현재소득 등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
- ☐ 국내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력 향상을 위한 이들의 금융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서민층 대상의 금융서비스 공급은 이에 못 미치고 있어 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용도가 낮은 주 고객군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민금융시장이 위축됨.⁶⁾
- ☐ 서민금융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서민금융회사의 기능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됨.
 - 서민금융회사는 수익성이 낮고 건전성이 취약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 능력이 낮은 실정임.
- ☐ 아울러 담보위주의 여신관행도 서민금융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금융회사가 외환위기 이후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을 주로 취급함으로써 담보력이 낮은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금융취약계층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임.
- ☐ 또한 평판위험을 우려한 은행이 서민층 대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꺼리는 것도 대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찬우(2009)와 여의도연구소(2009)를 참조

출제약이 쉽게 완화되기 어려운 요인으로 제기됨.

-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금리 부과가 불가피한 서민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도덕성에 대한 논란 등 은행의 평판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3. 유동성제약 가구의 규모 및 특징

2007년을 대상으로 한 10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약 3~7% 정도의 가구가 유동성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 그룹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금융자산 보유, 그리고 높은 이자상환부담에 직면하고 있음.

가. 유동성제약 가구의 규모 추정

- 본고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10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성제약이 나타나는 가구를 파악하여 유동성제약의 규모 정도를 살펴봄.
 - 노동연구원의 10차년도 자료에는 2007년을 기준으로 유동성제약에 관한 질문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연구와 달리 직접적인 유동성제약의 규모 및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 과거 2~3년 안에 돈을 빌리려다 실패했거나,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①빌리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 ②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 ③빌리는 데에 늘 성공했다, ④빌리려 한 적이 없었다 등의 네 가지 응답으로 분류함.
 - 우선 이 중 ①과 ②로 응답한 가계를 유동성제약이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어 있는 가구의 규모를 추정해 봄.
- 본고에서 2007년을 대상으로 한 10차년도 노동패널조사자료(2009)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대략 3~7% 정도의 가구가 유동성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가구 추계 및 본고의 추정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대략 49만~115만 가구가 유동성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국내 유동성 제약 가구의 규모

(단위: %)

	①빌리려다 실패한 적이 있는 가구	②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었던 적이 있었던 가구	①과 ②로 응답한 가구
비율	3.1	3.8	6.9

주 : 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 조사자료, 2009

- 한편 대출제약의 공급측면을 살펴보면 앞서 원인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제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금융기관별 유동성 제약 가구의 규모

(단위: %)

변수명	은행	저축은행, 신탁	보험회사	대부업체	지인
비율	3.9	0.5	0.2	0.5	2.3

주 : 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 조사자료, 2009

- 한편 가구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추계한 국내 유동성 제약이 있는 가구의 규모는 통상적으로 학계나 업계에서 간접적으로 추정한 규모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많은 연구결과들은 전체 인구의 20~30% 정도가 항상소득가설을 따르지 않거나 (Hall and Mishkin, 1982) 주로 저소득층으로 간주되는 계층이 유동성제약에 직면하는 결과를 보여줌(Hayashi, 1985; Zeldes, 1989).
 -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Campbell and Mankiw(1990)의 경우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는 인구의 비율이 50% 내외이고 PSID를 이용한 Zeldes(1989)는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저소득층으로 간주되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계층의 비율이 67%인 것으로 보고
 - 소비의 유동성제약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실업률, 현재소득, 순자산 등을 유동성제약을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하여 국내 소비자들도 유동성제약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석

- 차은영(1996)의 연구는 앞선 해외연구를 토대로 외환위기 전 유동성제약가구를 대상범위에 따라 5~80%로 추정
- 한편, 허석균(2005)은 유동성제약과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가구소비함수의 추정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제약의 완화경향을 보고하였으며 김기호(2009) 역시 가계의 유동성제약이 외환위기 전후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외환위기 이후 작아진 것으로 분석
- 동 분석결과들은 유동성 제약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아닌 간접적인 분석결과임.

나. 유동성제약 가구의 특징

- 과거 2~3년 안에 돈을 빌리려다 실패했거나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 가구를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가구라고 정의하고, 이들 가구의 특성을 살펴 봄.
 - 빌리려다 실패한 적이 있거나,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었던 경험이 있었던 가구들을 유동성제약 그룹 A,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가구들을 그룹 B로 분류하여 경제·사회적 특징을 비교함.
- 유동성제약 그룹 A의 특성을 인구 사회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룹 B에 비하여 평균적인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 낮았으며, 가구주가 상용직에 종사하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의 비중이 그룹 A의 경우 21.9%, 그룹 B의 경우 24.7%로 나타남.
 - 직업별로 살펴보면, 유동성제약 그룹 A의 경우 가장의 고용주 내지 상용직 비중이 비교 그룹에 비해 훨씬 낮아 소득흐름이 불안정함을 시사

<표 4>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 특성

(단위: %)

변수명	유동성계약(A)	비유동성계약(B)
가구주 평균연령	49.9	50.8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가구 비율)	21.9	24.7
가구주의 직업이 상용직인 가구 비율	37.5	53.4
가구주가 고용주/자영업자인 가구 비율	40.9	32.6
관측치 수	352	4,717

주 : 그룹 A는 유동성 계약이 있는 가구 집단으로서 유동성 계약에 관한 질문에 ① 또는 ②로 대답한 가구, 그룹 B는 나머지 가구들의 집단으로 정의함.

- ☐ 다음으로 두 그룹의 소득 및 소비 특성을 살펴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비유동성 계약 그룹 B의 평균 총소득과 평균 월평균 생활비도 유동성계약 그룹 A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룹 A는 총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모두 그룹 B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생활비는 그룹 A가 그룹 B에 비해 낮았음.
 - 한편 유동성계약 그룹의 경우 소득 및 소비의 변동성을 살펴본 결과⁷⁾ 표준화한 변이계수 값이 비유동성계약 그룹 B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7) 1차 조사부터 10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오차를 계산하거나 표준오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계산함.

<표 5> 유동성 제약 가구의 소득 및 소비 특성

(단위: 만원, %)

변수명	유동성제약(A)	비유동성제약(B)
평균 총소득	3,117.3	3,483.4
평균 근로소득	2,901.9	3,296.2
평균 금융소득	3.9	52.2
평균 부동산소득	41.4	237.6
평균 소득 변동성	1,194.8	1,312.6
평균 소득 변이계수	0.51	0.50
평균 소비(월평균 생활비)	177.5	183.4
평균 소비 변동성(표준오차)	53.8	51.5
평균 소비 변이계수	0.38	0.38
평균 소비(비내구재)	176.3	181.6
평균 소비 변동성(비내구재)	51.8	49.5
평균 소비 변이계수(비내구재)	0.35	0.34
관측치 수	352	4,717

주 : 평균 소비 변동성과 평균소비 변이계수를 제외한 변수들은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 조사자료를 사용했으며, 변동성이 포함된 변수들은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0차년도 조사자료를 사용함.

- ☐ 총자산 수준 역시 유동성제약 그룹(A)이 비교그룹 B보다 낮은 수준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경제적 충격에 사용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유동성제약 그룹(A)이 비유동성제약 그룹(B)에 비해 절반(53%)정도 수준임.
- ☐ 총부채 수준의 경우에는 유동성제약 그룹과 비유동성제약 그룹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유동성제약 그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채잔액은 유동성 제약이 있는 그룹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월상환금 총

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유동성 제약 그룹(A)의 경우 높은 이자로 인한 원리금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15.2%).

<표 6> 유동성제약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특성

(단위: 만원)

변수명	유동성제약(A)	비유동성제약(B)
평균 총자산	13,009.7	21,308.1
평균 총부동산 자산	12,364.3	19,317.3
평균 총금융 자산	1,577.6	2,953.0
평균 총부채잔액	6,090.8	6,722.4
월상환금 총액	37.2	37.6
월소득 대비 상환금 비중(%)	15.2	13.4

- 한편, 소득계층별로 유동성제약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저소득계층의 유동성제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 2분위의 저소득 가구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약 8~9% 가구가 대출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계층의 경우에도 다소 높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소득분위별 유동성제약 가구 비중 및 특성

(단위: 만원, %)

변수명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유동성 제약 관련 질문에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가구 비중	8.6	8.9	6.7	5.0	5.5	6.9
유동성 제약 관련 질문에 ①로 응답한 가구 비중	4.8	4.5	2.7	1.8	2.0	3.1
가구주 평균연령	62.3	50.6	46.4	47.5	48.0	50.7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가구 비율)	9.3	14.6	21.5	28.0	48.0	24.5
가구주의 직업이 상용직인 가구 비율	22.3	31.1	46.4	47.8	51.4	44.3
가구주가 고용주/자영업자인 가구 비율	13.2	16.9	16.4	19.4	23.5	19.2
평균 총소득	658.7	1,695.4	2,736.5	4,022.0	8,146.2	3,458.0
평균 금융소득	11.9	20.0	27.4	39.4	148.5	48.8
평균 부동산소득	29.9	51.5	48.8	91.8	942.4	230.0
평균 소득 변동성	716.7	878.4	1,036.9	1,415.4	2,773.2	1306.0
평균 소득 변이계수	0.60	0.48	0.44	0.46	0.54	0.50
평균 총자산	9,146.7	11,189.2	14,351.0	22,137.5	47,603.6	20,731.8
평균 총부동산 자산	8,571.2	10,290.3	13,210.1	20,348.4	42,455.2	18,834.5
평균 총금융 자산	1,277.9	1,595.7	1,706.3	2,391.0	6,055.8	2,893.4
월평균 저축액	6.1	19.5	40.6	68.4	124.2	51.2
평균 소비(월평균 생활비)	67.1	123.5	172.0	224.0	328.7	182.9
평균 소비 변동성	26.4	38.5	46.8	60.8	92.3	51.6
평균 소비 변이계수	0.39	0.36	0.36	0.38	0.41	0.38
평균 소비(비내구재)	66.8	122.9	170.8	221.9	324.1	181.2
평균 소비 변동성	24.9	36.0	43.9	57.1	86.6	49.3
평균 소비 변이계수	0.36	0.33	0.32	0.34	0.36	0.34
평균 총부채잔액	3,953.1	4,153.7	4,507.1	5,758.4	12,354.9	6,652.9
월상환금 총액	15.7	20.9	24.1	33.1	76.9	37.6

□ 마지막으로 유동성제약의 결정 요인들을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소득, 상용직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동성제약에 직면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동성 제약 더미를⁸⁾ 피설명변수로 하고, 소득, 가구주의 연령, 성별, 학력, 자녀의 수, 가구주의 고용형태, 자가여부, 서울거주 여부 등을 설명변수로 한 Probit 추정을 수행함.
- 추정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상용직이 아닐수록, 자가를 소유하지 못할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서울거주자일수록 유동성제약에 직면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유동성제약의 결정요인 분석

	Probit (유동성 제약=1)	
	추정계수	Z값
가구소득	-0.143**	-2.33
가구주 연령	0.021	0.73
(가구주 연령) ²	-0.0002	-0.72
가구주 성별	-0.177	-1.18
가구주 학력	-0.016	-0.41
15세 이하 자녀 수	0.182***	2.77
상용직 여부	-0.320***	-3.46
자가 여부	-0.332***	-3.74
서울 거주 여부	-0.231**	-1.94
상수	-0.576	-0.67
관측치수	2,027	
χ^2 검정치	55.31	
Prob > χ^2	0.0000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8) 유동성 제약에 관한 질문에 ①빌리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 ②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로 응답한 경우 유동성제약이 있는 가구로 정의함.

4. 유동성제약의 경제적 영향

한국노동패널자료(1차~10차)를 이용하여 유동성제약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소비행태식을 분석한 결과 유동성제약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가구의 경우 대부분 소득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가계가 소비평활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유동성제약이 나타날 때 경제이론이 예측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소비에 대한 욕구의 증가에 비해 낙후된 소비자금융으로 인해 자금의 융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못할 때 소비자는 유동성제약에 처하게 되고 이것은 초과소비증가(Excess Consumption Growth)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임.
 - 유동성제약은 불완전 금융시장의 한 형태로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자유롭게 차입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평활화는 물론 소비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
- 대출제약 내지 유동성제약이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나 대부분 이론적인 예측과 간접적인 추정을 수행
 - 소비자이론에 따르면 유동성 제약이 있을 경우 가구는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흐름이 소득흐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나게 됨.
 - 이 경우 소비자는 본인의 효용극대화를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다음에서는 유동성제약 이론이 예측하는 바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검증하기로 함.

가. 유동성제약모형

□ 본고에서는 Hayashi(1997)와 차은영(1996)을 따라 유동성제약하의 가계모형을 구축하고 오일러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정식을 도출

- 오일러방정식을 이용한 소비행동의 실증분석은 자의적일 수 있는 소득의 구조를 구체화할 필요 없이 이론적 토대 위에서 도출한 최적조건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선택변수가 직접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C, Y, r 을 각각 소비, 소득, 이자율로 정의하면, 통상적인 오일러방정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정식이 도출됨.⁹⁾

$$\Delta \ln(C_t) = a + \sigma r_t + \lambda \Delta \ln(Y_t) + \zeta_t \quad (1)$$

- 추정식의 도출을 위해 CRRA 형태 효용함수를 가정하며 σ 는 상대위험회피계수를 나타내고 직교검정(orthogonality test)을 통하여 유동성제약이 가계의 소비최적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
 - 유동성 제약이 구속력이 없을 경우 소비증가율은 이자율 등의 변수를 제외하고 소득증가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유동성 제약이 나타나는 가구의 경우 소득의 증가율이 소비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있게 됨.
- 한편 본고에서는 (1)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이용하여 유동성제약의 경제적 효과를 검정하기로 함.

$$\Delta \ln(C_{i,t}) = \alpha_0 + \alpha_1 \Delta \ln(Y_{i,t}) + X'_{i,t} \Gamma + \epsilon_{i,t} \quad (2)$$

$$\Delta \ln(C_{i,t}) = \alpha_0 + \alpha_1 \Delta \ln(Y_{i,t}) + X'_{i,t} \Gamma + \eta_i + \mu_{i,t} \quad (3)$$

- (1)식에서의 이자율 대신 시간선택호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X_{i,t}$ 벡터로 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가구주 나이, 교육수준, 상용직여부, 시간더미 등이 포함됨.
- 유동성제약 여부에 따라 소득증가율의 계수 α_1 이 0인지 여부를 검정하게 됨.

9) 자세한 도출과정은 Hayashi(1997) pp.7~9 참조

- 한편 식(3)은 가게 고유 특성(η_i)을 고려하기 위해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모형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음.
- 소득 및 소비 등 명목 변수들은 모두 2000년 CPI 기준으로 실질화 하였음.
- 소비지출의 경우 전체소비 증가율과 내구재 소비를 제외한 비내구재 소비지출로 구분하여 분석
- 소득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의 오차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구변수를 사용한 추정기법이 사용되었으며 도구변수로는 3기전의 소득 등이 사용되었음.

나. 실증분석 결과

- 한국노동패널자료(1차~10차)를 이용하여 유동성제약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소비행태식을 분석한 결과 유동성제약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소득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가게가 소비평활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F 검정결과 고유효과들은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정효과 도구변수(FEIV)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구변수(IV) 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함.
 - 유동성제약이 있는 가구는 물론 유동성제약이 없는 가구 역시 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대부분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에서 소득증가율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음.¹⁰⁾
 - 유동성제약 그룹(A)의 경우 이론의 예측과 달리 일부의 경우 소득증가율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
 - 비유동성제약 그룹(B)의 경우 소득증가율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유동성제약이론의 예측과는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비유동성제약 가구를 보다 협소하게 정의한 그룹 C(직접적으로 유동성 제약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에게서 이와 같은 민감성은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10) 차은영(1996), Zeldes(1989), Runkle(1991)

- 유동성제약이 없다고 밝힌 계층은 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소비최적경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그 강도가 오히려 유동성 제약이 있는 계층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유동성 제약 추정 결과

추정기법		$\Delta \ln(C_t)$	$\Delta \ln(C_t)$	$\Delta \ln(C_t)$	$\Delta \ln(C_t)$	$\Delta \ln(C_t)$	$\Delta \ln(C_t)$
		(A)	(B)	(C)	(A)	(B)	(C)
		전체소비			비내구재소비		
IV	$\Delta \ln(Y_t)$	0.225	0.458***	0.701***	0.321*	0.472***	0.739***
FE IV	$\Delta \ln(Y_t)$	-0.168	0.954*	0.558***	0.206	-1.001	0.367

주 : 1) 한국노동패널 1차~10차년도 조사자료
 2) 유동성 제약 그룹 A, 비유동성제약 그룹 B, 유동성제약이 전혀 없다는 그룹 C를 의미함.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소비가 유동성제약과는 큰 관계는 없음을 시사하며 소비자금융의 확대가 전반적인 경기의 안정(Great Moderation)을 가져온 미국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¹¹⁾
- 외환위기 이후 민간소비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유동성제약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임.
- 미국과 달리 유동성제약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나 소비의 관습(habit formation) 부재 등과 같은 요인들이 소비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음.
- 소비자 이론에 따르면 소비변동성의 확대는 유동성제약의 존재 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동기의 강화로 발생하며 실증적으로 이를 구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전년도 소비지출이 금년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의 관습이 존재할 경우 소비패턴은 보다 평활하게 나타남.

11) 미국경제의 변동성 저하의 원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Dynan, Elmendorf, Sichel(2006)을 참조

<표 10> GDP 및 구성항목 증가율의 변동성 비교

	GDP	민간소비	총투자	수출	수입
1985년 1분기~1997년 2분기	2.25	1.68	3.73	10.00	8.23
1999년 1분기~2009년 2분기	3.39	4.39	1.52	10.88	12.97

주 : 수치는 표준오차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거시경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금융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일시적인 소득변동에도 소비지출이 민감하게 반응(Debelle, 2004)
 - 설문조사결과, 경제적 어려움 시 소요자금 충당은 예·적금, 소비지출조정, 대출순으로 나타나 금융자산 축적이 경제충격에 대한 완충제(Buffering Asset)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보험연구원, 『2009년 보험소비자설문조사』, 2009.3).

5. 결론 및 시사점

분석결과, 유동성제약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 소비자 금융정책은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부담의 가중을 가져오고 소비지출 평탄화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므로 자산형성지원 등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외현상(Financial Exclusion) 해소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2007년도 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동성제약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7% 내외인 것으로 추정됨.
 - 유동성제약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많았지만 적지 않은 고소득 가구도 유동성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동성제약 그룹의 높은 금리로 인해 원리금상환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의 경우 통상적인 경제이론의 예측과 달리 유동성제약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소비변동성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론예측과 달리 소비자금융의 발달로 인한 유동성제약의 완화가 소비평활화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소비자금융의 발달이 경제의 안정을 가져온 미국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며 이와 같은 차이는 국내 소비자금융의 발달이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 측면이 아닌 주로 주택금융의 발달과 관계가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금융의 발달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가계부채의 확대와 경제적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부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경기가 급속히 하락할 경우 가계부채 부담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 불확실 확대에 따른 예비적 저축동기 확대 등으로 인해 소비지출이 보다 급격히 감소하여 경기충격을 보다 확대시킬 가능성이 제기
- 분석결과, 대출제약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 소비자금융 정책은 가계부채의 확대와 이로 인한 상환부담의 가중이 있는 반면 소비지출 평탄화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므로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리스크 관리 지원, 재무컨설팅 강화 등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금융서비스 소외현상(Financial Exclusion)¹²⁾ 해소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생산적인 목적을 가진 신용이 낮은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저축,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소비지출 흐름 확보와 다양한 자산형성 및 리스크관리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선진국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대출서비스에 대한 제약만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저축, 투자, 보험, 금융교육 및 자문 서비스에 대한 제약 등 금융소외 현상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음.

12) 금융소외의 정의와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UK Treasury Committee(2006)을 참조

〈참 고 문 헌〉

- 김기호, “가구패널자료 접속을 통한 가계의 유동성제약 변화 연구”, 금융경제연구 제410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9
- 여의도연구소, “서민금융 현황분석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여의도연구소 주최 정책토론회 자료, 2009.8.24
- 정찬우, “서민층 금융소외의 원인 및 정책시사점”, 금융포커스, 주간금융브리프, 제18권 4호 2009.1.17~1.30
- 차은영, “유동성제약과 향상소득가설: Micro Data 분석”, 경제학연구, 제48집 제1호, pp.35~62
- 허석균,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가구소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27권제1호, pp.1~38, 2005
- Campbell, J. and N. Mankiw, "Permanent Income, Current Income, and Consumption",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Vol. 8, 1990, pp. 265-279.
- Debelle G.,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Rising Household Debt," BIS Working Paper 153, 2004
- Dynan, K., Elmendorf D., and D. Sichel, "Can Financial Innovation Help to Explain the Reduced Volatility of Economic Activit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53, 2006, pp. 123-150.
- Hahashi, F., *Understanding Saving: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IT press, 1997
- Hall, R. and F. Mishkin, "The Sensitivity of Consumption to Transitory Income: Estimates from Panel Data on Households", *Econometrica*, Vol. 50, 1982, pp. 461-482.
- Runkle, D., "Liquidity Constraints and the Permanent-income Hypothesi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 27, 1991, pp. 73-98.
- UK Treasury Committee, *Financial Inclusion: Credit, Savings, Advice and Insurance*, UK House of Commons, 2006
- Zeldes, S., "Consumption and Liquidity Constraints: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7, 1989, pp. 305-346.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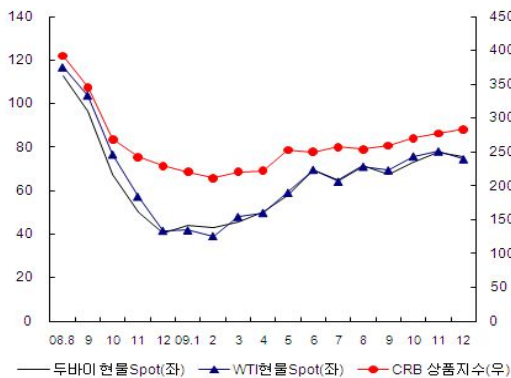
선진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중국 등 신흥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에서 탈피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조기 재고감소에 따른 생산증대, 세계무역의 침체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 됨.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높은 실업률, 민간투자의 부진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조기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은 대외부문의 회복세에 힘입어 3/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중국 등 신흥국은 내수 및 대외부문의 호조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에서 점차 탈피하면서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임.
- 미국은 고용시장의 악화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부진하던 내수 및 대외 부문의 개선, 하락을 거듭하던 경기체감지수의 상승 조짐, 경기선행지수의 꾸준한 상승 등으로 경기회복의 기대를 높여주는 상황임.
- 유로지역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은 수출 증가로 플러스 성장하였으나, 내수 부진과 고용여건의 악화가 지속됨으로써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더욱이 재정적자로 인한 일부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정해지면서 실물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은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이 회복세를 보이고 대외부문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전후 최고의 실업률도 최근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나, 디플레이션 심화가 경기회복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함.
- 중국은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내수부문의 회복 가속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대외부문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유동성 증가로 인한 자산시장 거품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점차 높아져가는 상황임.
- 세계경기의 회복 기미와 향후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세계물가는 점차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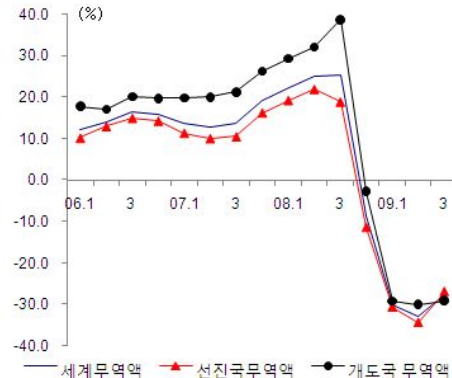
- 국제 유가가 재고 증가를 상쇄하는 수요 증가로 9월말의 70달러대에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WTI 현물가의 경우 지난해 말 대비 91.0% 증가하는 등 크게 상승하는 모습임.
- 여타 국제 원자재가격도 실물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추세로서, CRB지수¹⁾는 지난해 말에 비해 2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무역은 금융위기 이전의 감소폭을 만회하지는 못했으나, 신흥개도국 위주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지난 2/4분기 전년동기대비 -32.8%에서 3/4분기에는 -27.5%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며, 전분기대비로는 2분기 연속 증가함으로써 회복이 탄력을 받는 상황임.
- 특히, 2/4분기 선진국 무역액이 2.5% 증가에서 3/4분기 9.9%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세계교역의 회복에 대한 선진국의 기여가 높아지는 모습임.

<그림 1>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2> 세계 무역액 증가율 추이



자료 : IMF

1)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22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가. 미국경제

2009년 3/4분기 실질 GDP는 5분기 만에 증가세를 시현함으로써 경제회복의 지연에 대한 우려가 다소 해소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다소 둔화되었던 경기체감지수도 다시 반등하는 가운데, 실업률도 소폭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설비투자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관련 지표들이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과는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기에는 다소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근 동향 및 전망>

- 지난 2/4분기 중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던 실질 GDP는 3/4분기에 들어와 민간소비의 호조, 주택투자 및 수출의 증가세 전환 등에 힘입어 2.2%의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5분기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함.
- 민간소비는 3/4분기에 내구재 소비가 20.4% 증가하는 등 재화소비 증가에 힘입어 2.8%의 반등세를 기록했으나,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속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 주택투자는 18.9%가 증가하여 2005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시현하였고, 설비투자도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임.
- 수출은 3/4분기 중 17.8%가 증가하여 5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수입이 21.3%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이 4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시현함.
- 2/4분기 중 실질 GDP의 감소를 억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정부지출은 3/4분기 중에는 2.6%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FOMC²⁾는 하반기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나, 2010년에는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이며, 2011~2012년에 가거나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 2009년 실질 GDP는 하반기의 빠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0.4~-0.1%를 달성할 것으로

2) FOMC,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09.11.

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6월의 전망치 -1.5~-1.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에는 2.5~3.5%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인 후 2011~2012년에는 3.4~4.8%의 기록하여 잠재성장률 수준인 2.5~2.8%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표 1>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연율, 전기대비, %)

	2007	2008	2008			2009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실질GDP	2.1	0.4	1.5	-2.7	-5.4	-6.4	-0.7	2.2
민간소비	2.6	-0.2	0.1	-3.5	-3.1	0.6	-0.9	2.8
설비투자	6.2	1.6	1.4	-6.1	-19.5	-39.2	-9.6	-5.9
주택투자	-18.5	-22.9	-15.8	-15.9	-23.2	-38.2	-23.3	18.9
수출	8.7	5.4	12.1	-3.6	-19.5	-29.9	-4.1	17.8
수입	2.0	-3.2	-5.0	-2.2	-16.7	-36.4	-14.7	21.3
정부지출	1.7	3.1	3.6	4.8	1.2	-2.6	6.7	2.6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09.12.22.

<고용과 물가>

□ 지속적으로 상승해오던 실업률은 11월에 들어서면서 다소 하락하고, 비농업취업자 감소세도 급격히 축소되는 등 고용시장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이른 상황임.

- 11월 중 실업률은 전월대비 0.2%p 감소한 10.0%를 기록함으로써 4개월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임.
 - 이는 7월의 실업률 하락이 15개월만의 하락인 점과 비교할 때 하락 주기가 크게 단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실업률 하락세가 나타났으며, 특히 가장 악화되었던 16~19세의 실업률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비농업취업자수는 최근 2개월 연속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11월 중에는 전월 대비 1.1만 명이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는 감소폭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상승세를 유지함.

□ FOMC와 미정부는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 과거 불황기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경기는 기업의 고용억제를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고용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함.
- FOMC는 2009년 실업률이 9.9~10.1%로 상승하고, 2010년에는 9.3~9.7% 수준으로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실업률	5.8	7.6	8.1	8.5	8.9	9.4	9.5	9.4	9.7	9.8	10.2	10.0
비농업취업자증감 ¹⁾	-3,078	-741	-681	-652	-519	-303	-463	-276	-201	-219	-111	-11
소비자물가 ²⁾	3.8	0.0	0.2	-0.4	-0.7	-1.3	-1.4	-2.1	-1.5	-1.3	-0.2	1.8
(근원 소비자물가)	2.3	1.7	1.8	1.8	1.9	1.8	1.7	1.5	1.4	1.5	1.7	1.7
생산자물가 ²⁾	6.4	-0.9	-1.4	-3.4	-3.5	-4.8	-4.4	-6.9	-4.3	-4.8	-1.9	2.4
소매판매	3.3	-9.1	-8.0	-9.5	-10.0	-9.8	-8.8	-8.5	-5.5	-6.1	-2.0	1.9
재고/도매판매비율 ³⁾	1.17	1.34	1.31	1.32	1.31	1.28	1.25	1.23	1.20	1.17	1.16	-
주택착공호수 ⁸⁾	-33.3	-54.9	-47.8	-47.5	-52.1	-43.3	-45.3	-36.4	-31.6	-28.7	-30.9	-12.4
주택가격지수 ⁴⁾	208.7	200.8	201.4	198.8	197.9	199.1	199.4	199.8	198.9	198.2	199.4	-
소비자신뢰지수 ⁵⁾	58.0	37.4	25.3	26.9	40.8	54.8	49.3	47.4	54.5	53.4	48.7	50.6
경기선행지수 ⁶⁾	101.0	98.6	98.2	97.9	98.9	100.2	101.1	102.1	102.5	103.7	104.0	104.9
산업생산지수 ⁷⁾	108.8	100.2	99.3	97.7	97.2	96.2	95.8	96.8	98.1	98.6	98.6	99.4
산업생산가동률	77.6	71.2	70.6	69.5	69.2	68.5	68.3	69.1	70.1	70.6	70.6	71.3
재고/출하비율	1.28	1.46	1.45	1.46	1.45	1.45	1.41	1.39	1.38	1.35	1.34	-
ISM제조업PMI	45.5	35.6	35.8	36.3	40.1	42.8	44.8	48.9	52.9	52.6	55.7	53.6

주 : 1) 증가분 천명, 계절조정 2) 1982=100, 전년동기대비, 3) 제조업자 직거래 제외 4)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1991.1=100 5) 1985=100, 6) 2004=100, 7) 2002=100, 8)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생산자물가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11월에는 상승세로 전환됨.

○ 지난 3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해오던 소비자물가는 11월에 1.8%의 상승세로 전환되었는데 여기에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크게 작용함.

- 근원소비자물가는 지난 1년 동안 1.4~1.9%의 범주에 머무는 등 안정세를 보였으며, 식료품가격도 최근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나, 에너지 가격은 19.6%나 상승한 유류제품의 상승세로 인하여 11월 중 7.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생산자물가는 7월의 -6.9%를 저점으로 하락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11월에는 2.4%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됨.

- 11월 중 중간재는 1.6% 감소하는데 그쳐 하락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원자재는 4.7% 상승하여 2008년 10월의 0.1%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임.

□ FOMC는 유효수요부족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향후 몇 년간 물가의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세계경기 회복세는 에너지 및 기타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함.

○ 2009년 소비자물가는 1.1~1.2% 수준에 이르고, 2010년에는 1.3~1.6% 수준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내수부문>

□ 도·소매판매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주택경기가 활력을 찾아감에 따라 내수부문의 회복이 빨라지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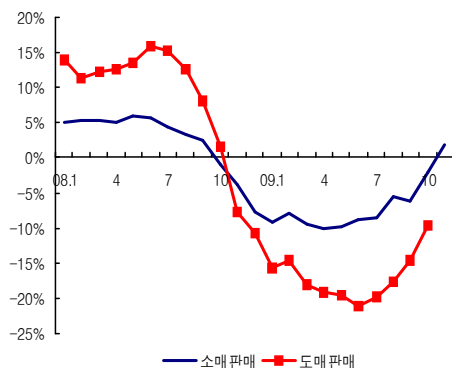
○ 소매판매는 4월 -10.0%를 저점으로 하락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11월에는 1.9%를 기록함에 따라 금융위기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임.

- 11월 중 소매판매는 중고차보상 프로그램으로 인한 자동차판매(5.1%)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가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의 소매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매판매는 10월 들어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감소세로 개선되었고, 재고/도매판매비율 역시 낮아짐으로써 도매판매부문이 회복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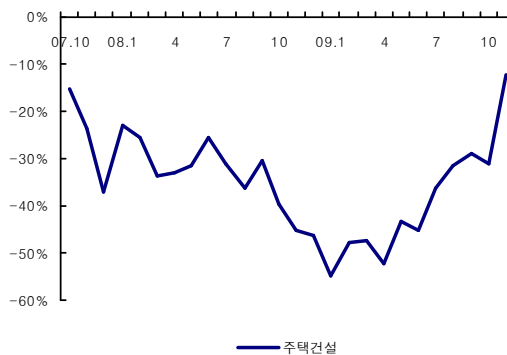
- 주택착공호수 증가는 11월에 전년동기대비 -12.4%를 나타내 2007년 10월 -15.2% 감소세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주택거래와 주택가격도 전월대비 각각 7.4%, 0.6%의 상승세를 유지함으로써 주택경기가 활력을 찾음.
- 소폭의 등락을 보이는 경기체감지수는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경기선행지표도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줌.
-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10월에 48.7로 소폭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하여 12월에는 52.9에 도달하였고, 경기선행지수는 정부의 유동성공급과 실업 감소에 힘입어 11월에는 104.9를 기록함.

<그림 3> 도소매 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 U.S. Census Bureau

<그림 4> 주택건설 증가율 추이



자료 : U.S. Census Bureau

<생산부문>

- 산업생산지수, 산업생산가동률 등은 하반기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도 하락세를 유지함으로써 생산부문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모습임.
- 산업생산지수는 전부문의 고른 상승으로 11월에는 99.4까지 상승함으로써 6월 이후 지속되어 온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에는 아직 미달한 상황임.

- 산업생산가동률은 6월 이후의 상승세가 유지되어 11월에는 71.3%까지 높아졌으나, 1972~2008년 평균수준인 80.9% 보다는 여전히 낮은 상황임.
- 재고/출하 비율은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1.34까지 낮아짐으로써 제조업부문의 생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ISM의 제조업 PMI는 4개월 연속 50을 상회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이 기대되는 모습임.
- 11월 ISM의 제조업 PMI는 53.6으로서 10월의 55.7보다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경기확대 기준인 50을 상회하였고 8월부터 시작된 확장세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나. 유로경제

3/4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대비로 6분기 만에 소폭이지만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최근의 경기체감지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 생산 등 실물지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함. 실업률도 최근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개선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경기회복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모습임.

<최근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실질 GDP는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내수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회복세에 힘입어 0.4% 성장함으로써 극심한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임.
 - 민간소비는 전분기의 0.0%에서 0.2% 하락하였으며 투자는 전분기의 -1.7%에서 -0.4%로 감소폭이 둔화되었으나 감소세가 유지됨으로써 내수부문의 부진은 지속되는 상황임.
 - 수출이 2.9% 증가하여 수입 증가율 2.6%를 상회함으로써 실질 GDP가 6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함.
- 독일과 프랑스는 3/4분기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회복속도가 가속되지는 않고 있으며, 영국경제는 침체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독일은 투자가 1.3% 증가한데 힘입어 실질 GDP가 0.7% 증가함으로써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민간소비는 0.9% 감소세로 전환됨으로써 회복속도가 둔화됨.
 - 프랑스는 실질 GDP가 0.3% 증가하여 2분기 연속 상승세이나, 민간소비의 성장이 정체되고, 투자 역시 부진한 가운데 수출 호조에 의지함으로써 뚜렷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영국은 민간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실질 GDP가 0.3% 감소함으로써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었고, 극심한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임.

□ OECD³⁾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 인해 2010년 유로지역은 플러스 성장하겠으나, 고용시장 침체, 민간부문 수요 부진, 재정 적자 증가는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소폭 성장(0.9%)할 것으로 전망함.

○ 2010년 독일은 상반기(1.0%, 이하 연율)보다는 하반기(1.8~2.1%) 성장률이 높으며, 프랑스는 상반기(1.4~1.6%)와 하반기(1.3~1.5%) 성장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겠고, 영국은 상반기(1.5~2.4%) 성장률이 하반기(1.8~2.0%)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함.

<표 3>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2007	2008	2008			2009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EA16 실질 GDP	2.7	0.7	-0.3	-0.3	-1.9	-2.4	-0.2	0.4
민간소비	1.6	0.4	-0.3	0.0	-0.5	-0.5	0.0	-0.2
고정자본형성	4.8	0.0	-1.3	-1.5	-3.8	-4.9	-1.7	-0.4
정부지출	2.2	1.9	0.9	0.5	0.6	0.6	0.6	0.5
수출	5.9	1.0	-0.3	-1.0	-7.2	-8.7	-1.3	2.9
수입	5.3	1.0	-1.0	0.3	-4.8	-7.4	-2.9	2.6
독일 실질 GDP	2.5	1.3	-0.5	-0.3	-2.4	-3.5	0.4	0.7
민간소비	-0.4	-0.1	-0.6	0.3	-0.4	0.9	0.6	-0.9
고정자본형성	4.3	4.4	-2.4	0.6	-2.0	-7.7	0.7	1.3
영국 실질 GDP	3.0	0.7	-0.1	-0.7	-1.8	-2.5	-0.6	-0.3
민간소비	3.0	1.4	-0.1	-0.4	-1.2	-1.5	-0.7	-0.1
고정자본형성	6.8	-3.1	0.5	-3.6	-2.2	-7.3	-5.2	-0.3
프랑스 실질 GDP	2.3	0.3	-0.4	-0.3	-1.5	-1.4	0.3	0.3
민간소비	2.4	0.9	0.1	0.2	0.1	0.1	0.3	0.0
고정자본형성	4.9	0.4	-1.5	-1.3	-2.6	-2.6	-1.2	-1.4

주 : Euro Area는 2009.1부터 슬로바키아를 포함하여 15개 회원국에서 16개 회원국으로 변경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urostatistics, 2009.10.7.

<고용과 물가>

□ 독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서 정체 또는 상승세를 보임으로써 유로지역의 고용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모습임.

3) OECD, Economic Outlook No.86, 2009.11.19

- 실업률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9.8%를 기록함으로써 가파른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나 199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25세 이하의 실업률이 20.6%를 기록하여 청년실업률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임.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지난 1년 동안 7.9%에서 9.8%로 상승한데 반해, 독일의 실업률은 7.1%에서 7.5%로 상승함으로써 가장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더구나 최근에는 소폭 하락함으로써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임.
 - 10월 현재 실업률이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3.7%), 오스트리아(4.7%)이며,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20.9%), 에스토니아(15.2%), 리투아니아(13.8%) 등 발틱 3국과 스페인(19.3%)인 것으로 나타남.
- 유로지역도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7월 이후 하락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는 11월에는 상승세로 전환됨.
-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11월에 0.5% 증가함으로써 6월의 -0.1%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여기에는 에너지가격의 상승이 주원인으로 나타남.
 - 11월 중 근원소비자물가는 0.1% 하락한데 반해 에너지가격은 1.4% 상승함.
 - 독일은 7월부터 시작된 소비자물가의 하락세가 11월에 0.3% 상승하여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프랑스도 5월부터의 하락세가 11월에 0.5%의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영국은 9월 이후 상승세가 가속되는 추세임.

〈내수부문〉

- 유로지역의 소매판매는 주요국의 판매부진, 발틱 3국 및 동구권의 급격한 판매 감소에 영향을 받아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음.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소매판매는 등락을 반복함으로써 하락세가 전환될 기회가 포착되지 못함.
 - 발틱 3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0%대의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동구권은 -10%대의 하락세가 전환될 조짐이 보이지 않음.
- 민간 소비와 투자 등 실물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에 대한 체감지수가 꾸준히 개선됨으로써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모습임.

- 유로지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4월 -34.2%의 대폭적인 하락에서 11월에는 -17.3%로 하락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제조업기대지수도 11월에 2008년 중반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1.7%의 증가세를 기록함으로써 회복의 기미를 보임.

<표 4>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2008	2009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EA16												
ESI ¹⁾	91.2	67.2	65.3	64.6	67.3	70.2	73.2	76.0	80.8	82.8	86.1	88.8
실업률 ²⁾	7.6	8.5	8.8	9.0	9.2	9.3	9.4	9.5	9.6	9.8	9.8	-
소비자물가 ³⁾	3.3	1.1	1.2	0.6	0.6	0.0	-0.1	-0.7	-0.2	-0.3	-0.1	0.5
소매판매지수 ⁴⁾	102.7	102.0	101.5	101.5	101.7	101.2	101.2	101.0	101.0	100.5	100.5	-
소비자신뢰지수 ⁵⁾	-18.0	-30.5	-32.9	-34.2	-30.5	-28.1	-25.1	-23.0	-22.0	-19.0	-17.7	-17.3
제조업기대지수 ⁵⁾	-1.9	-31.0	-31.7	-31.6	-25.2	-20.5	-15.8	-13.4	-7.7	-7.2	-1.7	1.7
산업생산지수 ⁶⁾	106.2	93.0	89.2	88.7	88.3	89.2	90.0	90.2	91.2	91.4	90.9	-
산업신뢰지수 ⁵⁾	-9.4	-33.4	-36.1	-37.8	-35.0	-33.2	-31.7	-29.6	-25.4	-24.4	-20.9	-18.9
독일												
ESI ¹⁾	96.0	74.3	72.9	72.2	73.3	74.4	77.6	80.8	85.9	87.4	90.8	92.5
실업률 ²⁾	7.3	7.2	7.3	7.4	7.6	7.6	7.7	7.6	7.6	7.6	7.5	-
소비자물가 ³⁾	2.6	0.9	1.0	0.4	0.8	0.0	0.0	-0.7	-0.1	-0.5	-0.1	0.3
소매판매지수 ⁴⁾	96.4	98.1	98.1	98.0	98.4	97.8	96.9	98.1	96.6	96.4	96.9	-
산업생산지수 ⁶⁾	111.5	93.6	90.2	90.2	87.5	91.8	93.0	92.2	93.7	96.9	95.2	-
영국												
ESI ¹⁾	84.7	60.1	56.6	56.2	61.3	66.1	68.8	73.8	83.5	83.5	86.7	83.8
실업률 ²⁾	5.6	6.8	7.1	7.2	7.5	7.7	7.8	7.8	7.8	-	-	-
소비자물가 ³⁾	3.6	3.0	3.2	2.9	2.3	2.2	1.8	1.8	1.6	1.1	1.5	1.9
소매판매지수 ⁴⁾	109.9	111.4	108.9	110.2	110.4	109.6	111.7	111.5	111.5	112.0	112.3	-
산업생산지수 ⁶⁾	93.8	89.0	88.3	88.1	88.2	87.6	88.0	88.4	85.8	86.9	86.8	-
프랑스												
ESI ¹⁾	95.4	74.8	74.1	73.4	74.6	77.5	80.9	81.3	83.2	88.1	90.8	93.0
실업률 ²⁾	7.8	8.7	8.9	9.1	9.2	9.4	9.5	9.7	9.8	10.0	10.1	-
소비자물가 ³⁾	3.2	0.8	1.0	0.4	0.1	-0.3	-0.6	-0.8	-0.2	-0.4	-0.2	0.5
소매판매지수 ⁴⁾	107.9	106.7	105.7	106.1	107.6	106.7	107.9	107.1	108.0	107.4	-	-
산업생산지수 ⁶⁾	99.9	87.6	87.3	85.8	84.6	86.6	86.7	87.2	89.7	88.7	87.9	-

주 :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채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3) 전년동기대비, 4) 계절조정 2005=100, 5)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과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6)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자료 :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 2009.10.15
European Commission, Eurostatistics, 2009.10.7.

〈생산부문〉

-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4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생산수준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다소 하락함으로써 생산부문의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임.
 - 산업생산지수는 지난 4월에 88.3을 기록한 이후 9월에는 91.4까지 회복하였으나, 10월에는 비내구재의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다시 90.9로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산업생산지수 역시 10월에는 다시 소폭 하락하여 회복세가 주춤함.
- 한편, 산업신뢰지수는 아직도 높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생산부문의 경기상황에 대하여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3월 이후 부정적 비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 지난 3월 -37.8%를 나타내었던 산업신뢰지수는 이후 계속 개선되어 11월 중에는 -18.9%까지 산업경기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의 격차가 작아짐.

- 최근 두바이발 국제 신용위기는 동유럽은행에 대한 대출 부실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유럽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악화시켜 유로지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됨.
 - 월스트리트저널(11월 10일자)에 따르면 두바이쇼크로 타격을 입은 은행은 주로 영국 및 유럽계이며 이들은 위험자산의 매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유로중앙은행은 2007~2010년 유로지역 은행의 예상손실액 8,140억 달러⁴⁾ 중 6,490억 달러는 동유럽 부실대출로 추정했으나, 동 수치에는 두바이쇼크로 인한 부실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대출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 한편, S&P는 재정적자, 정부부채 등을 고려하여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안정적 AA+'에서 '부정적⁵⁾ AA+'로 낮추었으며, Fitch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낮춤.
 - 그리스의 국채 금리(5년물 기준)는 신용위기 상승으로 당일 급등하면서 (0.18% 포인트 상승) 국채가격이 하락함.

-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정책은 과도한 재정적자를 낳아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켰으며, 이들 국가의 금리상승은 부채 규모가 더욱 확대함으로써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EC는 유로지역 평균 재정적자가 적정 수준인 GDP 대비 4%를 상회하여 6.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그리스는 2009년 GDP의 13%에 달하며 스페인은 11%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4) Global Stability Report, IMF, 2009.10.

5) 부정적 AA+란 신용등급이 향후 1년 내에 AA 등급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다. 일본경제

3/4분기 실질 GDP는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내수의 호조세와 대외부문의 개선에 힘입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최근에는 소비와 투자의 개선으로 실물부문의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률이 2개월 연속 하락하여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나, 물가 하락세가 가속화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임.

<최근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실질 GDP는 민간소비, 투자, 정부소비의 증가 등 내수부문의 호조와 수출 등 대외부문이 개선되면서 전분기대비 1.2% 증가함으로써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됨.
 - 민간소비는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설비투자는 민간 기계수주액이 1.6% 증가세로 반전함으로써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임.
 - 그러나 주택투자는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임.
 - 수출이 2분기 연속 6.4% 증가하는 가운데 순수출 역시 2분기 연속 증가하여 3/4분기 실질 GDP 성장을 견인함.
- 25개 민간연구소는 2010년 일본경제가 1.1%의 완만한 성장을 시현하겠으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기회복세의 체감은 미약할 것이라고 예상함.
 - 2010년 상반기에는 경기진작책의 영향력 약화, 공공사업비 삭감에 따른 공공투자의 감소, 설비·고용 과잉에 따른 민간 소비 및 투자의 소폭 증가, 미국·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지연에 연동한 수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경기 감속을 예상함.
 -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의한 수출확대, 아동수당 지급에 의한 민간소비 증가로 경기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 한편, OECD⁶⁾는 2010년 일본경제는 1.8% 성장하는 가운데 상반기에 0.8~1.4%, 하반기에 1.7~1.9%를 각각 성장하는 상저하고의 기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6) OECD, Economic Outlook No.86, 2009.11.

<표 5>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2007	2008	2008			2009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2.3	-0.7	-1.1	-1.7	-3.0	-3.2	0.7	1.2
민간소비	0.7	0.6	-1.0	0.0	-0.7	-1.1	1.0	0.7
설비투자	5.7	-3.9	-1.7	-5.8	-7.0	-8.2	-4.2	1.6
주택투자	-9.7	-7.6	0.0	4.3	3.3	-6.6	-10.2	-7.7
정부소비	1.9	0.8	-0.7	-0.1	1.3	0.1	-0.2	0.4
공공투자	-7.3	-6.9	-5.1	0.7	2.5	3.1	7.7	-1.2
수출	8.4	1.8	-4.1	-1.9	-13.5	-21.6	6.4	6.4
수입	1.5	0.9	-3.1	-1.0	1.5	-14.0	-4.2	3.4

자료 : 내각부, 2009.9.

<표 6>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2008	2009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¹⁾	1.4	0.0	-0.1	-0.3	-0.1	-1.1	-1.8	-2.2	-2.2	-2.2	-2.5
(근원소비자물가)	0.0	-0.2	-0.1	-0.3	-0.4	-0.5	-0.7	-0.9	-0.9	-1.0	-1.1
실업률 ²⁾	4.0	4.1	4.4	4.8	5.0	5.2	5.4	5.7	5.5	5.3	5.1
소매판매액 ¹⁾	0.3	-2.4	-5.7	-3.8	-2.8	-2.7	-3.0	-2.4	-1.7	-1.4	-0.9
소비자태도지수 ³⁾	32.7	28.4	28.7	31.9	35.0	36.3	38.1	39.7	40.4	40.7	40.8
주택착공호수 ⁴⁾	109	96	87	89	78	76	75	75	68	70	76
민간기계수주액 ¹⁾	-6.0	-39.5	-30.1	-22.2	-32.8	-38.3	-29.7	-34.8	-26.5	-22.0	-21.0
수출 ¹⁾	-3.5	-45.7	-49.4	-45.5	-39.1	-40.9	-35.7	-36.5	-36.0	-30.7	-23.2
수입 ¹⁾	8.0	-31.9	-43.0	-36.6	-35.8	-42.4	-41.9	-40.8	-41.3	-36.9	-35.6
광공업생산지수 ⁵⁾	103.8	76.7	69.5	70.6	74.8	79.1	80.9	82.6	83.9	85.7	86.1
광공업가동율 ⁶⁾	99.3	68.7	60.5	61.0	67.2	72.6	74.3	77.2	79.0	80.3	80.5
재고출하비율	108.6	150.3	158.5	150.1	143.0	143.1	128.8	123.6	123.0	116.9	117.2

주 : 1)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 3) 기준치=50, 4) 만호, 5) 2005=100, 6) 2005=100
 자료 :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고용과 물가〉

- 실업률은 7월에 전후 최고점을 기록한 후,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함으로써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나, 이를 고용여건의 회복조짐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란 의견이 다수임.
 - 실업률은 7월의 5.7%를 정점으로 8월에 5.5%, 9월에 5.3%, 10월에 5.1%로 하락함으로써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나, 고용자수의 증가에 비해 정규직 고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고용은 주로 비정규직 위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25개 민간연구소는 2010년 연간 실업률이 5.5%를 기록하여 과거 최악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여도 고용여건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함.
- 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 국내수급 여건의 악화로 인해 하락세가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2월부터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임.
 - 근원소비자물가의 하락세는 1월부터 시작되어 10월 현재 -1.1%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2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10월에는 -2.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정부는 물가하락이 기업 실적을 악화시키고, 임금수준을 하락시켜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할 경우 경기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디플레이션을 선언하면서 대책마련에 돌입함.
 - 일본은행은 수요부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근원소비자물가를 하락시켜 디플레이션을 확대하는 최대 요인이라고 지적함.
 - 일본의 25개 민간연구소는 향후 소비자물가는 수급불균형에 기인하여 2009년에 -1.5%, 2010년에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일본총합연구소는 2011년 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이루어져도 GDP갭은 마이너스 영역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해소는 201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함.

〈내수부문〉

- 내수부문에서는 소매판매액의 하락세가 크게 둔화되고, 소비자태도지수도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민간소비부문의 실물지표와 체감지수 모두 회복되고 있는 모습임.
 - 소매판매액은 7월까지 등락을 반복하였지만 최근 하락세가 크게 둔화되는 추세 속에 10월에는 -0.9%까지 둔화됨.
 - 소비자태도지수는 여전히 경기확대기준인 50이하의 수준에 있지만 꾸준히 개선되면서 지난 8월부터는 40을 상회하였고, 10월에는 40.8을 기록함.
- 설비투자과 주택투자는 연초부터 등락을 거듭하여 개선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최근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액은 7월 -38.8%까지 하락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침체를 거듭하였으나, 8월 이후 하락세가 진정되어 10월에는 -21.0%까지 둔화됨.
 -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던 주택착공은 8월 68만호를 저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어 10월에는 76만호가 착공됨에 따라 주택투자가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임.

〈생산부문〉

- 생산부문의 실물지표인 광공업의 생산 및 가동률은 등락 없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회복되고 있는 추세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2월 69.5까지 하락한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88.3로 상승하여 2008년 12월 85.3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가동률 역시 2월 59.2를 저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 현재 80.5로 2008년 12월의 78.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됨.
 - 생산부문의 선행지표인 재고/출하 비율은 조정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인 하향세를 나타냄에 따라 내년 상반기 생산부문에 대한 기대를 높여줌.

라. 중국경제

3/4분기 실질 GDP는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함으로써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08년의 실질 GDP 성장률인 9.0%에 근접함으로써 실물경기가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됨. 경기부양에 힘입은 소비 및 생산부문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수입과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자산시장의 거품 현상과 물가오름세 조짐은 주목되는 상황임.

<최근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실질 GDP는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소비와 투자의 금융위기 이전 수준회복과 선진국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8.9% 증가함으로써 경기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임.
 - 민간소비는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소폭 상승하는 한편, 투자 역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내수부문이 실질 GDP의 상승을 견인함.
 - 하락세를 보여 온 수출은 선진국 실물경기의 회복세에 영향을 받아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개선의 기미를 보였으나 수입의 대폭적인 증가세 시현으로 순수출은 감소함.
- World Bank⁷⁾는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내수 확대, 해외수요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 등의 요인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침체에 빠졌던 수출이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2010년 중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순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함.
 - World Bank와 IMF⁸⁾가 중국경제의 2010년 성장률을 각각 8.7%, 9.0%로 전망하는 한편, OECD⁹⁾는 확장적인 거시정책의 지속과 내수확대로 인해 중국경제는 2010년에 두 자릿수의 성장세인 10.2%를 전망함.

7)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2009.11.16.

8)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10.26.

9) OECD, Economic Outlook No.86, 2009.11.19.

<표 7>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8	2008	2009			2009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실질 GDP	9.0	6.8	6.1	7.9	8.9	-	-	-	-	-	-
고정자산투자 ¹⁾	26.1	26.1	28.6	33.6	33.3	33.6	32.9	33.0	33.3	33.1	32.1
소매판매	21.6	20.6	14.9	15.0	15.4	15.0	15.2	15.4	15.5	16.2	15.8
수출	17.2	4.3	-19.7	-23.5	-20.3	-21.4	-23.0	-23.4	-15.2	-13.8	-1.2
수입	18.5	-8.8	-30.8	-20.2	-12.0	-13.2	-14.9	-17.0	-3.5	-6.4	26.7
산업생산	12.9	6.4	5.1	9.0	12.3	10.7	10.8	12.3	13.9	16.1	19.2
구매자관리지수	50.2	42.5	48.9	53.3	53.9	53.2	53.3	54.0	54.3	55.2	55.2
소비자물가	5.9	2.5	-0.6	-1.5	-1.3	-1.4	-1.7	-1.2	-0.8	-0.5	0.6
생산자물가	6.9	2.5	-4.6	-7.2	-7.7	-7.8	-8.2	-7.9	-7.0	-5.8	-2.1

주 : 1) 전년동기 누계 대비, 도시지역 기준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물가>

- 연초부터 하락세를 보여 온 소비자물가는 내수부문의 회복세에 힘입어 하락폭이 둔화되다가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1년 만에 물가상승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함.
- 11월의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가격(3.2%), 담배·술(1.3%), 건강용품(1.6%) 등 비내구재의 가격이 상승세를 주도함.
 - 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각각 2008년 10월, 2009년 3월 이후 호조세로 전환됨에 따라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함.
 - 주요도시의 전년동기대비 주택가격은 8월의 2.0%에서 11월의 5.7%로 급격히 상승함.
 - 최근 해외자본 유입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부분적으로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토지구입 시 선불금을 토지매입금액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분할 납부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는 부동산시장 규제조치를 발표함.
- World Bank 등은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과 식품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10년에는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함.

- World Bank는 2010년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것에 반해, OECD는 2010년에 소폭 상승하여 0.1%를 기록하고 2011년에는 1.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내수부문〉

- 소비진작정책에 힘입은 소매판매의 성장세는 최근 다소 주춤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임.
 - 시차를 둔 소비진작정책에 따라 소매판매의 지역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여 도시지역의 소매판매는 11월 현재 16.5%, 자치성 지역은 15.9%, 농촌지역은 13.6%가 증가함.
- 정부가 주도하는 SOC관련 투자에 힘입은 고정자산투자는 소폭의 변동이 있으나, 4월부터 유지된 30%대의 높은 성장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음.
 - 11월 현재 누적 전년동기대비 고정자산투자는 32.1% 증가하였는데 농림어업(51.5%), 도로·철도(54.6%), R&D(53.0%), 보안·공공시설(69.5%)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주도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크게 증가함.
 - 반면, 제조업은 26.8%, 광업은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주도의 투자는 미진한 모습임.
- 중국의 주요도시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일부 지역은 이미 과열의 조짐을 보이는 등 주택투자가 가속화되는 조짐임.
 - 2008년 4/4분기 70개의 주요도시 평균 주택가격은 0.5% 상승한 반면 2009년 11월 현재에는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투자는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모습임.
 - 특히 선전지구는 2008년 4/4분기에 14.2% 하락한 것에 반해 2009년 11월 현재 16.6% 증가함으로써 과열 조짐이 나타남.
 - 중국정부는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조치로서 1가구 2주택 대출심사 강화, 은행의 대출 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외화입출금 규제, 토지구입 선불금 확대 등을 취함.

<생산부문>

- 2009년 중반에 이미 금융위기 수준을 회복한 산업생산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실물지표로서 최근에는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임.
 - 산업생산지수는 2009년 8월에 12.3%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11월에는 19.2%까지 증가하면서 과열되는 양상임.
 - 부문별로는 11월 현재 교통장비 생산(31.3%), 철광(30.8%), 화학제품(30.7%)이 평균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산업생산을 견인함.
 - 특히 자동차(100.8%), 기차원동기(129.0%), 엔진(166.8%) 등 교통장비 생산은 전월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인 PMI¹⁰⁾는 9개월 연속 상승하는 호조세를 보여줘 2010년도 상반기 제조업부문 생산 전망을 밝게 해줌.
 - PMI는 3월에 52.4를 기록하여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확대기준인 50을 넘어선 이후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11월에는 55.2에 도달함.
 - 다만 11월의 PMI는 10월과 동일한 수준에 그침에 따라 과열된 생산이 잠시 조정 과정을 거치는 모습임.
 - 11월의 PMI 구성부문 중 재고를 제외한 전부분은 50이상의 생산확대 국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월과 비교할 때 신규주문, 수출주문, 수입, 배송, 원재료구입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부문의 과열이 조정을 받는 모습임.

10)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25%), 신규주문(30%), 취업(20%), 납품업체 배송(15%), 재고(10%)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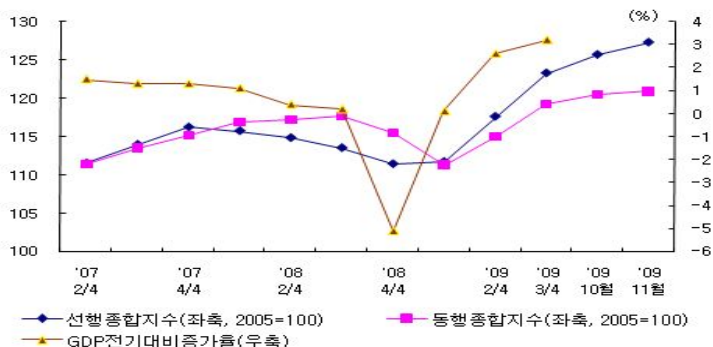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09년 3/4분기 들어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설비투자의 감소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실질 GDP도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시현함. 또한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경기회복 가능성을 높임.

- 2009년 3/4분기 들어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인해 민간소비와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설비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가 전년동기대비 0.9% 성장하였고, 계절조정 전기비로는 3.2% 성장함.
- 경기회복과 더불어 정부 세제지원으로 승용차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의류·신발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였고, 전기비로는 1.5% 증가함.
-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7.4%로 여전히 감소세를 시현하였으나, 운수장비와 기계류 등에 대한 지출에서 회복세를 나타내 계절조정 전기비로는 10.4% 증가함.

<그림 5> GDP와 경기지수 추이



주 : 경기지수 분기증가율은 전월대비 증가율 평균임(2005년 연쇄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건설투자는 3/4분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2.7% 증가를 기록하여 올 3분기 내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절조정 전기비로는 토목건설부문의 둔화세로 인해 0.5% 감소함.

<표 8> 실질 GDP와 수요 부문별 증가율¹⁾

(전년동기대비, %)

	CY2008			CY2009			
	3/4	4/4	연간	1/4	2/4	3/4	1/4~3/4
실질 GDP	3.1 (0.2)	-3.4 (-5.1)	2.2	-4.2 (0.1)	-2.2 (2.6)	0.9 (3.2)	-1.8
- 민간소비	1.4	-3.7	0.9	-4.4	-0.8	0.8	-1.5
- 설비투자	4.3	-14.0	-2.0	-23.5	-15.9	-7.4	-15.5
- 건설투자	0.2	-5.6	-2.1	1.6	3.7	2.7	2.8
- 재화수출 ²⁾	8.5	-11.6	4.1	-14.1	-4.2	1.8	-5.3
- 재화수입 ²⁾	10.6	-11.6	4.6	-17.4	-14.3	-7.9	-13.2
국내수요 ³⁾	3.0 (0.8)	-5.0 (-7.3)	1.4	-8.5 (-2.6)	-7.5 (1.3)	-4.4 (4.1)	-6.8

주 : 1)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3) 국내수요=민간소비+정부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무형고정투자+재고투자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 3/4분기 들어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재화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8%로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재화수입은 여전히 -7.9%로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감소폭은 둔화되고 있음.
- 계절조정 전기비 재화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에서 수출이 양호한 실적을 시현함에 따라 5.2% 증가하였고, 전기비 재화수입은 원유, 금속제품, 전자부품 등의 수입 증가로 인해 8.6% 증가함.
-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2009년 1/4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본격적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아짐.
- 3/4분기까지 경기선행지수의 꾸준한 상승에 더하여 10~11월 들어서도 125.7, 127.3로 지속적인 상승을 기록함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1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표 9> 소비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p	11월 ^p
소비재판매	2.9	1.4	-4.2	1.0	-4.9	1.6	3.4	9.8	10.0
- 내구재	8.7	0.0	-9.9	1.9	-13.6	4.0	9.9	15.6	39.5
승용차	7.1	-4.9	-19.5	-2.0	-21.3	18.4	29.7	36.1	108.4
- 준내구재	-2.1	0.6	-9.9	-2.4	-0.9	0.3	0.2	3.6	1.3
- 비내구재	0.3	1.2	-0.4	0.7	-1.4	1.0	2.0	10.0	2.1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09년 3/4분기 동안 소비재 판매액지수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소비심리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하여 2/4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고, 그 증가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정부의 자동차 세제지원으로 인해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승용차 판매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승용차 판매액지수가 전년동기대비 29.7% 증가를 기록하였고, 그 결과 3/4분기 내구재 판매액지수도 9.9% 증가함.

○ 의복 및 신발 등이 포함된 준내구재 판매는 8~9월 동안 호조세를 나타내어 3/4분기 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함.

○ 차량연료 등의 비내구재 판매가 지난 5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3/4분기 비내구재 판매액지수도 2.0% 증가함.

□ 설비투자는 3/4분기 들어서도 경기회복세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감소폭은 점차 완화되고 있음.

○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에 대한 투자는 2008년 4/4분기 이후 줄곧 감소세를 시현한 가운데 감소폭은 점차 완화되고 있고, 10~11월 들어서는 증가세로 전환되어 각각 전년동월대비 0.6%, 7.4% 증가를 기록함.

<표 10> 투자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P	11월 ^P
설비투자	1.1	4.3	-14.0	-2.0	-23.5	-15.9	-7.4	--	--
- 기계류	-4.8	2.2	-14.5	-5.7	-21.9	-19.5	-17.2	0.6	7.4
- 운수장비	7.3	6.4	-9.0	1.5	0.4	11.3	19.6	0.0	21.1
- 기계수주	-0.5	-15.2	-47.3	-12.8	-33.8	-14.1	6.5	3.0	56.6
건설투자	-0.3	0.2	-5.6	-2.1	1.6	3.7	2.7	--	--
- 건설기성	6.1	10.6	-2.2	4.7	4.5	7.0	-0.6	-5.2	4.2
건축	6.3	9.0	-10.6	1.7	-6.0	-3.1	-6.2	-7.2	0.5
토목	5.9	14.3	13.6	10.6	24.8	26.5	9.7	-2.5	9.8
- 국내건설수주	-6.1	-22.7	-6.5	-9.0	-16.5	-2.0	9.1	27.2	77.0
건축	-6.3	-37.2	-25.5	-17.4	-41.6	-48.6	7.4	15.5	96.8
토목	-5.2	16.2	50.7	13.9	58.3	133.6	12.0	41.8	47.4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승용차 및 트럭 등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에 있어 지난 9월 전년동월대비 54.4% 증가에 힘입어 3/4분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9.6%를 기록함.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지난 9월 중 공공부문의 원자로 및 민간부문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수주 호조세로 3/4분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6.5%로 증가세로 전환됨.
- 아울러 11월 들어서는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56.6%에 이르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향후 설비투자에 있어서도 증가세 전환이 예상됨.
- 3/4분기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토목건설 투자확대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민간부문 건물건설의 투자부진으로 그 증가폭은 둔화됨.
- 3/4분기 중 토목건설은 정부의 SOC 투자확대 지속으로 9.7%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의 건물건설이 6.2% 감소함에 따라 3/4분기 건설기성은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3/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하였고, 10~11월에도 각각 27.2%, 7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내건

설경기에 있어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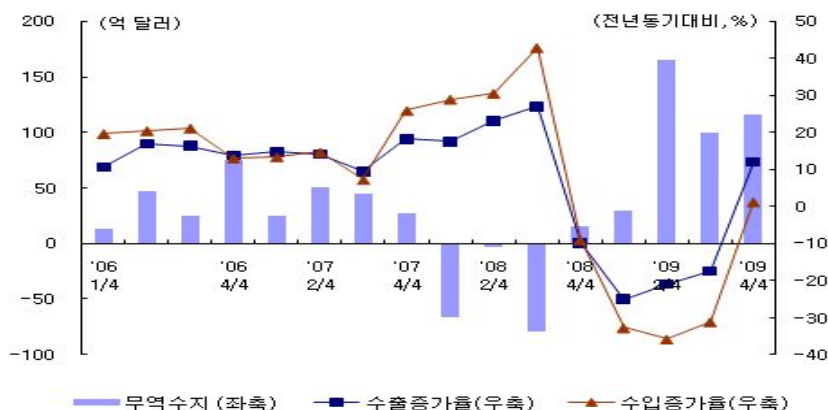
- 3/4분기 토목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로 전분기에 비해 그 증가폭이 감소하였으나, 건물건설수주는 3/4분기 들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어 7.4% 증가를 기록함.

<대외거래>

- 2009년 수출입은 전년대비 모두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수입 감소율이 수출 감소율을 상회함에 따라 무역수지(통관기준)가 409.8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4/4분기 중에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하고, 수입도 1.3% 증가하여 4/4분기 중 무역수지(통관기준) 흑자는 115.4억 달러에 이름.
- 2009년 수출은 세계 교역량의 급감으로 전년대비 13.8% 감소한 3,637.7억 달러를 기록함.
 - 선박(4.4%)과 액정디바이스(28.5%) 등에서는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반면, 반도체(-5.3%), 석유화학(-14.9%), 자동차부품(-16.0%), 철강(-22.9%), 자동차(-27.4%), 석유제품(-39.2%) 등에서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
- 2009년 수입(1.1~12.20)은 유가하락 및 내수부진으로 전년대비 25.8% 감소한 3,227.9억 달러를 기록함.
 -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원유(-41.0%), 석유제품(-27.2%), 가스(-30.9%), 석탄(-20.0%), 철강(-42.0%) 등에서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원자재 수입은 전년대비 32.9% 감소함.
 - 경기침체에 따른 설비투자의 감소로 자본재 수입도 16.7% 감소하였는데, 여기에는 반도체제조장비(-41.7%), 디스플레이제조장비(-62.0%)의 감소가 크게 작용함.
 -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승용차(-26.8%), 가구(-26.4%), 골프채(-17.3%) 등에서 수입이 감소하여 전체 소비재 수입은 16.4% 감소함.
- 2009년 지역별 수출(1.1~12.20)에 있어 대선진국 수출은 부진한 실적을 보였으나, 대개도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한 한편, 지역별 수입(1.1~12.20)은 중동 및 중국에서 수입의 급감세가 나타남.

- 지역별 수출로는 대양주(47.3%)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감소세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대선진국 수출 감소폭이 큼.
 - 미국(-18.9%), 일본(-23.7%), EU(-21.6%) 등 대선진국 수출은 21.2% 감소한 반면, ASEAN(-17.5%), 중동(-11.7%), 중국(-7.5%) 등 대개도국 수출은 12.5% 감소함.
- 지역별 수입으로는 원유 및 철강수입의 감소로 중동(-40.5%)과 중국(-30.9%)에서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그 외 중남미(-16.4%), ASEAN(-18.6%), EU(-20.1%), 일본(-20.4%)지역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남.

<그림 6> 대외거래 지표 추이



자료 : 관세청(통관기준)

<산업생산>

-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시현된 가운데 3/4분기 들어 경기회복세로 인해 광공업 생산지수도 증가세로 전환됨.
 - 3/4분기 중 제조업·중화학·ICT 생산에서의 증가세에 힘입은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고, 11월 들어서는 전년동월대비 17.8% 증가로 급증세를 시현함.
 - 한편,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 들어 도매업 및 소매업·부동산 및 임대업 생산에서의 증가세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함.

- 반면, 고용유발 효과가 큰 운수업·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에 있어 여전히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고용시장에서의 본격적인 개선은 불투명함.

<표 11>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p	11월 ^p
광공업	8.9	5.6	-11.3	3.0	-15.5	-6.2	4.2	0.2	17.8
- 제조업	9.3	5.6	-12.1	3.0	-16.4	-6.6	4.4	0.4	18.6
- 중화학	11.6	6.8	-12.8	4.1	-17.0	-6.2	5.6	1.9	21.5
- 경공업	-1.2	0.0	-8.8	-2.2	-13.5	-8.8	-1.8	-7.1	4.4
- ICT	30.4	10.2	-24.2	9.4	-19.6	-1.1	12.6	18.5	45.8
서비스업	4.8	3.2	-0.4	3.4	-0.4	1.6	2.2	1.3	3.3
- 도매 및 소매업	3.1	3.6	-4.6	1.4	-4.0	-2.2	0.3	1.9	5.4
- 운수업	8.2	4.3	-3.2	4.3	-10.8	-9.5	-4.1	-2.5	2.6
- 숙박 및 음식점업	0.6	1.7	-3.0	0.7	-2.4	-0.3	-2.2	-2.7	-2.0
- 부동산 및 임대업	2.7	-8.4	-7.5	-2.1	-3.1	1.5	9.3	14.3	15.9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물가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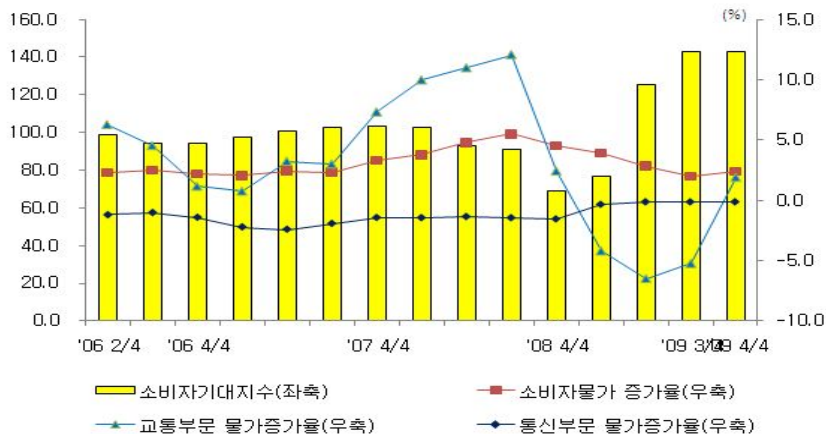
통신물가의 하락세와 더불어 경기회복세의 영향이 미미하여 4/4분기 중 소비자물가지수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편 3/4분기 중 고용시장은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일자리 감소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나, 실질적인 고용과 고용의 질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임. 또한 3/4분기 중 가계소득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소비지출은 오히려 증가함.

□ 통신물가가 하락하고 경기회복세에 의한 수요압력이 미미하여 4/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지난 2/4분기 이후 안정적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4/4분기 중 소비자물가가 통신(-0.1%)부문에서는 하락한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3.5%), 의복 및 신발(5.8%), 주거 및 수도광열(1.1%),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2.5%), 교통(1.9%) 등에서는 상승하여 4/4분기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함.

- 2008년 1/4분기 이후 하락하던 소비자기대지수는 2009년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최근의 경기회복세로 인해 4/4분기 들어서도 전분기에 이어 높은 수준을 나타냄.
- 2009년 들어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소비자기대지수가 상승하여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142.9를 기록함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이 반영됨.

<그림 7> 소비자물가와 소비심리 추이¹²⁾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2009년 3/4분기 고용시장은 경기회복세에 따른 소폭 개선되어 2009년 들어 지속되어 오던 일자리 감소세가 진정되는 모습임.
- 3/4분기 중 총취업자수는 지난 1/4~2/4분기와는 달리 그 감소세가 진정되어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임.

12) 통계청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의 2008년 8월 소비자기대지수 91.2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의 향후경기전망CSI의 8월치 77.0을 91.2가 되도록 환산한 다음 2008년 9월부터는 향후경기전망CSI를 소비자기대지수의 대응치로 사용하여 분기별로 단순 평균함.

<표 12> 고용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총취업자	0.7	0.6	0.2	0.6	-0.6	-0.6	0.0	0.0	0.0
- 청년취업자	-2.1	-2.7	-4.0	-2.8	-5.1	-2.4	-3.0	-3.5	-2.0
고용률	60.4	59.9	59.4	59.5	57.4	59.3	59.1	59.3	59.1
실업률	3.1	3.1	3.1	3.2	3.8	3.8	3.6	3.2	3.3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2.9	-2.0	0.5	-2.1	1.0	-1.3	-1.4	-1.5	-8.3
광공업	-0.7	-1.1	-2.5	-1.1	-4.1	-3.8	-3.6	-2.2	-1.0
- 제조업	-0.8	-1.3	-2.6	-1.3	-4.1	-3.8	-3.6	-2.2	-1.1
SOC 및 기타서비스업	1.4	1.3	0.8	1.3	0.0	0.2	0.9	0.7	1.0
- 건설업	-2.4	-2.2	-2.2	-2.0	-2.5	-6.0	-5.7	-8.0	-6.2
- 도소매음식숙박	-0.7	-0.8	-1.1	-0.8	-2.0	-2.4	-2.8	-3.1	-2.3
- 전기,운수,통신,금융	1.8	-0.7	-1.9	0.5	-2.6	-1.8	-0.9	0.4	1.5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0	4.5	4.0	4.1	3.2	4.5	5.9	5.6	4.9

주 : 1)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은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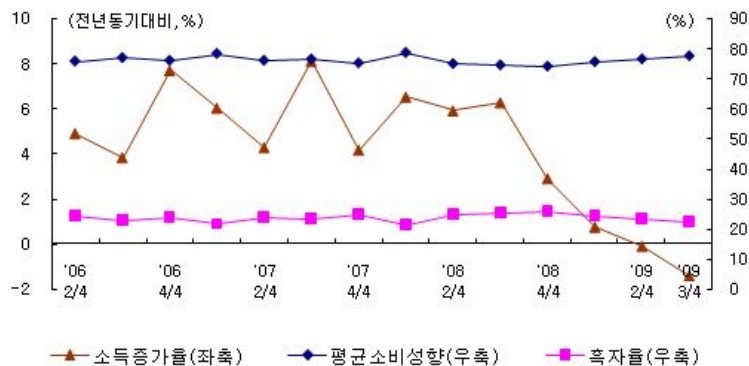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 1/4분기 중 57.4%까지 하락했던 고용률은 2/4분기 이후 59%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8년 61%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상태임.
- 3/4분기 실업률은 3.6%로 지난 1/4~2/4분기의 3.8%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고, 10~11월 들어서는 3%대 초반으로 하락함.
 - 청년실업률은 3/4분기 들어 8.1%를 기록함에 따라 지난 3분기 내내 8%대의 높은 실업률을 시현하였으나, 지난 9월 이후로는 7% 중후반대의 실업률을 나타냄.
- 3/4분기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 및 광공업 부문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SOC 및 기타서비스업에서는 증가함.
 - 농림어업부문 취업자는 1/4분기 증가 이후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하였고, 11월 들어서는 그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

-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부문 취업자는 3/4분기 동안 3.6% 감소하였는데, 10~11월 들어서는 그 감소세가 크게 개선되어 각각 2.2%, 1.0% 감소에 그침.
 -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의 증가로 3/4분기 SOC 및 기타서비스업부문 취업자는 0.9% 증가함.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는 주로 자영업이나 공공근로 취업자 수의 증가를 의미함.
 - 반면에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고용사정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임.
- 2009년 3/4분기 동안 가계동향은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은 계속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소비지출은 오히려 증가함.

<그림 8> 도시가계 소득 및 흑자율 추이



주 : 흑자율 = 1 - 평균소비성향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

- 3/4분기 중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5만 6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하였고,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3.3% 감소함.
- 2008년과는 달리 지난 추석명절이 10월에 있음으로 인해 가구주상여금 및 비경상소득(추석용돈)의 감소가 3/4분기 중 월평균 소득 감소를 야기함.

- 그러나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4분기 들어 219만 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고, 실질소비지출도 1.5% 증가함.
- 소비지출은 주거 및 수도광열(2.6%), 교통(11.1%), 보건(12.4%), 오락·문화(16.3%), 교육(1.6%), 의류·신발(1.9%), 가정용품·가사서비스(0.5%) 등에서 증가한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4.9%), 주류·담배(-10.9%) 등에서는 감소함.
- 보건지출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의약품 및 외래의료서비스에 있어 지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교통지출은 자동차 구입으로 인한 지출 증가가 주요인임.
- 3/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83만 5천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9% 감소한 반면, 소비지출은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인 흑자액이 전년동기대비 12.4% 감소하여 흑자율은 22.5%를 기록함.
- 이는 반대로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의 증가를 야기하는데 평균소비성향은 전년동기대비 2.9%p(74.6%→77.5%) 증가함.

3. 금융경제

<금리>

2009년 2월 이후 2.0%를 유지하고 있는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기대 등으로 인해 급등하던 CD(91일)금리는 소폭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이다 12월 중순 다시 상승하였으며, 국고채(3년)금리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국내 금리가 소폭적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임.

- 기준금리는 2.0%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연동되어 있는 콜금리도 대체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CD(91일)금리는 안정세를 보이다 12월 중순부터 상승함.
 - 이스라엘에 이어 호주와 노르웨이가 각각 10월 초와 말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들도 인하한 기준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국내 기준금리도 2009년 2월 이후 계속 2.0%로 유지되고 있음.
 - 3/4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은행들의 CD발행 증가로 상승하였던 CD금리는 10월 중순 소폭 하락하여 2.79%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12월 중순 다시 상승하여 12월 28일 기준 2.85%임.
- 국고채(3년)금리는 10월 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러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12월 초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4/4분기 초 국고채금리는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 등 국내 경기지표들의 호전으로 상승하여 연중 최고치인 4.62%(10월 16일 기준) 기록함.
 - 그러나 11월 소비자심리지수의 하락세 반전, 두바이 채무상환유예 선언 등으로 인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고채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불안감이 점차 완화되면서 12월 초 이후 상승세로 전환됨.
 - 국고채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9월 말 2.39%p였던 국고채금리와 콜금리 간 금리 차이도 소폭 하락하여 12월 28일 현재 2.36%p임.
- 우량 등급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도 국고채금리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 4/4분

기 초 상승하다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비우량 등급 회사채(3년 만기, BBB-)금리 도 대체로 하락함.

○ AA-등급 회사채금리는 상승하다가 10월말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나, 4/4분기 말 상승하여 12월 28일 현재 5.48%이며, BBB-등급 회사채금리의 경우에도 우량 등급 회사채금리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 9월 말 11.74%에서 12월 28일 현재 11.54%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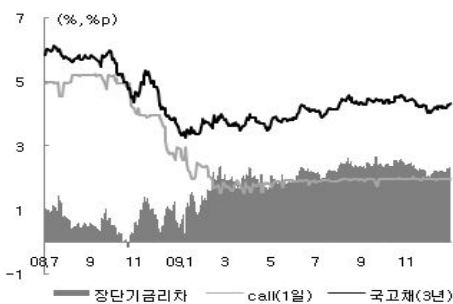
○ AA-등급과 BBB-등급 간 회사채금리 차이도 4/4분기 동안 대체로 하락하여 12월 28일 현재 9월 말 수준에서 소폭 하락한 6.06%p이나, 금융 위기 전 수준에 비하여 높은 상태이며, 지난해와 비교하여서도 매우 높은 상태임.

□ 4/4분기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와 국고채(3년)금리 간 신용스프레드는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 9월 말 1.14%p였던 국고채금리와 AA-등급 회사채금리 간의 차이는 12월 28일 기준 1.12%p까지 소폭 하락하였으며, 이는 2008년 12월 초 신용스프레드가 4.65%p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되었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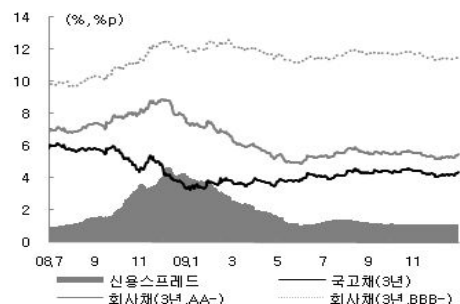
○ TED 스프레드¹³⁾도 9월 말에 비하여서는 소폭 상승했으나 대체로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9>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0> 신용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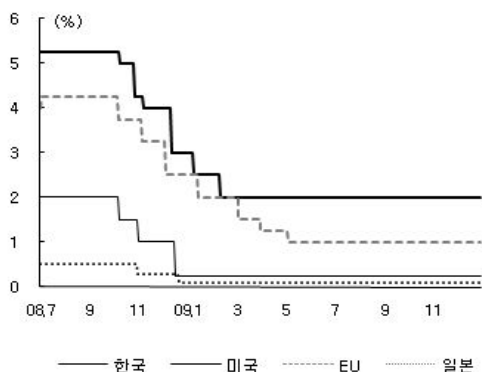


주 : 신용 스프레드는 회사채(3년, AA-)금리와 국고채(3년)금리간의 차이를 말함.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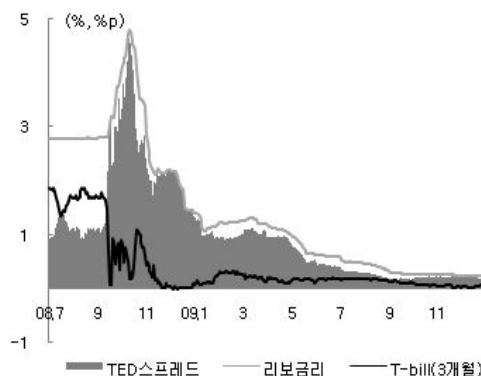
13) TED 스프레드는 런던 은행간 금리인 리보금리와 미국 재무부 채권(T-bill) 금리를 뺀 값으로 국제자금시장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그림 11>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12> TED 스프레드 추이



주 : TED 스프레드는 리보금리(3개월)와 미국국 채금리(T-bill, 3개월)금리간의 차이를 말함.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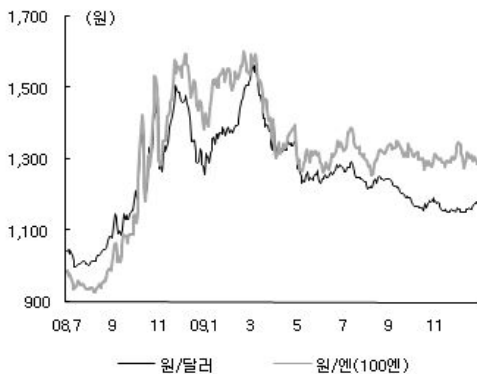
<환율>

원/달러 환율은 4/4분기 초 잠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출구전략에 대한 기대와 잔존하는 위험요인들에 의한 글로벌 달러화의 가치 변화에 따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였고, 이에 따라 원/엔 환율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함.

- 전분기 하락세를 지속하였던 원/달러 환율은 10월 중순 이후 출구전략 기대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인하여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였으나, 두바이월드 사태 이후 다시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던 원/달러 환율은 10월 말부터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인하여 달러당 1,193.6원까지 상승함(10월 29일 기준).
- 이후 미국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하면서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되었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로 전환됨.
-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말 두바이 채무상환유예 선언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하였으나 상황이 진정되고 국내 외환보유고 상승(9개월 연속) 소식이 발표되자 다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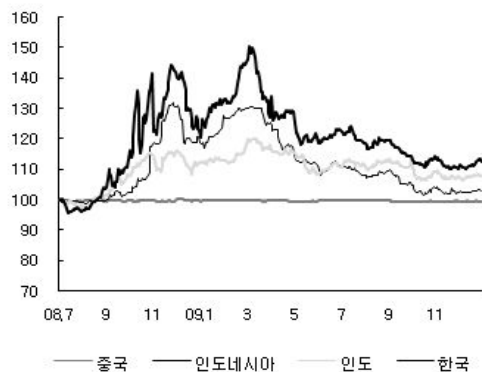
- 그러나 유로지역의 신용불안 등으로 인해 글로벌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12월 초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12월 28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76.7원임.
- 원/엔 환율은 엔화 가치의 등락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두바이 사태 등의 불안요인들로 인하여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급등하였으나 달러화의 강세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해외 고수익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의한 엔화 약세로 인하여 하락세를 보이던 원/엔 환율은 10월 말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함.
- 11월 말 두바이월드 사태와 관련된 불안요소들과 그리스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 하향 등으로 인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엔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함.
- 그러나 미국 경제지표의 호전에 따라 강세 폭이 축소되면서 원/엔 환율도 하락세를 보여 12월 28일 현재 원/엔 환율은 100엔당 1,284.8원임.
- 중국 위안/달러 환율은 등락을 보이기는 했으나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인도 루피/달러, 인도네시아 루피아/달러 등의 신흥국 환율은 달러화에 대한 선호의 변화에 따라 4/4분기동안 등락을 반복함.

<그림 13> 원화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14> 아시아 개도국 환율 지수 추이



주 : 2008년 7월 1일의 달러당 환율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함.

자료 : Bloomberg

〈주가지수〉

4/4분기 미국 다우존스지수와 상하이 종합지수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일본 니케이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다 11월 말 이후 상승세로 전환됨. 국내 주가지수는 국내외 불안요소들에 의해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4/4분기 말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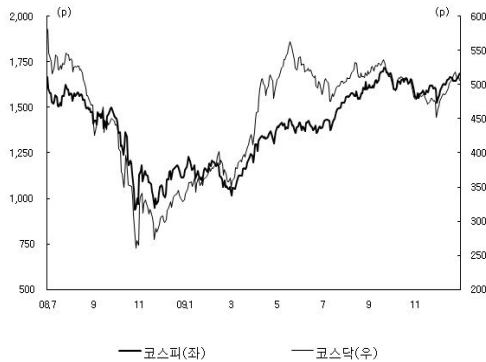
- 미국과 중국의 주가지수는 대체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일본 주가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상승세로 전환됨.
 -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10월 말 미국 CIT 그룹 파산보호 신청,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 등 시장불안 요소들로 인하여 잠시 하락하였으나 11월 초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12월 28일 기준 10,547.1p까지 상승함.
 - 4/4분기 초 상승세를 보이던 니케이지수는 10월 말 하락세로 전환되어 11월 말 9,800.0p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여 12월 28일 현재 10,634.2p 수준임.
 - 중국 상하이지수는 4/4분기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9월 말 2,779.4p보다 409.4p 오른 3,188.8p임(12월 28일 현재).
- 국내 종합주가지수(KOSPI)는 10월 초 상승세를 보였으나 CIT 그룹 파산보호 신청 등에 따른 경기회복지연에 대한 우려와 두바이월드 사태에 의한 투자심리 악화 등의 하락 요인들에 의해 등락을 거듭함.
 - 4/4분기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불안요인에 의해 하락했던 국내 종합주가지수는 이후 국내 기업실적 개선과 글로벌 증권시장의 호조로 상승함.
 - 10월 말 CIT 그룹 파산보호 신청,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하여 하락하였다가 다시 반등하던 종합주가지수는 11월 말 두바이 채무상환유예 선언으로 인한 불안심리 확대에 급락함.
 - 그러나 두바이 사태가 진정되고 국내GDP성장률 호조 미국의 산업생산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 다시 상승세를 보여 12월 28일 현재 국내 종합주가지수는 1,685.6p임.

<그림 15> 해외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16> 국내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자금흐름>

3/4분기 보험사, 증권사, 투신사, 종금사 모두 전분기에 대비하여 순수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행권의 순수신은 예금금리 상향조정으로 인한 저축성 예금 증가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 3/4분기 보험권 순수신 규모는 전분기와 비교하여 1,41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손해보험의 순수신은 전분기 대비 약 23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 및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생사혼합보험이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생존보험도 성장하면서 전체 순수신의 감소 폭은 1,650억원에 그침.
 - 손해보험의 순수신은 장기손해보험부문,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장기성 보험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자동차보험의 성장으로 전분기 대비 234억원 증가함.
- 은행권의 수신은 저축성 예금을 중심으로 전분기에 이어 순수신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증권사, 투신사, 종금사의 순수신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초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이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향조정으로 인해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및

시장형 상품이 3/4분기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은행권의 순수신은 전분기와 비교하여 약 6.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증권부문의 순수신은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투자자들의 환매 증가에 따른 자금 유출로 인하여 전분기와 비교하여 3,121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투신권의 경우 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자금이 유출되었으며, 특히 MMF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자산으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투신권 순수신은 전분기와 비교하여 16조 7,127억원 감소함.
- 종금사의 순수신은 3/4분기 동안 발행어음, 어음매출, CMA 예탁금 모두 순유출을 기록하여 순유출을 보였던 전분기의 순유출 규모보다도 1조 1,709억원 감소함 것으로 나타남.

<표 13>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CY2007	CY2008				CY2009		
	4/4	1/4	2/4	3/4	4/4	1/4	2/4	3/4
보 험	15,577	-23,583	20,865	-14,426	-4,352	-14,909	29,281	-1,416
- 생 보	14,054	-19,752	14,533	-12,340	-4,342	-10,321	21,486	-1,650
- 손 보	1,523	-3,831	6,332	-2,086	-10	-4,588	7,795	234
은 행	196,336	9,228	21,326	-87,115	48,920	-55,887	77,277	64,167
- 일 반	229,843	-44,093	148,250	-145,756	73,106	-30,842	58,172	36,531
- 신 탁	-33,507	53,321	-126,924	58,641	-24,186	-25,045	19,105	27,636
증 권	-51,161	19,789	41,239	-45,641	1,156	78,230	-44,155	-3,121
투 신	156,749	108,941	-138,816	-406,191	352,172	76,686	-377,027	-167,127
종 금	-23,234	20,424	8,467	-98,880	60,172	30,186	-99,222	-11,709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분기 순수신에서 전분기 순수신을 차감한 수치임.

2)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9 2/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부진했던 생명보험 부문이 성장세를 소폭 회복하고,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부문의 견조한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28조 4,484억원을 시현함.

□ FY2009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 부문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생명보험 부문의 감소 폭이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28조 4,484억원을 시현함.

-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제6회 경험생명표 적용에 따른 연금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연금보험 수요가 몰리면서 감소 폭이 0.3%로 낮아져 17조 9,372억원을 보임.
-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장기성보험과 일반보험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금융위기 여파로 침체에 빠졌던 자동차보험의 수요가 조금씩 회복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10조 5,112억원을 시현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억원, %)

연도 종목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750,956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175,168	179,372
	13.0	5.0	2.0	-8.9	-4.5	-2.0	-4.2	-0.3
손해보험	339,819	89,550	91,512	99,218	94,674	374,954	100,038	105,112
	14.9	12.9	12.1	7.6	9.3	10.3	11.7	14.9
합 계	1,090,775	272,390	271,497	295,683	270,997	1,110,568	275,206	284,484
	13.6	7.5	5.2	-4.0	-0.1	1.8	1.0	4.8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9 2/4분기말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투자영업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특별계정 자산가치 및 자산운용 수익이 증대되어 전분기대비 4.0% 증가한 432조원을 기록함.

- FY2009 2/4분기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으로 전분기대비 4.0% 증가한 432조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부문의 총자산은 주가상승 영향으로 인해 특별계정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으로 자산운용 이익도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4.1% 증가한 353조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부문의 총자산 또한 시중금리 및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여건이 개선되어 전분기대비 3.7% 증가한 79조원을 실현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원, %)

연도 종목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305	309	314	320	328	328	339	353
	11.8	1.3	1.5	2.1	2.4	7.5	3.2	4.1
손해보험	66	68	69	71	74	74	77	79
	15.9	3.1	1.5	3.5	3.5	12.1	3.5	3.7
합계	371	377	383	392	402	402	415	432
	12.5	1.6	1.5	2.4	2.6	8.3	3.3	4.0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9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7조 9,37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하면서 4분기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크게 둔화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 변액보험에서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사혼합보험이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생존보험 또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1%의 미미한 감소를 나타냄.
 -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사망보험과 변액보험 모두 그 폭은 전분기에 비해 둔화되고 있는 양상임.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에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퇴직연금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함.
- FY2009 2/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금리 및 주가와 같은 자산운용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전분기대비 4.1% 증가한 352조 7,890억원을 기록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750,956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176,324	179,372
	13.0	5.0	2.0	-8.9	-4.5	-2.0	-4.2	-0.3
총 자 산	3,053,998	3,093,354	3,138,783	3,205,462	3,283,321	3,283,321	3,388,638	3,527,890
	11.8	1.3	1.5	2.1	2.4	7.5	3.2	4.1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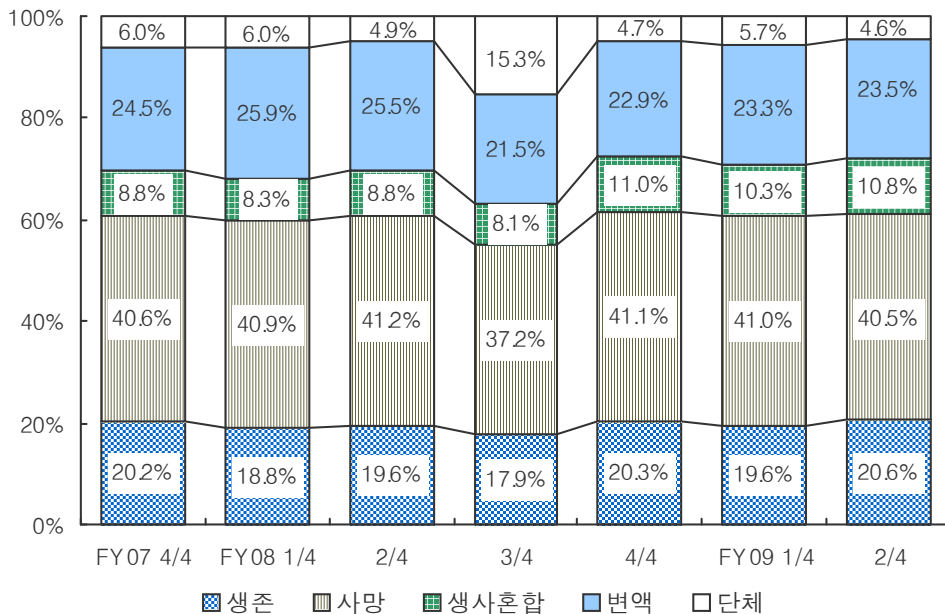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9 2/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고 사망, 변액, 단체보험 비중은 모두 감소함.

- 특히 생사혼합보험은 FY2008 4/4분기 이후 계속된 큰 폭의 수입보험료 증가세로 인해 3분기 연속 두 자리수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존보험의 경우도 2/4분기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비중이 확대됨.
- 사망, 변액, 단체보험은 수입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모두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변액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0%p 하락하여 가장 큰 감소를 나타내면서, 4분기 연속 비중 감소세를 이어감.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FY2009 2/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사혼합보험의 고성장 지속, 보험요율 조정에 대응한 생존보험의 수요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은 해약으로 인한 계속보험료 유입이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
 - 사망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는 FY2008 4/4분기 이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계속보험료는 FY2008 3/4분기 이후 감소하고 있어 종목 내 상품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2.1%의 감소를 나타냄.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2009년 10월부터 제6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되어 연금보험료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대기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초회보험료가 29.7%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4.8% 증가함.
 - FY2008 4/4분기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생사혼합보험은 계속해서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FY2009 2/4분기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2.6% 증가하였음.
 - 이는 단기부동자금의 크게 증가하면서 각 금융업권 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보험업도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데 기인함.
 - 변액보험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으로 80%에 달하던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40%대로 둔화되었으나 동시에 손실회복에 따른 해약도 증가하여 수입보험료는 2.1% 감소함.
- FY2009 2/4분기 단체보험은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퇴직보험 부문에서 이탈한 계약이 퇴직연금 부문으로 원활하게 재유입되지 못하면서 5.2%의 수입보험료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상당히 축소됨.
 - 일반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는 초회보험료보다는 주로 계속보험료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만기도래와 경기침체로 인한 해약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2010년 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퇴직보험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퇴직보험에서 이탈한 계약이 타업권 퇴직연금, 중간정산 등으로 유출되고 일부만 생명보험 퇴직연금으로 유입되면서 퇴직 관련 시장이 축소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료	141,403	34,444	35,313	35,115	35,842	140,714	34,389	37,016
	성장률	8.6	-0.5	3.8	-1.1	-3.8	-0.5	-0.2	4.8
	구성비	18.8	18.8	19.6	17.9	20.3	19.1	19.6	20.6
사망	보험료	297,700	74,786	74,189	73,160	72,397	294,531	71,889	72,647
	성장률	4.2	1.4	0.6	-2.7	-3.5	-1.1	-3.9	-2.1
	구성비	39.6	40.9	41.2	37.2	41.1	40.0	41.0	40.5
생사 혼합	보험료	66,043	15,267	15,762	15,870	19,467	66,365	18,096	19,321
	성장률	-2.8	-9.3	-3.1	-5.3	20.2	0.5	18.5	22.6
	구성비	8.8	8.3	8.8	8.1	11.0	9.0	10.3	10.8
변액 보험	보험료	173,912	47,399	45,977	42,221	40,318	175,916	40,885	42,100
	성장률	50.9	27.8	5.7	-12.3	-10.8	1.2	-13.7	-8.4
	구성비	23.2	25.9	25.5	21.5	22.9	23.9	23.3	23.5
개인 계	보험료	679,058	171,896	171,241	166,366	168,024	677,526	165,260	171,085
	성장률	13.4	5.9	2.2	-5.2	-3.3	-0.2	-3.9	-0.1
	구성비	90.4	94.0	95.1	84.7	95.3	92.1	94.3	95.4
단체	보험료	71,898	10,945	8,744	30,099	8,299	58,087	9,908	8,287
	성장률	9.7	-8.2	-1.2	-25.0	-24.6	-19.2	-9.5	-5.2
	구성비	9.6	6.0	4.9	15.3	4.7	7.9	5.7	4.6
합계	보험료	750,956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175,168	179,372
	성장률	13.0	5.0	2.0	-8.9	-4.5	-2.0	-4.2	-0.3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9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상위 3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증가함.
- 국내 중소형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4%p 상승하여 24.9%로 높아짐.
 - 이는 새로운 참조위험률 적용에 따라 2009년 10월 이후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보험료 인상 전 중소형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외국사의 경우 최근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생사혼합보험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생존보험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변액보험에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0.5%p 하락한 22.2%의 점유율을 기록함.
 - 허핀달지수는 FY2009 2/4분기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0042 하락한 0.1200을 나타냄.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위 3개사	56.7(2.9)	54.3	53.9	57.1	53.3	54.7(-5.5)	53.6	52.9
국내중소형사	20.8(33.1)	23.4	23.5	23.2	25.4	23.8(12.5)	25.0	24.9
외 국 사	22.5(26.7)	22.3	22.7	19.7	21.3	21.5(-6.8)	21.4	22.2
허핀달지수	0.1338	0.1257	0.1242	0.1365	0.1216	0.1271	0.1217	0.1200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9년 9월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카디프는 국내 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0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5) 괄호는 연간 수입보험료 성장률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9 2/4분기 누적 생명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가 대폭 개선되고 투자영업이익, 기타영업이익도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108.6% 증가한 1조 5,592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지는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이익 증가, 해약환급금 감소로 인한 지급보험금 감소, 신계약비를 중심으로 한 사업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70.4%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 증가를 주도함.
- 투자영업수지는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수익이 증대되고 투자영업비용도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한 7조 20억원을 기록함.
- 변액보험 수수료 수입이 주를 이루는 영업외 수지도 17.9% 증가한 1조 3,614억원을 실현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1/4	2/4
총 수 익	보험영업	132,642	269,260	403,000	541,472	134,024	272,467
	투자영업	42,759	91,747	143,107	193,584	48,008	96,349
	영업외	6,482	14,385	24,500	33,276	8,353	16,410
	소계	181,883	375,392	570,606	768,332	190,386	385,225
총 비 용	보험영업	114,908	247,562	390,971	525,522	116,177	235,500
	투자영업	10,584	31,576	57,118	82,391	14,511	26,329
	영업외	1,196	2,835	5,334	7,439	1,501	2,796
	소계	126,689	281,973	453,423	615,352	132,188	264,624
수 지 차	보험영업	17,734	21,698	12,029	15,949	17,848	36,967
	투자영업	32,175	60,171	85,989	111,193	33,498	70,020
	영업외	5,285	11,550	19,166	25,838	6,852	13,614
	소계	55,194	93,419	117,184	152,980	58,198	120,601
책임준비금 전 입		47,126	83,510	107,029	144,221	49,455	100,483
법 인 세		2,287	2,436	2,545	3,056	1,829	4,527
당기순이익		5,782	7,473	7,610	5,703	6,914	15,592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9 2/4분기 보험금 지급률은 해약 및 만기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0%p 감소한 59.9%를 기록함.

○ 개인보험 중 생존,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률이 크게 낮아졌으며, 단체보험 지급률도 큰 폭으로 하락함.

○ 반면 해약이 증가한 사망과 변액보험의 지급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금융시장 안정으로 일정 정도 손실을 회복한 변액보험의 해약이 증대되어 지급률이 전년동기대비 19.7%p 상승한 50.0% 수준으로 나타남.

□ FY2009 2/4분기 누적 해약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6.5%를 기록하였으나 당 분기 해약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한 3.3%를 기록하면서 경기악화로 인한 해약률 상승 추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금 지급률	59.5	56.8	62.9	68.3	70.5	64.6	58.0	59.9
개 인 계	57.4	51.1	57.6	67.7	58.9	58.8	51.9	56.0
- 생 존	73.8	66.3	88.5	106.9	78.9	85.2	60.6	56.4
- 사 망	41.6	41.9	47.6	53.3	57.0	49.9	51.7	53.8
- 생사혼합	155.9	122.7	115.7	121.6	78.9	107.9	70.7	76.8
- 변 액	33.9	31.4	30.3	39.7	34.8	33.9	36.5	50.0
단 체	81.6	145.8	166.5	71.4	305.1	133.1	160.7	140.3
사 업 비 율	18.5	19.2	20.1	17.2	15.8	18.1	17.3	17.7
신 계 약 률	25.5	5.9	11.5	17.5	23.9	23.9	5.6	11.6
해 약 률	10.3	3.0	6.1	9.4	12.4	12.4	3.5	6.5

주 :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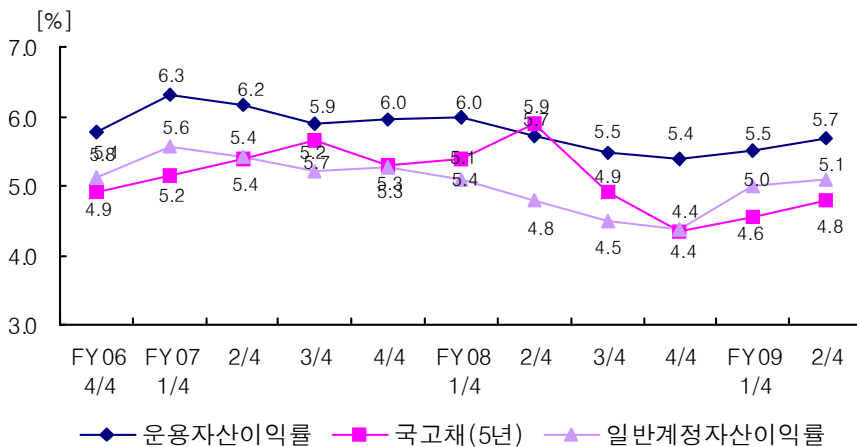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9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운용자산 이익률은 부동산 이익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기보유증권과 대출채권 이익률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인 5.7%를 유지함.
-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은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전년동기 -2.4%의 이익률에서 6.7%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해외투자 관련 비용 증대 등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0.1%p, 1.0%p 하락한 4.7%, 4.9%를 나타냄.
- 대출채권은 전년동기에 비해 0.3%p 하락한 8.0%의 이익률을 기록한 반면, 부동산의 경우 2.3%p 증가한 5.5%의 이익률을 실현함.
- 비운용자산까지 고려한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의 경우 비운용자산 비용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0.3%p 증가한 5.1%의 이익률을 달성함.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이익)×(연기준 환산)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ECOS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3.5	4.0	4.6	3.8	4.4	3.8	3.5	3.1	3.3	3.0
유 가 증 권	58.6	5.0	57.8	4.5	58.9	4.3	60.8	4.8	61.7	5.0
○ 단기매매증권	1.2	-2.4	1.4	-6.2	1.4	-3.5	1.4	7.0	1.2	6.7
- 주 식	0.1	-34.5	0.0	-37.7	0.0	-26.2	0.0	63.0	0.0	93.3
- 채권 등	0.6	-3.0	0.5	-9.5	0.4	-7.3	0.3	8.9	0.3	6.3
- 수익증권	0.5	6.2	0.8	1.7	1.0	2.3	1.1	4.6	0.8	4.7
○ 매도가능증권	45.7	4.8	45.0	4.5	45.8	4.2	46.5	4.4	47.2	4.7
- 주 식	4.6	1.7	3.9	0.8	4.2	1.9	4.3	0.7	5.3	1.1
- 채권 등	37.8	4.6	37.8	4.7	38.4	4.3	38.8	4.8	38.3	5.1
- 수익증권	3.3	12.5	3.2	8.4	3.3	6.7	3.4	5.0	3.6	5.6
○ 만기보유증권	10.7	5.9	10.5	5.8	10.8	5.5	11.9	4.7	12.5	4.9
- 채권 등	10.7	5.9	10.5	5.8	10.8	5.5	11.9	4.6	12.5	4.9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9.9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	11.7	0.9	6.4	0.9	8.4	0.9	23.6	0.9	19.0
대 출 채 권	23.6	8.3	23.6	8.4	22.9	8.6	22.3	8.2	22.2	8.0
부 동 산	4.1	3.2	3.9	4.3	4.3	4.9	4.2	4.0	4.0	5.5
운 용 자 산 계	89.7	5.7	89.9	5.5	90.5	5.4	90.8	5.5	91.2	5.7
비 운 용 자 산	10.3	-3.1	10.1	-3.6	9.5	-4.4	9.2	-0.5	8.8	-0.6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82.5)	4.8	100.0 (83.0)	4.5	100.0 (82.5)	4.4	100.0 (81.7)	5.0	100.0 (81.2)	5.1
특 별 계 정 자 산	17.5	-5.1	17.0	-5.4	17.5	-1.6	18.3	16.1	19.1	17.6
총 자 산	100.0	3.0	100.0	2.8	100.0	3.3	100.0	6.9	100.0	7.3
총 자 산 규 모	3,138,783		3,205,462		3,283,321		3,388,638		3,527,890	

주 :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9 2/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방카슈랑스, 대리점 비중은 증가한 반면, 설계사, 임직원 비중은 감소함.

- 방카슈랑스의 경우, 생사혼합보험의 지속적인 고성장과 보험료 인상 이전에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는 현상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1.5%p 증가한 48.2%를 기록함.
- 독립채널인 대리점 역시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한 8.2%를 기록함.
- 설계사는 변액보험에서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생존, 생사혼합보험에서 방카슈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35.9%의 비중을 기록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주요 종목인 단체보험 초회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60% 가량 감소함에 따라 11.4%p 감소한 7.5%로 낮아짐.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임 직 원	14.4	13.2	18.9	29.5	11.8	17.8	15.4	7.5
설 계 사	42.0	35.5	36.3	39.9	32.5	36.0	36.2	35.9
대 리 점	9.4	8.6	7.9	9.7	9.1	8.8	8.8	8.2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34.2	42.5	36.7	20.7	46.5	37.3	39.5	48.2
기 타	0.0	0.1	0.1	0.1	0.1	0.1	0.1	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7,478	20,072	17,429	14,364	15,510	67,375	12,973	17,200

주 :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9 2/4분기 모집조직은 임직원, 설계사의 수가 전분기에 이어 감소하였고 대리점 수는 법인대리점을 중심으로 증가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에 비해 290명 감소한 2만 7,131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대형사와 외국사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한 데 기인한 것임.
 - 생명보험 설계사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3,022명 감소한 16만 5,85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전속설계사가 2,792명 감소하였고 교차설계사수도 230명 감소함.
 - 설계사수의 감소는 주로 상위3개사 및 국내중소형사에서 이루어졌는데, 남성설계사와 여성설계사 모두 각각 1.1%, 2.0% 감소함.
 - 대리점수는 개인대리점이 74개 감소한 반면, 법인대리점은 225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51개 증가한 1만 3,739개로 나타남.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1/4	2/4	3/4	4/4	1/4	2/4
임 직 원	29,111	27,807	28,147	28,137	28,300	27,421	27,131
설 계 사	144,324	148,763	173,434	176,090	171,347	168,874	165,852
- 전속	-	-	-	-	145,834*	143,588	140,796
- 교차	-	-	-	-	25,513*	25,286	25,056
대 리 점	11,124	11,411	12,584	13,695	13,120	13,588	13,739
- 개인	7,776	7,888	8,924	10,311	9,357	9,014	8,940
- 법인	3,348	3,523	3,660	3,384	3,763	4,574	4,799

주 : *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9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성보험의 지속적인 호조세와 자동차보험의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10조 5,112억원을 기록함.
 - 장기성보험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여파로 FY2008 3/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자동차보험도 플러스 성장을 시현함.
- 장기성보험의 FY2009 2/4분기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3.9% 성장한 6조 2,410억원을 시현하였는데, 여기에는 실손형 의료보험 제도 변화에 따른 대기 수요가 미리 반영된 결과로 풀이됨.
 -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등 장기성보험의 전 종목이 견실한 성장세를 보임.
 - 특히,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보장 한도가 2009년 10월부터 90%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FY2009 2/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정부의 차량 관련 세제 지원책 등의 영향으로 차량등록대수 증가세가 회복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2조 8,248억원을 시현함.
 -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2009년 상반기 시행된 노후차량 세제지원 효과가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회복으로 이어짐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자동차보험이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됨.
-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7% 성장한 1조 4,454억원으로 나타남.

□ FY2009 2/4분기말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3.7% 증가한 79조 4,726억원을 기록함.

○ 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른 자산운용 여건 호전으로 운용자산 가치가 전분기대비 3.1% 증가하는 등 전체 자산 규모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됨.

○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 확대에 따라 미상각 신계약비가 증대됨에 따라 비운용 자산 규모도 8.0% 증가함.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원수보험료	339,819	89,550	91,512	99,218	94,674	374,954	100,038	105,112
	14.9	12.9	12.1	7.6	9.3	10.3	11.7	14.9
- 장기성	183,821	49,038	50,363	57,163	55,247	211,812	58,034	62,410
	20.4	17.4	17.2	10.8	16.3	15.2	18.3	23.9
- 자동차	108,094	27,397	27,846	27,574	26,554	109,371	27,241	28,248
	12.0	6.0	3.5	-1.2	-3.2	1.2	-0.6	1.4
- 일반손해	47,904	13,114	13,302	14,481	12,873	53,771	14,763	14,454
	2.6	12.3	12.9	13.9	9.8	12.2	12.6	8.7
총 자 산	660,151	680,358	690,602	714,866	739,895	739,895	766,082	794,726
	15.9	3.1	1.5	3.5	3.5	12.1	3.5	3.7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I, II을 모두 포함함.

3) 장기성 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09 2/4분기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측면에서는 장기성보험의 비중 확대 추이가 계속되어 59.4% 수준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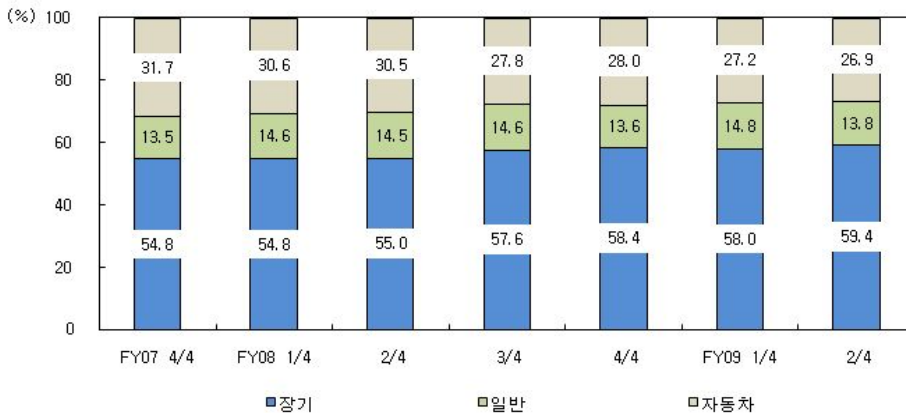
○ 장기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세와 연금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4%p 늘어난 59.4%의 점유율을 보임.

○ 자동차보험은 4분기만에 플러스 성장률을 시현했으나, 점유율 측면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3.6%p 감소한 26.9% 수준으로 낮아짐.

- 일반손해보험의 비중도 전년동기대비 0.7%p 감소한 13.8%를 차지하는데 그침.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 추이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성 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일반손해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중, 특종,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종목별 보험료 현황

1) 장기성보험 - 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 FY2009 2/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장 한도 축소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23.3% 증가한 5조 7,299억원을 시현함.

- 2009년 10월부터 실손의료비 보장 한도가 90%로 축소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9월까지 실손형 의료보험 판매에 주력하면서 고성장을 나타냄.

- 개인연금의 원수보험료는 연금상품 및 세제적격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업계의 적극적인 판매 전략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0.4% 성장한 4,048억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은 급속한 고령화 진전 및 세제혜택 부여에 힘입어 FY2007 2/4분기 이후 20%를 상회하는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국내 보험시장 동향

□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7.3%, 39.3% 증가했으며, 퇴직 관련 전체 실적도 33.1%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함.

○ 퇴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퇴직보험 가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전년동기대비 27.3% 증가함.

○ 퇴직연금은 2010년 말 퇴직보험·신탁 제도의 종료를 앞두고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계약 및 신규계약이 증가되면서 39.3% 성장함.

<표 12> 장기성 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장 기 손 해	보험료	163,435	44,857	46,461	47,761	49,749	188,829	53,088	57,299
	성장률	19.5	16.1	16.6	14.7	14.9	15.5	18.3	23.3
	구성비	88.9	91.6	92.4	83.7	89.7	89.1	91.5	91.8
개 인 연 금	보험료	9,994	2,907	3,104	3,394	3,449	12,853	3,654	4,048
	성장률	25.3	28.3	30.0	29.1	27.1	28.6	25.7	30.4
	구성비	5.4	5.9	6.2	5.9	6.2	6.1	6.3	6.5
퇴 직 보 험	보험료	8,258	518	410	4,770	1,110	6,807	758	521
	성장률	26.2	-32.4	-19.7	-21.1	18.7	-17.6	46.4	27.3
	구성비	4.5	1.1	0.8	8.4	2.0	3.2	1.3	0.8
퇴 직 연 금	보험료	2,133	756	389	1,238	939	3,322	534	541
	성장률	61.0	494.4	81.8	-1.5	75.2	55.7	-29.4	39.3
	구성비	1.2	1.5	0.8	2.2	1.7	1.6	0.9	0.9
장기성 보험계	보험료	183,821	49,038	50,363	57,163	55,247	211,812	58,034	62,410
	성장률	20.4	17.4	17.2	10.8	16.3	15.2	18.3	23.9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2)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I의 자산연계형 실적을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실적>

□ FY2009 2/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해보험, 질병보험, 저축성보험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39,614	11,324	11,930	12,678	13,770	49,702	15,041	15,650
		성장률	24.8	23.7	24.9	24.5	28.4	25.5	32.8	31.2
	운 전자	보험료	21,347	5,354	5,279	5,197	5,075	20,904	5,008	4,994
		성장률	2.9	1.6	-0.5	-3.4	-5.9	-2.1	-6.5	-5.4
	재 물	보험료	17,625	4,531	4,519	4,539	4,523	18,113	4,550	4,548
		성장률	3.8	4.5	4.3	1.6	0.8	2.8	0.4	0.4
	질 병	보험료	27,406	7,511	7,955	8,698	9,590	33,755	10,568	12,992
		성장률	10.3	16.0	18.6	24.1	32.9	23.2	40.7	62.2
	저축성	보험료	27,268	7,299	7,491	7,369	7,480	29,639	8,479	9,040
		성장률	21.9	10.2	11.8	8.7	4.3	8.7	16.2	20.7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30,175	8,838	9,183	9,175	9,206	36,403	9,330	9,925
		성장률	50.0	30.7	26.6	17.1	10.7	20.6	5.6	8.1
	자산 연계형	보험료	-	-	104	105	104	313	111	151
		성장률	-	-	-	-	-	-	-	45.7
	소 계	보험료	163,436	44,857	46,461	47,761	49,749	188,829	53,088	57,299
		성장률	19.5	16.1	16.6	14.7	14.9	15.5	18.3	23.3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728	452	492	597	824	2,365	645	793
		성장률	20.7	16.8	14.5	49.8	60.9	36.9	42.8	61.1
	운 전자	보험료	572	112	100	104	108	424	121	119
		성장률	0.7	-24.2	-32.1	-28.0	-18.6	-25.9	7.9	18.4
	재 물	보험료	624	172	136	149	166	622	172	130
		성장률	13.6	7.0	0.5	-10.5	2.6	-0.2	0.1	-4.2
	질 병	보험료	767	222	326	495	719	1,762	513	753
		성장률	52.3	33.4	69.5	156.2	234.5	129.8	131.3	130.9
	저축성	보험료	2,552	643	648	462	652	2,405	1,091	1,153
		성장률	-7.1	-7.3	12.9	4.4	-22.6	-5.8	69.7	77.9
계 속 보험료	통합형	보험료	1,107	265	217	151	219	851	181	322
		성장률	-16.3	2.8	-24.9	-40.8	-28.6	-23.1	-31.5	48.4
	소 계	보험료	7,350	1,866	1,920	1,957	2,687	8,429	2,724	3,270
		성장률	3.2	2.9	8.5	22.4	23.9	14.7	46.0	70.4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37,886	10,872	11,438	12,081	12,946	47,337	14,396	14,857
		성장률	25.0	24.0	25.4	23.5	24.8	24.9	32.4	29.9
	운 전자	보험료	20,775	5,242	5,178	5,093	4,967	20,480	4,887	4,875
		성장률	3.0	2.4	0.4	-2.8	-5.6	-1.4	-6.8	-5.8
	재 물	보험료	17,001	4,359	4,383	4,390	4,358	17,491	4,378	4,418
		성장률	3.5	4.4	4.4	2.1	0.8	2.9	0.4	0.8
	질 병	보험료	26,640	7,289	7,629	8,203	8,871	31,992	10,055	12,239
		성장률	9.4	15.5	17.1	20.4	26.7	20.1	37.9	60.4
	저축성	보험료	24,716	6,657	6,843	6,907	6,828	27,234	7,388	7,887
		성장률	25.9	12.2	11.7	9.1	7.9	10.2	11.0	15.3
계 속 보험료	통합형	보험료	29,068	8,573	8,966	9,024	8,988	35,552	9,149	9,603
		성장률	54.7	31.8	28.7	18.9	12.2	22.3	6.7	7.1
	소 계	보험료	156,085	42,992	44,438	45,699	46,958	180,086	50,252	53,878
		성장률	20.4	16.8	16.7	14.1	14.1	15.4	16.9	21.2

주 :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되지 않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건강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더불어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정이라는 정책변화가 작용하면서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1.2%, 62.2% 증가한 1조 5,650억원과 1조 2,992억원을 기록함.
- 특히, 질병보험의 경우 보장 한도 축소 전인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려는 대기 수요가 크게 늘면서 분기 최고 성장률을 보임.
- FY2009 1/4분기 이후 통합형보험의 성장률은 크게 낮아진 반면, 저축성보험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의 상품간 포트폴리오 변동 현상이 나타남.
- FY2009 2/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재물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이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시현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70.4% 급증한 3,270억원을 기록함.
- 실손형 의료보장 상품을 중심으로 신계약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1.1%, 130.9%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주요 보험회사들의 신상품 출시에 따른 판매 활성화에 힘입어 77.9% 성장하는 등 전분기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보임.
- FY2009 2/4분기 종목별 계속보험료 역시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의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FY2008 4/4분기 이후 질병보험의 계속보험료 성장률이 상해보험 계속보험료의 성장률을 상회함에 따라 질병보험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높아짐.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률 및 해약률>

- FY2009 2/4분기 누적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률은 실손형 의료보험 제도 변경 효과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1%p 증가한 21.2%를 시현함.
- 실손형 의료보험의 제도 개정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신계약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5%p, 9.3%p 상승함.
- FY2009 2/4분기 누적 장기손해보험 해약률은 전년동기대비 1.1%p 증가한 9.7%로 나타나 금융위기 이후 해약률 증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전년동기대로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질병보험 순으로 해약률이 증가함.

<표 14>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률 및 해약률

(단위: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신계약률	상 해	50.3	8.6	18.1	28.4	42.9	42.9	9.2	20.6
	운전자	28.0	5.6	10.9	16.7	22.9	22.9	7.6	15.2
	재 물	32.8	7.9	14.7	22.1	30.1	30.1	7.9	14.6
	질 병	59.5	11.7	29.4	49.6	82.6	82.6	15.4	38.7
	저축성	39.5	7.8	13.6	17.8	23.0	23.0	5.9	12.6
	통합형	86.3	12.1	22.9	29.8	40.7	40.7	6.2	16.9
	계	46.3	8.8	18.1	27.5	40.7	40.7	9.2	21.2
해약률	상 해	17.0	4.4	8.8	12.9	17.2	17.2	6.0	10.9
	운전자	14.6	4.4	8.6	13.1	17.6	17.6	5.5	10.4
	재 물	12.9	4.1	8.0	11.9	15.1	15.1	4.9	7.7
	질 병	15.7	4.1	8.1	11.5	14.8	14.8	4.6	9.3
	저축성	15.9	4.6	9.4	15.0	19.7	19.7	5.9	9.6
	통합형	10.6	2.8	5.4	8.0	10.1	10.1	4.6	4.4
	계	15.5	4.3	8.6	12.9	16.9	16.9	5.4	9.7

주 : 1)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자동차보험

- FY2009 2/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대인배상 I 부분의 하락세 둔화 및 종합보험 부분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2조 8,248억원을 시현함.

- 담보별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의 원수보험료가 8,90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했으나, 직전 분기 감소율인 7.2%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둔화됨.

- 이는 정부의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효과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차량등록대수 증가율이 회복된 데 기인함.

- 종합보험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물배상(대물) 및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의 원수보험료가 차량의 고급화·대형화 경향으로 물적 보상 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9.3%, 4.2% 증가해

전체 종합보험 성장을 주도함.

<표 15>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대인 I	36,867	9,077	9,190	9,090	8,565	35,923	8,424	8,908
종합보험	대인 II	12,591	3,089	3,123	3,088	2,916	12,215	3,053
	대물	24,434	6,473	6,712	6,845	6,679	26,710	6,996
	자차	25,784	6,599	6,381	6,566	6,289	25,836	6,530
	자손	3,849	950	1,202	731	921	3,804	961
	무보험	1,126	268	282	280	268	1,098	272
	소계	67,784	17,380	17,700	17,511	17,073	69,664	17,812
외화표시	100	33	29	43	21	127	33	21
이륜자동차	350	127	129	106	98	460	145	140
기타	2,993	780	798	824	796	3,198	827	830
총계	108,095	27,397	27,846	27,574	26,554	109,371	27,241	28,248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9 2/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물배상 손해율 및 자기차량손해 손해율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3%p 증가한 74.1%를 기록함.

- 대인배상 I 의 손해율은 2008년 말 단행된 보험료 인하 효과의 영향으로 경과보험료가 감소됨에 따라 상승세를 보임.
- 종합보험의 손해율은 대인배상 II를 제외하고 모든 담보에서 전년동기대비 악화됨.
- 특히, 물적담보인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율은 차량운행 증가에 따른 사고율 급증으로 지급보험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3.5%p, 12.7%p 상승한 78.5%, 79.1%로 높아짐.
- 2009년 8월 단행된 교통법규 위반 사면, 실물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유가 안정화 및 노후차 교체 세제감면책 효과 등이 차량판매 및 운행량 증가로 이어져 최근 사고율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표 16>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억원)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대인 I	72.3	65.2	65.5	74.7	61.3	66.6	68.1	71.8
종합 보험	대인 II	78.1	91.4	74.4	57.7	70.9	73.5	69.0
	대물	79.1	71.8	74.9	78.4	76.1	75.4	76.9
	자차	68.6	62.4	66.4	72.1	74.5	68.9	72.6
	자손	58.7	49.3	58.3	56.8	82.2	60.6	66.0
	무보험	46.2	22.8	39.8	43.0	37.9	35.8	21.1
	소계	73.2	69.7	70.1	70.5	74.3	71.1	72.5
외화표시	74.2	59.7	72.6	58.5	58.2	62.3	63.4	48.2
이륜자동차	120.5	107.2	108.2	95.2	71.2	94.6	93.9	94.2
기타	68.9	60.5	73.4	72.3	67.8	68.6	66.0	76.0
총계	73.0	68.1	68.8	72.1	69.7	69.7	71.0	74.1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임.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일반손해보험

□ FY2009 2/4분기 일반손해보험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기술보험의 증가와 애프터서비스(AS) 비용보험 등 기타 특종보험 및 해외원보험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8.7% 성장한 1조 4,454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함.

○ 화재보험 및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비중이 높은 특종보험이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일반손해보험 시장이 건조한 성장세를 시현함.

<표 17>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3,075	701	632	792	710	2,835	654	632
	성장률	-1.8	-5.7	-6.9	-9.8	-8.4	-7.8	-6.6	-0.1
	구성비	6.4	5.3	4.8	5.5	5.5	5.3	4.4	4.4
해 상	보험료	6,518	2,166	1,912	2,564	1,864	8,507	2,215	2,009
	성장률	3.1	24.9	7.2	72.6	23.1	30.5	2.2	5.1
	구성비	13.6	16.5	14.4	17.7	14.5	15.8	15.0	13.9
보 증	보험료	9,940	2,814	2,928	2,821	2,966	11,529	3,165	2,890
	성장률	-13.0	16.1	25.1	8.4	15.3	16.0	12.5	-1.3
	구성비	20.7	21.5	22.0	19.5	23.0	21.4	21.4	20.0
특 종	보험료	27,245	7,209	7,488	7,668	6,754	29,119	8,345	8,422
	성장률	9.0	9.5	11.3	2.8	4.3	6.9	15.8	12.5
	구성비	56.9	55.0	56.3	52.9	52.5	54.2	56.5	58.3
해 외 원보험	보험료	1,126	224	341	637	580	1,781	383	500
	성장률	36.8	16.9	34.2	113.9	51.3	58.1	71.1	46.6
	구성비	2.4	1.7	2.6	4.4	4.5	3.3	2.6	3.5
소 계	보험료	47,904	13,114	13,302	14,481	12,873	53,771	14,763	14,454
	성장률	2.6	12.3	12.9	13.9	9.8	12.2	12.6	8.7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화재보험 시장은 일반화재보험의 장기보험화와 하나의 증권에 다수 보장을 제공하는 종합보험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FY2009 2/4분기 원수보험료도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632억원에 그침.

○ 화재보험의 주택물건과 일반물건의 원수보험료는 각각 2.2%, 1.5% 감소한 반면, 공장물건은 1.0% 증대됨.

□ 해상보험의 FY2009 2/4분기 원수보험료는 선박건조량 증대 및 환율상승 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5.1% 성장한 2,009억원을 기록함.

○ 선박 및 항공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9.0%, 15.9% 성장하여 906억원과 191억원을 기록함.

○ 반면, 적하 및 운송보험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입 물량의 감소로 인해 원수보험

료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한 613억원에 그침.

- 그 외 해양종합보험은 해양구조물 건설·설치 등의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27.9% 성장함.

□ FY2009 2/4분기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보증 수요 축소로 인해 신계약 및 보유계약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한 2,890억원에 그침.

- 계약 실적에 있어서는 신계약이 전년동기대비 26.1% 감소한 331만건을 기록하였으며, 보유계약 건수도 전년동기대비 14.0% 감소한 1,729만건을 나타냄.

□ FY2009 2/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종합보험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한 8,422억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단체상해보험 시장 수요가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6% 상승한 2,357억원을 시현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업성 물건의 성장세가 감소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3% 성장한 3,136억원에 그침.
- 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수출 둔화에 따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배상책임 및 전문직업인 배상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2% 성장한 911억원을 시현함.
- 기술보험의 경우 정부의 SOC투자 확대에 따른 공공부문의 발주 증가로 건설공사보험의 실적 상승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86.1% 성장한 1,109억원을 기록함.
- 그 외 기타 특종보험은 A/S 비용보험 및 풍수해보험 등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6.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9 2/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사와 전업사, 온라인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한 반면, 기타사의 비중은 소폭 확대됨.

- 상위 4사와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8.2%와 2.8%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5%p, 0.4%p 감소한 반면, 기타사는 1.2%p 높아진 25.6%를 나타냄.

국내 보험시장 동향

- 기타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독립대리점 및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판매가 증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온라인사는 3.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0.2%p 감소함.
- FY2009 2/4분기 허핀달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39p 감소한 0.1402로 손해보험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18>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위 4사	70.1	69.1	68.7	68.6	67.8	68.5	67.9	68.2
기타사	23.7	24.0	24.4	24.8	25.4	24.6	25.5	25.6
전업사	3.0	3.2	3.2	3.0	3.2	3.2	3.2	2.8
외국사	3.1	3.7	3.7	3.6	3.6	3.7	3.4	3.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	3.7	3.7	3.6	3.6	3.7	3.6	3.3	3.4
허 핀 달 지 수	0.1487	0.1453	0.1441	0.1430	0.1384	0.1426	0.1396	0.1402

주 : 1) 온라인사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교보AXA손보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6개사, 외국사는 교보AXA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차티스,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즈이스미토모, 도쿄해상화재보험 등 8개사업.
 2)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원수보험료는 분기별 실적이며,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이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지상황

<당기순이익>

- FY2009 2/4분기 누적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장기손해보험의 판매 확대에 따른 보험영업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 및 사업비 등 보험영업비용 부문의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감소한 9,073억원을 시현함.
- 실손형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장기손해보험의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보험영

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했으나, 자동차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한 손해율 악화와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 급증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험영업 관련 비용이 15.5% 늘어나며 보험영업수지는 적자를 기록함.

-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1.9% 상승함.
- 이자수입 및 매도가능증권이익 증대와 파생상품 관련 이익 발생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은 전분기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임.

<표 19>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1/4	2/4
총 수 익	보험영업	84,828	173,110	263,657	356,732	95,112	195,622
	투자영업	10,526	20,104	31,151	41,692	11,827	22,443
	기타	2,142	4,394	11,934	14,693	2,318	4,671
	소계	97,496	197,607	306,743	413,117	109,256	222,736
총 비 용	보험영업	83,687	172,648	266,425	365,166	96,254	199,338
	투자영업	2,684	6,692	11,789	15,398	3,043	6,093
	기타비용	2,211	4,507	12,078	14,739	2,662	5,357
	소계	88,582	183,848	290,292	395,302	101,959	210,787
수 지 차	보험영업	1,141	461	-2,768	-8,434	-1,142	-3,715
	투자영업	7,842	13,412	19,362	26,294	8,784	16,350
	기타	-69	-114	-144	-46	-344	-686
	소계	8,914	13,759	16,451	17,814	7,297	11,949
법 인 세		2,434	3,623	4,327	4,659	1,707	2,876
당기순이익		6,480	10,137	12,123	13,156	5,591	9,073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용>

- FY2009 2/4분기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손해율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한 76.7%를 시현함.

국내 보험시장 동향

- 해외원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약화된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신규 계약의 유입 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1%p 개선됨.
- 해상보험의 경우 선박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보험 부문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음.

<표 20>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율	화재보험	44.2	43.0	31.6	47.7	37.9	39.7	32.4	37.1
	해상보험	57.7	52.9	71.7	82.5	301.8	127.1	82.4	89.0
	자동차보험	73.0	68.1	68.8	72.1	69.7	69.7	71.0	74.1
	보증보험	19.5	23.7	47.5	78.5	43.6	48.9	66.1	47.9
	특종보험	60.4	57.8	62.5	69.0	68.3	64.7	61.4	67.2
	해외원보험	34.6	38.1	40.2	48.8	50.5	45.8	39.2	29.0
	장기손보	80.7	80.0	80.6	79.0	78.0	79.3	78.9	78.5
	개인연금	121.7	115.7	115.7	115.7	123.9	117.9	109.6	108.9
	전 체	75.7	73.7	75.4	77.3	77.9	76.1	75.9	76.7
사업비율		23.5	23.5	23.5	25.0	27.6	24.9	24.4	25.0
합산비율		99.2	97.2	98.9	102.2	105.5	101.0	100.3	101.6

주 :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이며, 분기 실적 기준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5%p 상승한 25.0%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계약이 급증했던 장기손해보험 부문의 사업비율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침.
- 합산비율은 손해율 및 사업비율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상승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7%p 증가한 101.6%로 나타남.

라. 자산운용

□ FY2009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이자수입이 증대되고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이 증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5.5%를 시현함.

<표 21>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6.6	7.3	7.0	7.1	5.9	7.1	5.3	1.5	5.0	1.5
유 가 증 권	51.8	4.4	51.1	4.1	52.1	3.8	52.8	6.7	52.3	6.2
○ 단기매매증권	2.9	-3.5	3.0	-1.7	3.5	1.5	3.1	9.8	2.2	9.4
- 주 식	0.2	-62.3	0.1	-59.8	0.1	-34.1	0.1	104.0	0.2	87.5
- 채 권 등	0.6	2.7	0.7	5.0	0.6	5.5	1.2	6.8	1.0	7.6
- 수익증권	2.2	0.1	2.3	0.3	2.8	2.7	1.8	7.8	1.0	6.2
○ 매도가능증권	45.0	4.7	44.1	4.4	44.3	3.9	44.7	6.6	45.1	6.0
- 주 식	5.5	4.1	4.4	4.0	4.7	4.1	4.7	19.2	5.2	14.2
- 채 권 등	31.2	5.3	31.4	5.4	30.5	5.2	36.3	5.7	35.7	5.6
- 수익증권	8.3	3.2	8.2	1.0	9.0	-0.8	3.7	3.6	4.2	3.0
○ 만기보유증권	2.6	5.1	2.8	4.4	3.1	3.9	3.7	4.9	3.8	6.0
- 채 권 등	2.4	4.5	2.6	4.8	2.9	5.1	3.7	5.7	3.8	6.3
- 수익증권	0.2	10.3	0.2	0.7	0.3	-6.0	0.0	-5.8	0.0	2.8
○ 투자주식	1.2	17.7	1.2	10.5	1.3	7.4	1.2	7.2	1.3	9.3
대 출 채 권	18.9	6.8	19.1	7.0	18.5	7.0	18.0	7.2	18.3	6.4
부 동 산	6.1	4.1	5.9	2.9	6.7	1.9	6.7	0.5	6.5	0.7
운 용 자 산 계	83.3	5.1	83.1	4.9	83.2	4.6	82.8	6.0	82.1	5.5
비 운 용 자 산	16.7	-0.1	16.9	-0.1	16.8	-0.1	17.2	0.0	17.9	0.0
일반계정 자산계	100.0	4.2	100.0	4.0	100.0	3.7	100.0	4.9	100.0	4.5
일 반 계 정 자 산	96.4	4.2	96.4	4.0	96.2	3.7	96.4	4.9	96.6	4.5
특 별 계 정 자 산	3.6	-	3.6	-	3.8	-	3.6	-	3.4	-
총 자 산	100.0	4.0	100.0	3.8	100.0	3.6	100.0	4.7	100.0	4.3
총 자 산 규 모	690,602		714,866		739,895		766,082		794,726	

주 : 1)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 환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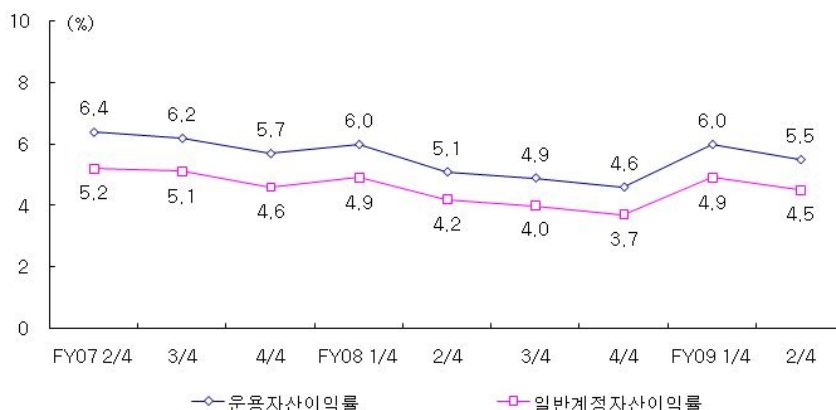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일반계정의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투자비중이 가장 큰 유가증권의 이익률은 최근 금융시장 여건 개선으로 매도가 능증권으로 분류된 주식 및 채권 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8%p 높아진 6.2%를 기록함.
- 반면, 대출채권 이익률은 6.4%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하였고, 부동산 투자 이익률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4%p 하락한 0.7%를 나타냄.
- FY2009 2/4분기 비운용자산을 포함한 일반계정 자산이익률은 4.5%를 나타내 전년 동기대비 0.3%p 상승함.

<그림 4>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환산,
 (손익=수익-비용)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9 2/4분기 대리점, 설계사,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회사직급, 공동인수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리점과 설계사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9%p씩 증대된 47.4%, 35.0%로 나타났으며, 방카슈랑스 채널도 0.1%p 높아진 5.8%를 차지함.

○ 반면, 회사직급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6% 축소되어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회사직급과 설계사를 합산한 전속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45.8%인데 비해 대리점, 중개사, 방카슈랑스 등 비전속 채널 비중은 53.2%로 전속채널의 비중을 상회함.

〈표 22〉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회사직급	39,230	11,098	11,269	12,118	10,961	45,446	14,087	11,245
	11.9	12.6	12.4	13.0	11.8	12.5	14.3	10.8
설계사	113,090	30,067	30,976	31,672	31,680	124,395	32,723	36,378
	34.3	34.1	34.1	34.0	34.1	34.1	33.1	35.0
대 리 점	154,833	41,416	42,178	43,258	44,048	170,900	45,217	49,272
	47.0	46.9	46.5	46.4	47.5	46.8	45.8	47.4
중개사	2,759	644	761	813	716	2,935	820	815
	0.8	0.7	0.8	0.9	0.8	0.8	0.8	0.8
방카슈랑스	17,724	4,723	5,181	5,005	5,085	19,993	5,721	5,997
	5.4	5.4	5.7	5.4	5.5	5.5	5.8	5.8
공동인수	1,790	328	348	344	281	1,301	207	311
	0.5	0.4	0.4	0.4	0.3	0.4	0.2	0.3

주 :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3)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를 포함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09 2/4분기 손해보험 설계사 수는 교차설계사 수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1.7% 증가한 16만 4,383명을 기록함.

○ 전속설계사 수는 8만 4,487명으로 전분기대비 3,476명 감소했으나, 교차설계사 수는 6,244명 증가한 7만 9,896명으로 집계됨.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 수의 감소로 전분기대비 369개 줄어든 4만 6,238개를 시현함.

○ 법인대리점 수는 독립법인대리점(GA)의 활성화로 전분기대비 470개 증가한 1만 1,564개에 달했으나, 대리점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대리점 수는 3만 4,674개로 839개 감소함.

<표 23>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1/4	2/4
임직원	27,278	27,876	28,425	28,250	28,271	28,317
설계사	73,698	116,758	145,214	155,809	161,615	164,383
- 전속	-	-	-	82,201	87,963	84,487
- 교차	-	-	-	73,608	73,652	79,896
대리점	42,443	43,647	44,859	45,998	46,607	46,238
- 개인	35,714	35,763	35,424	35,675	35,513	34,674
- 법인	6,729	7,884	9,435	10,323	11,094	11,564

주 : FY2008 2/4분기 설계사 수는 교차모집설계사 수를 포함하며,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반영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해외보험시장 동향

■ 미국 동향¹⁾

가. 생명보험

- 2009년 3/4분기(7~9월)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에 대한 연간화 보험료²⁾는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였으나 20%대의 감소를 보였던 지난 두 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됨.
- 지난 상반기 30%대의 감소를 보였던 유니버설보험의 경우 3/4분기 14% 감소에 그치면서 2008년 3/4분기부터 시작된 마이너스 성장세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반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3/4분기에도 신규보험료가 52%의 감소세를 기록함.
- 그 동안 상대적으로 선전해온 정기보험은 2009년 상반기 3%대의 신규보험료 감소를 보인 이후 3/4분기에는 0%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감.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간화 보험료 성장률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3/4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유니버설	0	-12	-23	-8	43	-33	-27	-14	41
기타변액	-21	-41	-41	-33	0	-62	-79	0	0
변액유니버설	-8	-33	-18	-17	15	-61	-49	-52	9
정기	-1	0	-3	-1	22	-4	-3	0	26
종신	1	7	2	2	20	-5	-3	12	24
계	-2	-11	-14	-7	100	-26	-20	-11	100
연간화 보험료	2,801	2,619	2,827	10,945		1,987	2,228	2,295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LIMRA, 2009.12.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2) 연간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일시납보험료 10%+정기납보험료

- 종신보험은 지난 1/4, 2/4분기 신규보험료가 소폭 감소한 이후 3/4분기에는 12%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이러한 종신보험의 성장은 저렴한 가격, 상품구조의 단순함, 현금흐름의 확실성 등이 장점으로 부각된 것에 기인함.
- 신규보험료 기준 종목별 누적 점유율을 살펴보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2008년 대비 4%p씩 증가한 24%, 26%를 각각 나타냈으며, 유니버설 비중이 2%p 하락한 41%, 변액유니버설은 6%p 하락한 9%를 보임.
- 보험종목별 비중을 신규 계약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계약 보험료 비중과 달리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및 종신보험의 점유율이 각각 46%, 38%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니버설의 경우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미국 신규 보험계약건수 성장률 추이

(단위: %, 천 건)

구 분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3/4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유니버설	-3	2	-9	-1	15	-7	8	5	14
기타변액	-31	-51	-55	-40	0	-23	-99	0	0
변액유니버설	-18	-22	-33	-21	3	-51	-50	-49	2
정기	-2	-2	-5	-4	46	-5	-4	-1	46
종신	2	4	-14	-2	36	-5	-4	7	38
계	-1	-1	-10	-4	100	-8	-4	1	100
연간화 보험료	1,456	1,408	1,424	5,789		1,323	1,342	1,36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LIMRA, 2009. 12

나. 연금보험

- 2009년 3/4분기 미국 개인연금에 대한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7.1% 감소한 547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종목별로는 확정연금이 18.4%, 변액연금도 16.1% 감소함.

- 금융위기 이후 개인연금 부분의 신규보험료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FY2009 2/4분기 이후에는 큰 폭으로 축소됨.

<표 3>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10억 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3/4
변액연금	금액	42.2	37.8	33.8	155.9	30.7	31.9	31.7
	성장률	-11.7	-18.5	-29.9	-15.4	-27.1	-24.4	-16.1
	비중	62.1	57.3	49.3	58.6	46.3	52.7	58.0
확정연금	금액	25.8	28.2	34.8	110.1	35.6	28.6	23.0
	성장률	44.1	46.9	79.4	51.2	67.1	10.9	-18.4
	비중	37.9	42.7	50.7	41.4	53.7	47.3	42.0
합 계	금액	68.0	66.0	68.6	266.0	66.3	60.5	54.7
	성장률	3.5	0.6	1.5	3.5	4.6	-11.0	-17.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도 동기 대비 수치임.

자료 : U.S. Individual Annuities, LIMRA, 2009. 12

<표 4>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 분	CY2008			CY2009		
	2/4	3/4	4/4	1/4	2/4	3/4
은행	20	19	19	19	20	19
전속설계사	19	19	20	21	21	20
직접판매	7	7	7	9	8	8
재무설계사·독립중개인	19	19	19	18	19	19
독립 설계사	17	18	18	17	17	17
증권 중개인	13	14	13	13	12	13
기타	5	4	4	3	3	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U.S. Individual Annuities, LIMRA, 2009. 12

□ 개인연금 판매 현황을 채널별로 살펴보면 전속설계사, 은행, 재무설계사·독립중개인 중심으로 판매됨.

- 전속설계사가 20%로 계속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이어갔으며, 은행 및 재무설계사·독립중개인이 각각 19%를 차지하여 전속설계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다. 장기간병보험 및 소득보상보험

□ 2009년 3/4분기 미국 장기간병보험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4.8% 감소한 1억 1,173만 달러를 기록함.

○ 신규보험료 수입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 폭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임.

○ 종목별로는 세제적격상품에 비해 세제비적격상품의 신규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3/4분기 각각 24.9%, 41.5% 축소됨.

<표 5> 미국 장기간병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건, 천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3/4
계 약 건 수	적격	건수	71,297	71,239	62,513	273,651	48,070	51,628	52,391
		성장률	-2.1	-1.1	-18.2	-5.8	-29.9	-27.6	-26.5
		구성비	98.9	98.8	99.3	99.0	99.2	99.0	99.0
	비적격	건수	804	890	441	2,849	368	527	513
		성장률	-26.0	12.7	-45.2	-24.2	-48.5	-34.5	-42.4
		구성비	1.1	1.2	0.7	1.0	0.8	1.0	1.0
	전체	건수	72,101	72,129	62,954	276,500	48,438	5,2155	52,904
		성장률	-2.5	-1.0	-18.4	-6.0	-30.1	-27.7	-26.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적격	금액	153,289	155,218	138,482	599,466	102,550	11,0624	116,529
		성장률	-0.2	0.5	-19.4	-4.5	-32.7	-27.8	-24.9
		구성비	99.2	99.1	99.5	99.3	99.5	99.2	99.3
	비적격	금액	1,292	1,411	691	4,519	557	842	825
		성장률	-22.9	7.9	-58.4	-28.1	-50.5	-34.8	-41.5
		구성비	0.8	0.9	0.5	0.7	0.5	0.8	0.7
	전체	금액	154,582	156,629	139,173	603,985	103,108	11,1465	117,354
		성장률	-0.5	0.6	-19.7	-4.7	-32.9	-27.9	-24.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U.S. Individual LTC Insurance, LIMRA, 2009. 12

- 2009년 3/4분기 소득보상보험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한 1조 2,556억 달러를 시현함.
- 2009년 들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2/4분기 13.7% 감소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둔화됨.
- 종목별로는 Guaranteed Renewable³⁾과 Noncancellable⁴⁾ 모두 신규보험료의 감소 폭이 완화된데, 각각 8.4%, 6.0% 감소함.

<표 6>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건, 천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3/4
계 약 건 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68,813	77,252	79,864	335,488	105,053	72,326	57,920
		성장률	3.8	-12.6	23.2	3.6	-4.1	5.1	-25.0
		구성비	61.3	62.7	65.4	65.9	75.8	66.6	58.5
	Noncancellable	건수	43,492	46,018	42,872	174,151	33,452	36,295	41,160
		성장률	-3.6	2.9	-8.6	-1.2	-19.9	-16.5	-10.6
		구성비	38.7	37.3	34.9	34.2	24.2	33.4	41.5
	전체	건수	112,305	123,270	122,736	509,639	138,505	108,621	99,080
		성장률	0.3	-7.4	9.9	198	-8.5	-3.3	-19.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Guaranteed Renewable	금액	49,634	49,518	52,334	211,186	61,198	42,849	45,356
		성장률	15.0	-10.3	21.1	5.4	2.5	-13.7	-8.4
		구성비	36.8	36.7	37.8	38.7	47.6	36.8	36.1
	Noncancellable	금액	85,405	85,332	86,235	334,386	67,345	73,739	80,199
		성장률	2.5	4.7	-3.8	1.9	-13.0	-13.7	-6.0
		구성비	63.2	63.3	62.2	61.3	52.4	63.2	63.9
	전체	금액	135,039	134,850	138,569	545,572	128,544	116,588	125,555
		성장률	6.7	-1.4	4.3	3.2	-6.3	-13.7	-6.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LIMRA, 2009. 12

- 3)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 4) Non-cancellable :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시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라. 손해보험

□ 2009년 3/4분기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한 1,084억 달러를 기록하며,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표 7>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3/4
원수보험료	금액	111,727	114,043	98,642	434,940	106,383	106,335	108,366
	성장률	-0.3	-0.1	-4.4	-1.3	-3.8	-4.8	-5.0
지급보험금	금액	84,225	96,375	80,407	339,036	78,722	75,277	77,653
	성장률	16.1	26.3	3.2	14.1	0.9	-10.6	-19.4
보험영업수익	금액	-4,718	-13,960	-385	-19,240	-2,216	726	-763
	성장률	-172.8	-419.6	-117.4	-188.7	1152.0	-115.4	-94.5
계약자 배당금	금액	341	282	948	1,956	329	344	302
	성장률	11.4	-48.7	-25.3	-19.8	-14.5	0.9	7.1
보험영업이익	금액	-5,059	-14,242	-1,333	-21,195	-2,545	382	-1,065
	성장률	-181.9	-473.1	-240.5	-210.2	353.7	-107.6	-92.5
투자영업이익	금액	13,050	12,217	13,138	51,058	11,731	11,854	13,812
	성장률	-1.4	-9.0	-14.9	-7.2	-7.3	-9.2	286.7
세전 영업이익	금액	7,982	-1,568	11,043	29,792	9,541	12,730	11,472
	성장률	-59.6	-108.9	-32.7	-59.3	-22.7	59.5	-831.6
실현자본수지	금액	-655	-8,645	-10,086	-19,858	-7,987	-3,185	12,280
	성장률	-131.5	-315.7	-1421.9	-322.3	1592.2	386.3	0.5
투자영업수지	금액	12,395	3,572	3,052	31,200	3,744	8,670	1,533
	성장률	-19.1	-79.5	-81.2	-51.2	-69.3	-30.1	-117.7
세후손익	금액	5,535	-9,867	-1,687	2,215	-1,309	7,089	10,407
	성장률	-66.3	-158.5	-113.1	-96.5	-115.9	28.1	-205.5
자기자본(surplus)	금액	507,556	478,494	455,571	1,957,204	437,097	462,995	490,800
	성장률	-1.0	-8.3	-12.0	-4.4	-15.2	-8.8	2.6
지급준비금	금액	546,856	563,968	555,601	2,203,894	554,413	553,396	552,414
	성장률	5.3	7.1	4.4	5.2	3.2	1.2	-2.0
합산비율		104.1	112.3	103.6	105.1	102.2	99.5	100.5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보험영업이익+투자영업이익+기타이익

자료 : Property/Casualty Insurance Industry's Nine-Month Net Income and Overall Profitability Rebound from Depressed Year-Ago Levels As Claim Costs Fall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2009. 12

- 원수보험료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시작된 2007년 2/4분기 전까지 미국 손해보험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경우는 1991년 4/4분기와 2005년 3/4분기 두 번에 불과함.
- 2009년 3/4분기의 5.0% 감소는 198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로 기록됨.
- 이러한 원수보험료의 감소세는 2007년 말부터 지속된 경기악화, 손해보험 시장의 경쟁 심화 등에 기인함.
- 보험영업수지는 전년동기 143억 달러 적자에서 11억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대재해 감소 등에 따른 것임.
- 재보험사까지 포함한 대재해의 직접적인 손실은 26억달러로 2008년 3/4분기 161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함.
-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세전 영업이익은 보험영업수지가 1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투자영업수지가 123억 달러 흑자를 나타내고 기타 수지에서 3억 달러의 흑자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115억 달러를 기록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보험사들을 제외할 경우 세전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29.6% 증가한 123억 달러로 높아짐.
- 2009년 3/4분기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세후손익은 전년동기 98억달러 손실에서 104억 달러의 이익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기자본 이익률은 -7.9%에서 8.7%로 크게 증가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보험사들의 경우 여전히 마이너스의 자기자본 이익률 (-1.1%)을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 -178.7%에 비해서는 크게 안정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보험사들을 제외한 손해보험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8.9%로 높아짐.
- 합산비율은 100.5%로 전년동기 112.3%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손해액 감소 폭이 원수보험료 감소 폭보다 컸기 때문임.
- 모기지 및 금융보증 보험사들을 제외한 손해율은 99.1%로 낮아짐.

■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사망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 등에 대한 분기별 통계의 입수가 가능함.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단체인 Blue Shield, Blue Cross 와 지역의료공급제도(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가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제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확정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아래와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기관
-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 일본 동향¹⁾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09 2/4분기 생명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등 개인성보험의 지속적인 호조세와 단체성보험의 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19조 699억엔을 시현함.
- 개인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호조세를 보이는 등 전년 동기대비 7.2% 증가한 16조 92억엔을 기록해 전분기의 회복세를 이어감.
 - 사망보험은 가장 비중이 큰 정기보험이 성장 정체(전년동기대비 -1.1%)를 보였으나, 종신보험 및 정기부종신보험²⁾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6.3%, 32.9% 급증한 데 힘입어 4.6%의 성장을 시현함.
 - 생사혼합보험은 양로보험이 전년동기대비 228.5% 큰 폭으로 성장한 데 힘입어 20.8% 증가함.
- 개인연금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정액연금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변액연금보험 판매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한 2조 1,377억엔을 기록함.
- 단체성보험의 신규계약액은 단체보험 및 단체연금보험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37.2% 증가한 9,230억엔을 시현함.

1)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2) 정기부종신보험(定期附終身保險)은 피보험자의 일생동안 보장이 계속되는 종신보험에 정기보험을 일정기간(20년 또는 60세 등) 추가해 그 기간 내의 사망보장을 강화한 혼합형 보험으로 유족보장을 주목적으로 함.

<표 1>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2/4	3/4	4/4	연간	1/4	2/4
개인성 보험	개 인	금 액	149,366	145,609	135,135	566,688	144,789	160,092
		성장률	-5.2	-7.1	-9.5	-5.6	6.0	7.2
		구성비	83.6	86.4	83.3	82.7	83.2	84.0
	- 사 망	금 액	122,672	121,503	111,963	469,295	114,906	128,317
		성장률	-3.7	-4.9	-6.6	-3.6	1.5	4.6
		구성비	68.6	72.1	69.0	68.5	66.1	67.3
	- 생사혼합	금 액	25,277	22,644	21,413	91,320	28,635	30,530
		성장률	-12.3	-17.8	-22.9	-15.5	30.2	20.8
		구성비	14.1	13.4	13.2	13.3	16.5	16.0
	- 생 존	금 액	1,416	1,462	1,759	6,073	1,249	1,245
		성장률	9.4	5.7	5.5	8.0	-13.0	-12.1
		구성비	0.8	0.9	1.1	0.9	0.7	0.7
	개인연금	금 액	22,640	14,926	16,903	74,150	20,329	21,377
		성장률	-2.0	-18.5	-17.9	-8.7	3.3	-5.6
		구성비	12.7	8.9	10.4	10.8	11.7	11.2
단체성 보험	단 체	금 액	6,715	7,931	10,209	44,112	8,765	9,218
		성장률	-35.8	-20.7	-41.5	-11.4	-55.9	37.3
		구성비	3.8	4.7	6.3	6.5	5.0	4.8
	단체연금	금 액	3	9	17	39	41	6
		성장률	-89.1	74.0	173.1	-77.3	303.0	98.2
		구성비	-	-	-	-	-	-
	기 타*	금 액	4	3	3	14	7	6
		성장률	12.5	-64.2	-8.5	-28.3	52.4	45.1
		구성비	-	-	-	-	-	-
생보 계		금 액	178,727	168,476	162,267	685,004	173,931	190,699
		성장률	-6.5	-8.9	-13.4	-6.4	-1.3	6.7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기타는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의 실적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09 2/4분기말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국채·주식 등 유가증권 가치 증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0.3% 증가한 315조 6,769억엔을 시현함.

○ 운용자산 규모는 FY2009 1/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동기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함.

○ 총자산의 약 75%를 차지하는 유가증권 규모는 전분기대비 1.1% 증대됨.

- 사채를 제외한 국채, 지방채, 주식, 외국증권은 각각 0.4%, 1.8%, 1.3%, 2.3% 증가함.

<표 2>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2/4		3/4		4/4		1/4		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현금 및 예금	46,067	1.4	43,055	1.4	50,268	1.6	38,250	1.2	47,499	1.5
단기자금	34,641	1.1	35,480	1.1	27,807	0.9	27,602	0.9	25,502	0.8
매입금전채권	44,235	1.4	41,894	1.3	33,662	1.1	32,425	1.0	32,035	1.0
금전신탁	32,491	1.0	29,501	0.9	25,888	0.8	27,085	0.9	27,164	0.9
유가증권	2,400,668	74.1	2,318,383	73.5	2,302,089	73.9	2,358,325	74.9	2,383,830	75.5
- 국채	1,212,542	37.4	1,207,632	38.3	1,238,910	39.7	1,234,172	39.2	1,238,690	39.2
- 지방채	92,467	2.9	94,965	3.0	98,160	3.1	101,358	3.2	103,181	3.3
- 사채	282,991	8.7	280,192	8.9	274,568	8.8	274,146	8.7	273,613	8.7
- 주식	223,403	6.9	164,802	5.2	156,319	5.0	182,101	5.8	184,445	5.8
- 외국증권	435,995	13.5	420,944	13.3	400,362	12.8	414,305	13.2	423,646	13.4
대출금	523,674	16.2	521,169	16.5	511,181	16.4	505,579	16.1	491,933	15.6
유형 고정자산	65,986	2.0	66,455	2.1	66,038	2.1	66,794	2.1	67,392	2.1
운용자산	3,164,007	97.6	3,064,651	97.2	3,028,928	97.2	3,066,225	97.4	3,084,342	97.7
총자산	3,241,049	100.0	3,154,007	100.0	3,117,200	100.0	3,146,548	100.0	3,156,769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비중은 총자산 대비임.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09 2/4분기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과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성장해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한 1조 8,950억엔에 그침.

○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8%, 18.6% 감소했으며, 해상보험은 적하보험의 극심한 침체로 29.9%의 부진을 보임.

<표 3>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2/4	3/4	4/4	연간	1/4	2/4
화재	보험료	3,353	3,740	3,515	14,023	3,398	3,292
	성장률	2.4	1.6	0.6	0.0	-0.5	-1.8
	구성비	16.9	19.0	18.7	17.6	16.8	17.4
해상	보험료	638	555	457	2,295	479	447
	성장률	4.7	-9.4	-26.7	-7.4	-25.6	-29.9
	구성비	3.2	2.8	2.4	2.9	2.4	2.4
운송	보험료	167	174	160	692	171	149
	성장률	1.4	-0.6	-6.9	-0.8	-10.6	-10.3
	구성비	0.8	0.9	0.8	0.9	0.8	0.8
자동차	보험료	8,410	8,687	8,443	34,475	8,772	8,314
	성장률	-1.3	-1.5	-1.5	-1.4	-1.8	-1.1
	구성비	42.4	44.1	44.8	43.2	43.5	43.9
상해	보험료	3,189	2,607	2,312	11,099	2,733	2,597
	성장률	1.6	-16.2	-14.0	-7.9	-8.6	-18.6
	구성비	16.1	13.2	12.3	13.9	13.5	13.7
특종	보험료	2,138	1,981	2,056	8,534	2,512	2,180
	성장률	6.3	3.8	1.0	3.0	6.5	2.0
	구성비	10.8	10.1	10.9	10.7	12.5	11.5
자배책	보험료	1,961	1,934	1,890	8,684	2,108	1,971
	성장률	-28.7	-31.2	0.3	-16.6	-27.3	0.5
	구성비	9.9	9.8	10.0	10.9	10.4	10.4
합계	보험료	19,855	19,679	18,834	79,801	20,173	18,950
	성장률	-3.0	-6.8	-3.2	-3.7	-5.9	-4.6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의 54.3%(자동차보험 43.9%, 자동차배상책임보험 10.4%)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부문의 침체가 지속됨.
- 경기침체와 2009년 초에 단행된 자동차보험 요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 전년동기대비 0.5% 성장하는 데 그침.
- 또한 종합보험 성격을 갖는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도 1.1% 감소함.
- 특종보험은 배상책임보험, 노동자재해보험, 신용보험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 성장함.

<지급보험금 현황>

- FY2009 2/4분기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특종보험 부문에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0% 늘어난 1조 862억엔을 시현함.
-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2.8% 감소함.
- 특종보험은 보증보험 부문의 지급보험금이 전년동기대비 180.9% 급증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1% 증가함.
- 한편, 화재보험과 운송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0.4%, 22.3% 감소한 반면, 해상보험과 상해보험은 각각 4.1%, 0.6% 증가함.

<표 4> 일본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2/4	3/4	4/4	연간	1/4	2/4
화재	보험금	963	1,077	1,069	3,979	822	863
	증가율	-8.1	5.1	14.1	0.1	-5.6	-10.4
	구성비	8.9	9.7	9.3	9.1	7.8	7.9
해상	보험금	268	312	325	1,145	243	279
	증가율	1.5	19.7	5.2	4.3	1.2	4.1
	구성비	2.5	2.8	2.8	2.6	2.3	2.6
운송	보험금	82	74	68	291	64	64
	증가율	12.2	-8.4	-10.6	-4.3	-3.5	-22.3
	구성비	0.8	0.7	0.6	0.7	0.6	0.6
자동차	보험금	5,264	5,574	5,515	21,559	5,196	5,263
	증가율	2.7	-0.5	-0.7	0.4	-0.2	0.0
	구성비	48.9	50.0	48.0	49.2	49.6	48.5
상해	보험금	856	908	831	3,430	861	861
	증가율	11.4	5.2	1.3	6.0	3.0	0.6
	구성비	8.0	8.1	7.2	7.8	8.2	7.9
특종	보험금	1,308	1,100	1,679	5,305	1,321	1,571
	증가율	25.1	-8.0	48.2	19.1	18.2	20.1
	구성비	12.2	10.8	14.6	12.1	12.6	14.5
자배책	보험금	2,018	2,006	2,009	8,077	1,976	1,962
	증가율	-1.0	-4.3	-3.3	-2.0	-3.3	-2.8
	구성비	18.8	18.0	17.5	18.4	18.8	18.1
합계	보험금	10,758	11,151	11,497	43,787	10,483	10,862
	증가율	3.8	-0.7	5.4	2.3	1.0	1.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금, 신종보험을 각각 지급보험금,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09 2/4분기말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대출금 및 주식 보유액의 감소로 전분기대비 0.3% 하락한 30조 9,582억엔을 시현함.

○ 채권가치는 전분기대비 4.1% 증가했으나, 국내 및 외국주식 가치는 각각 2.0%, 0.1% 감소해 전체 유가증권 규모는 0.1% 증가하는 데 그침.

○ 유가증권 다음으로 비중이 큰 대출금 규모는 전분기대비 1.9% 감소함.

<표 5>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2/4		3/4		4/4		1/4		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현금 및 예금	7,377	2.3	6,747	2.2	8,896	3.0	7,365	2.4	8,297	2.7		
단기자금	4,269	1.3	5,609	1.8	5,775	1.9	3,282	1.1	3,847	1.2		
현선거래자금	2,132	0.7	1,784	0.6	4,149	1.4	4,354	1.4	2,569	0.8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	-	1,508	0.5	-	-	-	-	-	-		
매입금전채권	12,722	3.9	3,740	1.2	4,048	1.4	8,861	2.9	9,163	3.0		
금전신탁	1,507	0.5	1,273	0.4	953	0.3	1,053	0.3	1,110	0.4		
유가증권	국채	46,837	14.4	44,855	14.7	43,936	14.7	47,378	15.3	49,307	15.9	
	지방채	7,033	2.2	6,966	2.3	6,548	2.2	6,305	2.0	6,293	2.0	
	회사채	41,988	12.9	40,189	13.2	39,153	13.1	38,984	12.6	39,109	12.6	
	주식	81,773	25.1	65,369	21.5	61,469	20.5	72,367	23.3	70,886	22.9	
	외국증권	50,118	15.4	50,541	16.6	48,687	16.3	50,184	16.2	50,143	16.2	
	기타증권	6,373	2.0	5,505	1.8	4,875	1.6	4,861	1.6	4,510	1.5	
	소계	234,123	71.8	213,427	70.2	204,668	68.4	220,080	70.9	220,248	71.1	
대출금	약관대출	707	0.2	697	0.2	688	0.2	684	0.2	678	0.2	
	일반대출	25,960	8.0	25,985	8.5	24,818	8.3	24,500	7.9	24,028	7.8	
	소계	26,667	8.2	26,683	8.8	25,506	8.5	25,184	8.1	24,707	8.0	
부동산	11,269	3.5	11,208	3.7	11,173	3.7	11,120	3.6	11,212	3.6		
운용자산	300,066	92.1	271,978	89.4	265,168	88.6	281,299	90.6	281,154	90.8		
기타자산	25,865	7.9	32,168	10.6	34,243	11.4	29,285	9.4	28,427	9.2		
총자산	325,932	100.0	304,147	100.0	299,411	100.0	310,585	100.0	309,582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비중은 총자산 대비임.

2) 기타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 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狀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會社總合資金運用狀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의 경우,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험과 단체정보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정보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정보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해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정보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해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 중국 동향1)

가. 주요 경영지표

<수입보험료 현황>

□ 2009년 3/4분기(7~9월)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손해보험 부문의 고성장과 인보험 부문의 성장률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한 2,594억 위안을 시현함.

○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자동차보험 부문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33.4% 성장한 722억 위안의 실적을 보임.

- 30%를 상회하는 성장률은 2007년 3/4분기 33.4%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임.

<표 1>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 분		CY2008			CY2009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료	541	496	2,337	719	793	722
	성장률	15.8	11.2	17.0	12.0	20.6	33.4
인보험	보험료	1,781	1,348	7,447	2,558	1,916	1,872
	성장률	55.9	6.9	47.8	9.4	-3.3	5.1
- 생명보험	보험료	1,596	1,202	6,658	2,359	1,701	1,663
	성장률	60.1	7.7	49.2	10.7	-1.6	4.2
- 건강보험	보험료	132	103	585	140	154	143
	성장률	44.3	-1.0	52.4	-7.2	-22.6	8.4
- 상해보험	보험료	52	43	204	59	61	66
	성장률	-2.9	4.3	7.1	5.6	15.0	25.6
합계	보험료	2,322	1,844	9,784	3,277	2,709	2,594
	성장률	44.2	8.0	39.1	10.0	2.7	11.7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의상해보험을 각각 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 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주력 종목인 생명보험의 성장 회복과 상해보험의 지속적인 고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1,872억 위안을 기록함.
- 전분기에 2004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생명보험은 배당형보험과 같은 투자형상품의 판매 호조로 성장세를 회복함.
- 건강보험은 보장성보험의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8.4% 성장해 3분기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상해보험은 2008년 1/4분기 26.3%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25.6%의 성장을 시현함.

〈지급보험금 현황〉

- 2009년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지급보험금은 손해보험 부문의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한 734억 위안으로 집계됨.
-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자동차보험 부문의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해 전년 동기대비 13.1% 증가한 402억 위안을 기록함.
- 인보험의 지급보험금 규모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명보험 부문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332억 위안에 그침.
- 전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생명보험의 지급보험금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함.
- 반면,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은 모두 전년동기대비 각각 26.0%, 4.6% 증가해 전분기 증가세가 이어짐.

<표 2> 중국 보험산업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 분		CY2008			CY2009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금	356	437	1,418	351	363	402
	증가율	40.1	36.4	39.0	21.7	7.7	13.1
인보험	보험금	328	307	1,553	472	421	332
	증가율	41.1	1.8	24.8	-15.0	16.2	1.3
- 생명보험	보험금	266	240	1,315	403	355	258
	증가율	43.0	-4.4	23.5	-20.1	16.4	-3.1
- 건강보험	보험금	45	50	175	54	52	56
	증가율	52.5	51.2	50.0	56.9	12.8	26.0
- 상해보험	보험금	17	17	63	15	15	17
	증가율	-0.2	-3.4	-1.4	-9.2	24.3	4.6
합계	보험금	683	744	2,971	824	784	734
	증가율	40.6	19.6	31.2	-2.4	12.1	7.5

-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외상해보험을 각각 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요 경영실적>

□ 2009년 3/4분기 보험산업의 총수입보험료와 사업비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1.7%, 17.4% 증가함.

○ 총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의 지속적인 고성장세와 생명보험의 침체 둔화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회복함.

○ 수입보험료 규모가 10% 이상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규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임.

□ 총자산 규모는 은행 예치금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2.2% 증가한 3조 7,880억 위안에 달함.

○ 채권, 주식 등 투자금 규모는 글로벌 금융시장 회복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에 힘입어 4.1% 증가함.

- 반면, 은행 예치금 규모는 전분기대비 3.7% 감소함.

<표 3> 중국 보험산업 주요 경영실적 현황

(단위: 억 위안, %)

구 분		CY2008			CY2009		
		3/4	4/4	연간	1/4	2/4	3/4
총수입보험료	보험료	2,322	1,844	9,784	3,277	2,709	2,594
	증가율	44.2	8.0	39.1	10.0	2.7	11.7
사업비	금 액	260	327	1,080	262	281	305
	증가율	2.4	7.5	13.9	11.5	9.2	17.4
예치금	금 액	7,040	8,088	8,088	10,005	10,445	10,058
	증가율	0.9	14.9	24.1	23.7	4.4	-3.7
투자금	금 액	21,722	22,465	22,465	22,178	23,280	24,232
	증가율	8.1	3.4	11.2	-1.3	5.0	4.1
총자산	금 액	31,854	33,418	33,418	35,435	37,072	37,880
	증가율	5.4	4.9	15.2	6.0	4.6	2.2

주 : 1) 총수입보험료 및 사업비는 실적치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은 누적치임.

2) 총수입보험료, 사업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지역별 및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지역별 시장점유율>

□ 2009년 3/4분기 지역별 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광둥성이 인보험과 손해보험 부문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해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광둥성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 손해보험 부문이 전년동기대비 23.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금융위기 이후 부진했던 인보험 부문도 8.1% 성장세로 전환됨.

<표 4> 중국 지역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 위안, %)

구 분	CY2008						CY2009					
	3/4		4/4		연간		1/4		2/4		3/4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북경	139	6.0	125	6.8	586	6.0	169	5.2	173	6.4	169	6.5
천진	37	1.6	28	1.5	176	1.8	42	1.3	38	1.4	35	1.4
하북	114	4.9	89	4.8	481	4.9	177	5.4	160	5.9	135	5.2
료닝	80	3.4	57	3.1	329	3.4	95	2.9	86	3.2	85	3.3
대련	25	1.1	21	1.1	107	1.1	33	1.0	28	1.0	26	1.0
상해	138	5.9	119	6.4	600	6.1	201	6.1	150	5.5	149	5.7
강소	159	6.8	142	7.7	775	7.9	315	9.6	199	7.3	202	7.8
절강	104	4.5	93	5.1	489	5.0	153	4.7	136	5.0	128	4.9
영파	21	0.9	19	1.0	87	0.9	29	0.9	27	1.0	27	1.0
복건	58	2.5	43	2.4	244	2.5	87	2.6	68	2.5	62	2.4
하문	12	0.5	9	0.5	47	0.5	17	0.5	14	0.5	14	0.5
산둥	142	6.1	113	6.1	571	5.8	178	5.4	177	6.5	168	6.5
칭도	24	1.0	21	1.2	103	1.0	30	0.9	30	1.1	27	1.0
광둥	210	9.0	148	8.0	884	9.0	284	8.7	220	8.1	234	9.0
심천	59	2.6	53	2.9	241	2.5	73	2.2	67	2.5	61	2.4
해남	7	0.3	5	0.3	30	0.3	9	0.3	9	0.3	7	0.3
산서	63	2.7	45	2.4	261	2.7	88	2.7	73	2.7	69	2.7
길림	43	1.9	29	1.6	159	1.6	52	1.6	52	1.9	44	1.7
흑룡강	63	2.7	48	2.6	251	2.6	88	2.7	78	2.9	59	2.3
안휘	72	3.1	55	3.0	297	3.0	127	3.9	76	2.8	76	2.9
강서	39	1.7	30	1.6	171	1.8	65	2.0	43	1.6	41	1.6
하남	130	5.6	91	4.9	519	5.3	155	4.7	137	5.1	137	5.3
호북	80	3.5	61	3.3	317	3.2	110	3.4	90	3.3	86	3.3
호남	77	3.3	62	3.4	312	3.2	104	3.2	87	3.2	81	3.1
중경	50	2.1	37	2.0	201	2.0	79	2.4	56	2.1	56	2.1
사천	134	5.8	96	5.2	494	5.1	175	5.3	123	4.5	137	5.3
귀주	20	0.8	16	0.9	80	0.8	25	0.8	24	0.9	24	0.9
운남	38	1.6	33	1.8	165	1.7	57	1.7	44	1.6	41	1.6
티벳	1	0.0	1	0.0	3	0.0	1	0.0	1	0.0	1	0.0
섬서	49	2.1	44	2.4	218	2.2	73	2.2	66	2.4	59	2.3
감숙	22	0.9	22	1.2	97	1.0	34	1.0	29	1.1	25	1.0
칭해	3	0.1	3	0.2	14	0.1	5	0.1	5	0.2	4	0.2
영하	8	0.3	7	0.4	32	0.3	11	0.3	11	0.4	9	0.4
신강	31	1.3	26	1.4	153	1.6	41	1.3	50	1.8	32	1.2
내몽고	39	1.7	28	1.5	141	1.4	43	1.3	45	1.7	48	1.9
광서	29	1.3	24	1.3	133	1.4	48	1.4	36	1.3	34	1.3
그룹본사	2	0.1	3	0.2	15	0.2	4	0.1	3	0.1	2	0.1
합계	2,322	100.0	1,844	100.0	9,784	100.0	3,277	100.0	2,709	100.0	2,594	100.0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그룹본사는 특정 지역에 귀속되지 않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강소성은 전년동기대비 27.2% 성장해 광동성에 이어 2위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
- 인보험 및 손해보험 부문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3.7%, 37.1%로 고성성장함.
- 북경시와 산둥성 역시 인보험과 손해보험 부문 모두 견조한 성장률을 보이며 각각 6.5%의 시장점유율을 보임.
- 상해시는 전년동기대비 8.3% 성장해 5.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09년 3/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에 대한 회사별 점유율은 상위 5개사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데 비해, 중소형사 및 외자계는 소폭 증가함.
-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6.2%로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함.
- 2위사인 평안생명의 시장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2.9%p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최대 인보험회사인 중국생명이 3.0%p, 3~4위권인 타이핑양생명과 신화생명이 각각 0.5%p의 점유율 하락을 보임.
- 반면, 중소형사와 외자계의 시장점유율은 18.6%, 5.3%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2%p, 1.0%p 확대됨.
- AIA(友邦保險)는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한 1.1%의 비중을 차지해 외자계 인 보험회사로는 가장 큰 점유율을 기록함.
- 손해보험 부문의 회사별 점유율의 경우, 상위 3개사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와 외자계의 점유율은 감소함.
-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하여 62.8%를 기록함.
-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과 3위권 회사인 타이핑양재산보험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0%p, 0.1%p 감소했으나, 2위권인 평안재산 보험은 2.6%p 확대됨.
- 중소형사 및 외자계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2%p, 0.3%p 감소함.

- 외자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티스(美亞財産, AIG에서 개명)의 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외자계의 시장점유율은 감소세에 있음.

<표 5> 중국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CY2008			CY2009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77.2	77.1	78.5	80.2	77.2	76.2
		중소형사	18.4	16.9	16.5	15.3	17.8	18.6
		중국계 합계	95.7	94.0	95.1	95.4	95.0	94.7
	외자계 합계		4.3	6.0	4.9	4.6	5.0	5.3
손해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2.3	61.1	63.9	67.3	64.8	62.8
		중소형사	36.4	37.6	35.0	31.6	34.2	36.2
		중국계 합계	98.7	98.7	98.8	98.9	99.0	99.0
	외자계 합계		1.3	1.3	1.2	1.1	1.0	1.0

- 주 :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소형사와 현격한 점유율 차이가 나는 회사들로 중국생명(CY09 3/4분기 기준 35.1%), 평안생명(16.3%), 신화생명(9.1%), 타이평양생명(8.5%), 태이강생명(7.2%) 등임.
 3) 손해보험의 상위 3개사는 중소형사와 현격한 점유율 차이가 나는 회사들로 중국인민재산(CY09 3/4분기 기준 38.3%), 평안재산(13.5%), 타이평양재산(11.1%) 등임.
 4)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5)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6)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통계 자료를 편집

■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지역별 시장점유율 분석은 전국수입보험료현황표(全國各地區保費收入情況表)의 통계를 활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의 통계로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변액, 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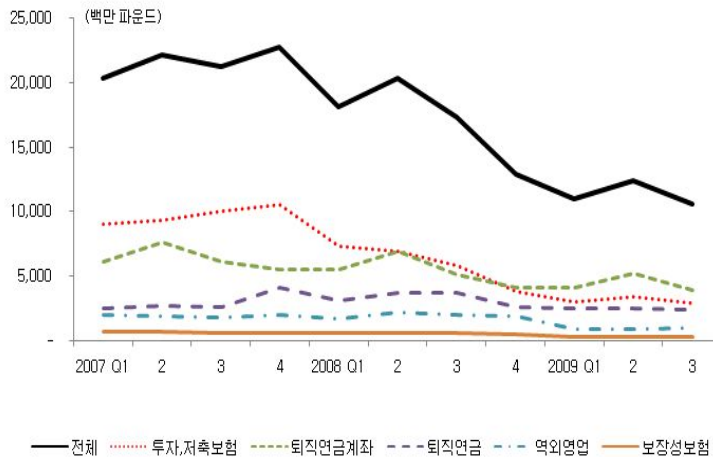
◆ 유럽 동향¹⁾

가. 영국의 생명보험시장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 영국 생명보험 산업의 신규보험료는 2008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나 최근 3분기 동안에는 이러한 추세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 회복의 기미가 나타남.
- 신규보험료의 하락세는 비중이 큰 투자·저축보험과 퇴직연금계좌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투자·저축보험료는 2009년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0.2% 하락하였으며 퇴직연금계좌는 3/4분기에 23.8% 하락함.
- 그러나 신규보험료는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3.1%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횡보하는 추세로 극심한 침체 상황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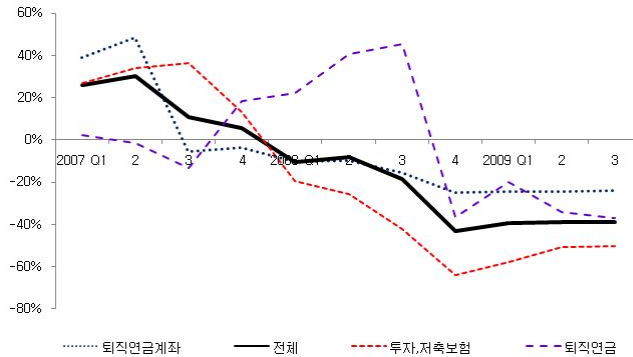
<그림 1> 영국 생명보험 산업의 신규보험료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 1) 유럽 보험시장 동향은 영국과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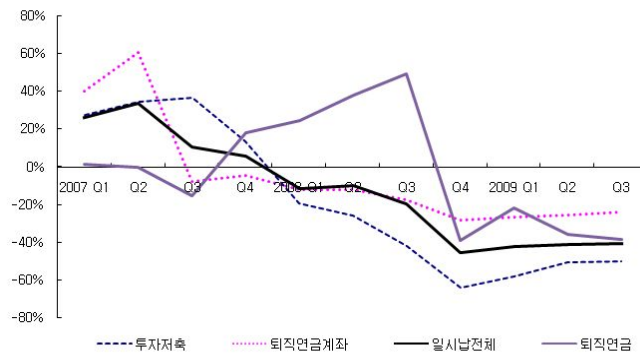
<그림 2> 영국 생명보험 산업의 신규보험료 증가율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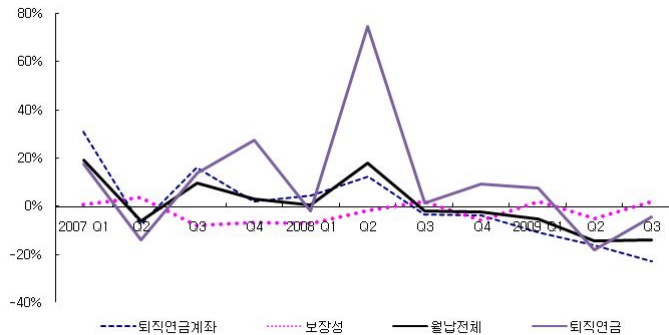
- 납입방법에 따른 신규보험료 추세를 살펴볼 때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시납보험과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할납보험 모두 급격한 하락세가 둔화됨.
- 신규보험료 중 약 90%를 차지하는 일시납보험료는 경기불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2008년 4/4분기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였지만, 최근 하락세가 크게 둔화됨.
- 일시납보험의 하락세를 주도한 보험은 투자·저축보험으로서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하향세를 보이다가 금융위기에 하락폭이 더욱 커졌으나, 최근에는 하락폭이 크게 둔화됨.

<그림 3>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일시납 증가율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그림 4>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분할납 증가율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 분할납보험료의 경우 보장성보험은 금융위기이후에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데 비해 퇴직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은 축소됨.
- 특히,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분할납 신규보험료가 22.7% 감소함.

<종목별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 신규보험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연금계좌와 투자·저축보험의 하락세는 여전한 모습이나 하락폭은 크게 둔화되어 점차 안정되는 상황임.
- 퇴직연금계좌는 2008년 4/4분기를 저점으로 최근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3분기 연속 20%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신규보험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4분기의 42.2%에서 3/4분기에 37.2%까지 급격히 감소함.
- 이와 같은 하락은 분할납보험료보다는 정기상황에 민감한 일시납보험료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금융위기 동안 가장 크게 하락세를 보인 투자·저축성보험은 2009년 1/4분기(전년동기대비 -58.2%)를 저점으로 3/4분기에 50.2% 하락하는 등 하락폭이 감소하는 모습임.
- 투자·저축성보험의 회복조짐은 경기회복 기대감에 영향을 받은 일시납보험료의 하락폭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보임.

- 퇴직연금 신규보험료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모습임.
- 신규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분할납은 80% 정도를 차지하며 전분기대비 2.2% 상승하여 경기불황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역외퇴직연금, 역외저축 등으로 구성된 역외영업은 2009년 2/4분기(전년동기대비 -56.5%)를 저점으로 3/4분기에는 하락폭이 둔화됨.

<표 1> 영국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파운드, %)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6,952	5,816	3,788	23,844	3,049	3,425	2,898
	증가율	-25.7	-42.1	-64.1	-38.8	-58.2	-50.7	-50.2
	비중	34.3	33.7	29.3	34.7	27.7	27.6	27.4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6,892	5,174	4,167	21,751	4,184	5,218	3,944
	증가율	-9.5	-15.6	-24.8	-14.5	-24.2	-24.1	-23.8
	비중	34.0	29.9	32.2	31.7	38.0	42.2	37.2
퇴직연금	보험료	3,691	3,746	2,605	13,085	2,439	2,431	2,362
	증가율	40.7	45.4	-36.7	10.8	-19.9	-34.1	-36.9
	비중	18.2	21.7	20.1	19.1	22.2	19.6	22.3
역외영업	보험료	2,173	1,998	1,902	7,796	988	946	1,031
	증가율	17.9	10.5	-2.4	2.4	-42.6	-56.5	-48.4
	비중	10.7	11.6	14.7	11.4	9.0	7.6	9.7
보장성보험	보험료	587	543	472	2,167	346	354	356
	증가율	-10.3	-11.7	-14.5	-11.6	-38.8	-39.6	-34.4
	비중	2.9	3.1	3.6	3.2	3.1	2.9	3.4
합계	보험료	20,295	17,278	12,935	68,644	11,006	12,374	10,592
	증가율	-8.1	-18.4	-43.1	-20.5	-39.3	-39.0	-38.7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나. 이탈리아

<생명보험>

- 2009년 3/4분기 이탈리아의 생명보험 신계약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90.8% 상승한 150.6억 유로를 기록함.
- 연납 및 분할납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3%, 4.0% 감소한 반면, 일시납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7.4% 증가함.
- 그 결과 전체 신계약 보험료 중 일시납보험료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3.2%p 상승하여 96.7%를 차지함.

<표 2> 이탈리아 생명보험 신계약보험료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구 분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연납 (Annui)	보험료	163	160	128	184	635	165	184	124
	증가율	-6.0	-10.1	-4.5	-0.7	-5.3	0.8	15.1	-3.3
	구성비	1.4	1.3	1.6	1.9	1.5	1.3	1.1	0.8
일시납 (Unici)	보험료	10,888	11,256	7,378	8,796	38,318	12,079	15,681	14,564
	증가율	-25.5	-22.6	-7.4	-14.8	-19.3	10.9	39.3	97.4
	구성비	92.5	92.8	93.5	89.5	92.1	94.6	95.7	96.7
분할납 (RSP)	보험료	718	715	384	851	2,668	525	517	369
	증가율	-1.4	-17.8	-23.5	-0.5	-9.7	-26.9	-27.6	-4.0
	구성비	6.1	5.9	4.9	8.7	6.4	4.1	3.2	2.5
전 체	보험료	11,771	12,131	7,891	9,832	41,625	12,770	16,383	15,057
	증가율	-24.2	-22.2	-8.3	-13.5	-31.2	8.5	35.1	90.8

주 : 보험료는 생명보험(개인)의 신규실적이며, 연납(Annui; Annual premiums), 일시납(Unici: Single premiums), 분할납(Ricorrenti; Recurrent single premiums)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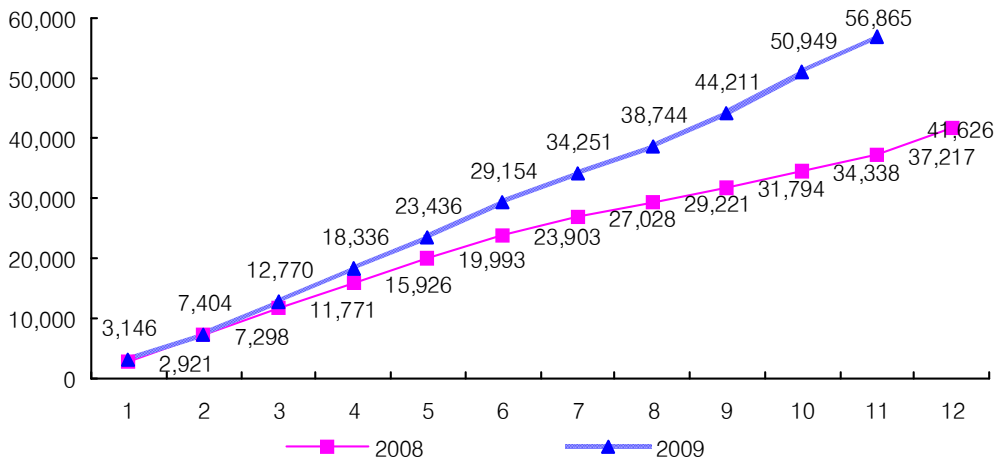
자료: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2009년 들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2009년 11월 기준 누적 수입보험료 실적은 568.7억 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52.8%의 성장률을 기록함.

<그림 5> 이탈리아 월별 생명보험 보험료 실적(누적)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 elaborazione ANIA su dati ISVAP

□ 2009년 3/4분기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Ramo I)과 카피탈리자시웅(Ramo V)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상승한 반면, 전통형 상품 및 투자형 상품(Ramo III)과 기타 부문(Ramo VI)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Ramo I)과 카피탈리자시웅(Ramo V)의 보험료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04.0%, 48.8% 성장한 122.1억 유로, 4.3억 유로를 시현함.
- 반면, 전통형 및 투자형(Ramo III)과 기타 부문(Ramo VI)의 보험료는 24.0억 유로로 전년동기대비 4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이탈리아 생명보험 종목별 신계약 보험료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구 분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 (Ramo I)	보험료	4,834	3,022	7,214	19,350	10,032	13,747	12,211
	성장률	5.6	31.5	78.9	29.9	134.4	184.4	304.0
	구성비	39.9	38.3	73.4	46.5	78.6	83.9	81.1
전통형 및 투자형 (Ramo III)	보험료	7,061	4,570	2,221	21,078	2,099	2,102	2,404
	성장률	-31.9	-24.7	-68.6	-38.2	-70.9	-70.2	-47.4
	구성비	58.2	57.9	22.6	50.6	16.4	12.8	16.0
- 전통형	보험료	4,139	1,549	1,701	10,922	1,328	1,191	1,109
	성장률	2.9	-31.6	-42.0	-16.1	-62.4	-71.2	-28.4
	구성비	34.1	19.6	17.3	26.2	10.4	7.3	7.4
- 보장성	보험료	43	72	7	142	14	27	23
	성장률	-80.4	-40.6	-88.8	-91.6	-21.3	-35.8	-68.2
	구성비	0.4	0.9	0.1	0.3	0.1	0.2	0.2
- 보 증	보험료	333	67	34	779	21	81	78
	성장률	27.2	-28.7	-76.7	-16.2	-93.6	-75.5	16.5
	구성비	2.8	0.9	0.4	1.9	0.2	0.5	0.5
- 변 액	보험료	2,543	2,8808	477	9,234	734	800	1,192
	성장률	-56.6	-19.8	-87.8	-49.9	-78.0	-68.5	-58.6
	구성비	21.0	36.5	4.9	22.2	5.7	4.9	7.9
기타 (Ramo IV)	보험료	0.1	0.2	0.4	2.0	0.2	0.3	0.3
	성장률	46.8	255.1	48.9	322.8	-84.5	157.1	44.2
	구성비	0.0	0.0	0.0	0.0	0.0	0.0	0.0
카피탈리자- 시용 (Ramo V)	보험료	227	290	378	1,136	633	527	432
	성장률	-54.4	30.4	57.3	-40.8	163.9	131.6	48.8
	구성비	1.9	3.7	3.9	2.7	5.0	3.2	2.9
기타 (Ramo VI)	보험료	7.7	7.4	17.4	58.1	5.6	5.6	8.6
	성장률	-94.8	-1.7	-10.8	-68.5	-77.9	-27.6	16.0
	구성비	0.1	0.1	0.2	0.1	0.0	0.0	0.1
합 계	보험료	12,131	7,891	9,832	41,626	12,770	16,383	15,057
	성장률	-22.2	-8.3	-13.5	-18.5	8.5	35.1	90.8

주 : 이탈리아 생명보험은 크게 Ramo I-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 Ramo III-펀드, 주가지수 연계 된 생보 상품, Ramo V-카피탈리자시용(순수투자형 상품), Ramo VI&VI-기타로 구성되며, A)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B)는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2009년 3/4분기 생명보험의 누적 신계약 건수는 약 282만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약 4만 건이 감소함.

- 전통형 및 투자형 부문(RamoⅢ)과 기타 부문(RamoⅥ)의 계약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 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Ramo I) 부문이 성장한 데 힘입어 전체 계약이 전년동기대비 11.9% 증대됨.

<표 4> 이탈리아 종목별 누적 신계약건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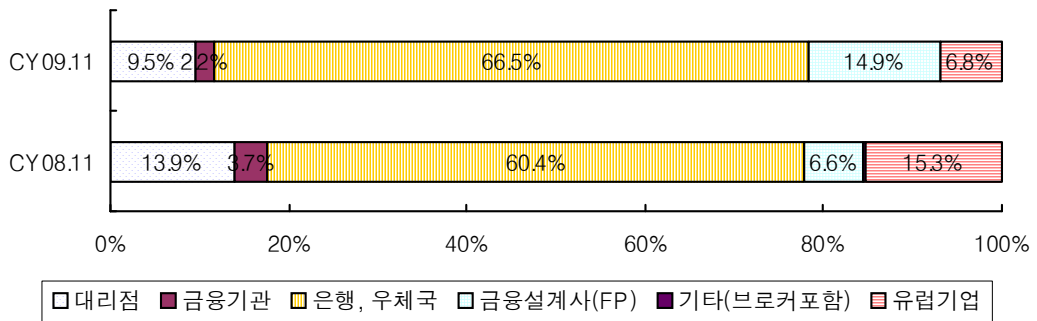
(단위: 건, %)

구 분	2008년 11월		2009년 11월		증가율
	계약건수	비중	계약건수	비중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	1,849,743	66.5	2,434,050	86.2	31.6
전통형 및 투자형(RamoⅢ)	895,071	32.2	336,892	11.9	-62.4
- 전통형	333,775	12.0	154,737	5.5	-53.6
- 보장성	4,689	0.2	6,739	0.2	43.7
- 보 증	59,113	2.1	30,767	1.1	-48.0
- 변 액	497,494	17.9	144,649	5.1	-70.9
기타(RamoⅣ)	399	0.0	819	0.0	105.3
카피탈리자시옹(RamoⅤ)	20,871	0.8	41,668	1.5	99.6
기타(RamoⅥ)	15,105	0.5	9,226	0.3	-38.9
합 계	2,781,189	100.0	2,822,655	100.0	1.5
- 연금(개인)	223,822	8.0	166,087	5.9	-25.8
- 순수보장성	678,691	24.4	554,914	19.7	-18.2
- 기 타	1,878,187	67.5	2,101,654	74.5	11.9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이탈리아 생명보험 상품의 주요 판매채널은 은행 및 우체국이 6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설계사 14.9%, 대리점 9.5%, 유럽기업 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은행 및 우체국, 금융설계사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1%p, 8.3%p 상승한 66.5%, 14.9%인 반면, 유럽기업과 대리점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8.5%p, 4.4%p 감소한 6.8%, 9.5%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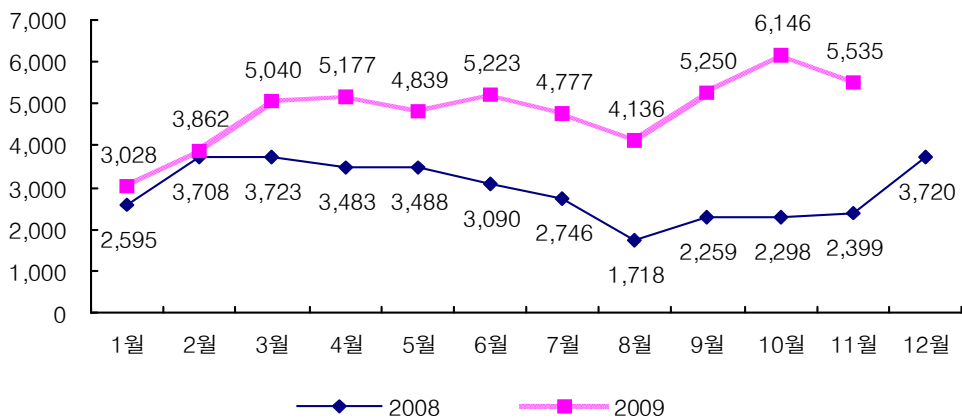
<그림 6> 이탈리아 주요 판매채널



□ 회사그룹별 월별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사의 경우 2009년 들어 보험료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크게 확대되었으나, 외국사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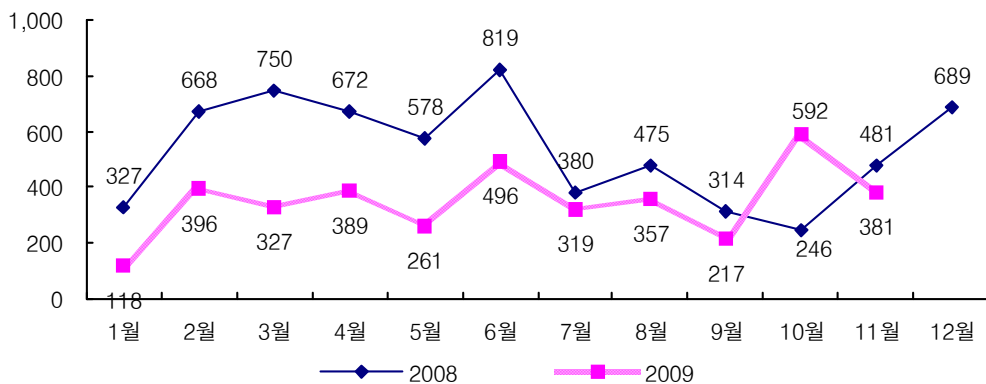
<그림 7> 이탈리아 국내사 월별 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유로)



<그림 8> 이탈리아 외국사 월별 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 elaborazione ANIA su dati ISVAP

■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www.abi.org.uk)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계약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계약을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의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생명보험의 신규계약 현황 분석은 일시납 신규계약 종목별 통계와 월납 신규계약 종목별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함.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신규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개인 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 이탈리아 보험산업은 이탈리아보험협회(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www.ania.it)에서 월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계약 통계(Statistica mensile sulla 'nuova produzione' dei rami vita)를 바탕으로 기술함.
 - 상품구분은 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Ramo I; Assicurazioni sulla durata della vita umana), 펀드 및 주가지수 연계된 생보 상품(Ramo III; Assicurazioni connesse a fondi, indiciazionari o altri valori di riferimento), 기타(Ramo IV&Ramo VI; Assicurazioni complementari), 카필탈리자시옹(Ramo V; Capitalizzazione)등으로 함.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50호 (2009. 10. 5)	손보업계, 자동차사고 공동대응시스템 도입 ·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대규모 자연재해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자동차보험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처리 및 복구지원 을 총괄·조정하는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기로 함. (「대재해시 자동차사고 공동 대응시스템 도입 추진」, 금감원 9/30)
제50호 (10. 5)	FY09 상반기, 생보사 해외점포 3.5백만 달러 손실 · FY09 상반기 생보사 해외점포의 당기손익은 금융투자업 및 부 동산업대업에서 1.7백만 달러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함에도 불구 하고, 생명보험업에서 5.2백만 달러의 당기순손실로 인해 3.5백 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함. (「FY09 상반기 생보사 해외점포 등의 영업실적 현황」, 금감원 9/28)
제51호 (10. 12)	보건산업진흥원, 미국 환자 유치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인 UHI는 미국 환자 유치를 위한 보험 상품 개발 및 한국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인프라 등 주요 이슈 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방한함. (「미국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보험 상품 개발 가속화」, 보건복지부, 10/7)
제51호 (10. 12)	암 유사질환도 암 보험금 지급 결정 · 금감원 분쟁위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이라는 희귀 병이 암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생보사에 대해 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 금감원, 10/6)
제52호 (10. 19)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62개 기금에 새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 · 국가재정법에 따른 62개 기금(정부 39개, 민간 23개)에 적용되 는 회계처리기준을 2009년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법을 적용하 여 국가회계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각 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 도록 조치함.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지침 마련」, 기획재정부, 10/8)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52호 (10. 19)	3분기 자동차등록대수 글로벌 경기침체기 보다 크게 증가 · CY09 3/4분기 자동차등록대수는 1,715만대로 전년동기대비 11만 6천대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한창이던 전년동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3분기 차 신규 등록대수 전년동기대비 21% 증가」, 국해부, 10/8)
제53호 (10. 26)	생·손보 교차모집제도 활성화 다소 미흡 · 교차모집제도 시행 1년 동안 전체 설계사의 47.3%가 교차모집 설계사로 등록했지만, 월평균 신계약 건수가 1건 이상인 설계사는 2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교차모집제도 시행 1년 평가 및 향후 감독방안」, 금감원, 10/20)
제53호 (10. 26)	실손의료보험, 불완전 판매 건에 대해 보험료 반환 ·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 11월 실손 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절대비례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중복 가입조회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환불하기로 결정함. (「의료실손보험 문제해결 아직 요원하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실, 10/13)
제54호 (11. 2)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 헌법소원 제기 · 손보노조는 금융위의 실손보험 보장범위 축소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축소하는 반서민·부당 규제임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함.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10.28 헌법소원 제기」, 전국손보노조, 10/28)
제54호 (11. 2)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현행법으로 체포 · 권익위는 전국 70만 여대로 추정되는 대포차의 일제 정리를 위해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는 적발 시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해당 자동차는 공매 처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책임보험 안들고 자동차 운행하면 현행법으로 체포」, 권익위, 10/26)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55호 (11. 9)	자산운용기준 합리화 및 상시적 규제 개혁 · 금융위는 2009년 12월부터 보험사들도 고객의 자산운용을 도와주거나 직접 운용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 10/30)
제55호 (11. 9)	모집 관련 보험감독 체계 정비 ·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전업카드사의 보험모집 기준을 강화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주요 규제를 입법 예고함.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 10/30)
제55호 (11. 9)	국제회계처리기준(IFRS) 도입 기반 구축 · 금융위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본격적인 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험료 산출체계를 도입하고 재보험 회계처리 방법도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함.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 10/30)
제56호 (11. 16)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운영실태 점검 · 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간의 불공정·과당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가입권유, 리베이트 제공 등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임. (「퇴직연금시장 불공정과당경쟁에 적극 대응」, 노동부, 11/10)
제56호 (11. 16)	요일제 참여차량, 보험료 할인율 최대 8.7% 적용 · 2010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율을 약 8.7%까지 확대하고, 약정일 사고 시 보상범위도 자손·자차담보까지 확대하기로 함.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금융위, 11/11)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57호 (11. 23)	일반선박도 유류오염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 · 국토해양부는 2009년 11월 28일부터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시행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보상 확대」, 국해부, 11/17)
제57호 (11. 23)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안정장치 마련 ·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이 적극적인 위기 대응과 금융회사의 자구 노력 등을 통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향후 위기 재발방지 차원의 외화건전성 감독 강화 및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등의 관련 제도를 정비함.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 11/19)
제58호 (11. 30)	제 2금융권 부실 PF 대출채권 매입 의결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용 선박펀드 방식을 통해 선박을 매입하기로 함. (「제7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공자위, 11/25)
제58호 (11. 30)	보험회사 리스크공시 새 기준 마련 ·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공시를 확대하는 등 시장규율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생·손보험회 및 10개 보험회사로 구성된 작업반을 통해 2009년 11월부터 ‘경영통일공시기준’을 반영하기로 함.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 마련」, 금융위, 11/25)
제59호 (12. 7)	FY09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분석 · FY09 상반기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3% 감소(당기순이익은 108.6% 증가)한 반면, 손보사의 보유보험료는 12.7% 상승(당기순이익은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FY09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금감원, 12/2)
제59호 (12. 7)	FY09 상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현황 · FY09 상반기 보험회사의 모집조직 규모는 생보설계사가 전년 말대비 1.0% 감소한 반면, 손보설계사 수가 2.8% 늘어나면서 전체 전속설계사 수는 FY08보다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FY상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현황 및 효율 분석」, 금감원, 12/2)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60호 (12. 14)	금융정보보호협의회, 2010년 금융권역별 정보보호 강화 · 금융정보보호협의회는 금융회사의 사이버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테러 대응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 대응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제 개선을 유도, 금융정보보호 유관기관의 정보보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한다는 방침임. (「2009년도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금감원, 12/9)
제60호 (12. 14)	FY09 상반기 외국 손해보험회사 시장점유율 하락 · FY09 상반기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2조 246억원이며, 보험료 규모는 국내 손해보험시장(19조 7,918억원)의 4.3%를 차지해 전년동기대비 0.3%p의 시장점유율 하락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FY09 상반기 외국 손해보험회사 영업실적」, 금감원, 12/3)
제61호 (12. 21)	노동부,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노동부는 '2009년 퇴직연금 컨퍼런스'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들이 퇴직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을 역설함. (「2009 퇴직연금 컨퍼런스 개최」, 노동부, 12/17)
제61호 (12. 21)	경찰청,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단속 지속 · 경찰청은 2009년 7~11월 사이 보험사기와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등 3대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0,113건, 22,081명의 위반사범을 적발하고 이 중 623명을 구속하였으며, 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력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함. (「경찰, 보험사기·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강력 단속」, 경찰청, 12/17)
제62호 (12. 28)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정부는 보험료 산출 체계로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하고 보험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 기준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입법예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안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12/22)
제62호 (12. 28)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표준약관 개정 ·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적 명시,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함.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 금감원, 12/20)

■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50호 (2009. 10. 5)	미국 변액연금 판매실적, 회사마다 엇갈려 · 미국 리서치 회사인 모닝스타(Morningstar)는 변액연금 판매동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변액연금 신규판매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몇몇 회사들의 변액연금 매출은 오히려 늘고 있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Insurance News Net, 9/25)
제51호 (10. 12)	캐나다,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상품 마케팅 금지 · 캐나다 재무부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상품 마케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은행산업은 즉각 반발함. (Globe and Mail, 10/8)
제52호 (10. 19)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의료보험 개혁법안 통과 · 미 상원 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는 찬성 14, 반대 9표로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킴. (Insurance Journal, 10/14)
제53호 (10. 26)	2010년 미국 손해보험산업 회복 불투명 · 미국 보험전문조사기관인 어드바이젠(Advisen)은 2010년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산업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Insurance Journal, 10/22)
제54호 (11. 2)	손해보험협회,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 우려 · 미국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협회 연차회의에서 정부의 의료보험제도 개혁 움직임이 손해보험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냄. (Insurance Journal, 10/26)
제55호 (11. 9)	미국 의료서비스, 고비용과 낮은 접근성이 문제 ·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타 선진국에 비해 고비용과 보험계약 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는데 어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와 보험사간의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부담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Insurance Journal, 11/5)
제56호 (11. 16)	AIG그룹, 3/4분기 19억 달러의 순이익 기록 · 금융위기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AIG그룹은 2009년 3/4분기 19억 달러의 높은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최근 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감. (Insurance Journal, 11/6)

■ 미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57호 (11. 23)	미국 보험유관기관, 금융안정법에 우려 표명 ·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유관기관들은 최근 하원에서 채택된 금융안정법(Financial Stability Improvement Act)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하원에 발송함. (Insurance Journal, 11/11)
제58호 (11. 30)	보험 미가입자 외상 사망률, 가입자의 두 배 · 미국에서는 환자의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응급실 진료가능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미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사고나 기타 외상에 의한 사망 확률이 보험가입자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 (LA times, 11/17)
제59호 (12. 7)	미 하원, 연방보험정보기구 설립안 통과 ·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연방보험정보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Federal Insurance Office Act of 2009)을 통과시킴. (Insurance Journal, 12/2)
제60호 (12. 14)	미 컨설팅사 PwC, 향후 보험산업 이슈 발표 · 미국 컨설팅 회사 PwC는 이번 금융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로 감독제도 개선, 정부개입 증가, 세법 변경 등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보험산업 전망은 불투명 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 (Insurance Journal, 12/8)
제61호 (12. 21)	미국, 이혼보험 개발 가능성 논의 · 미국 일리노이대학 의사결정학 교수인 웨스트랜드(J. Christopher Westland)는 이혼보험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혼보험 개발을 위한 대략적인 보험통계표를 산출해 공개함. (Insurance Journal, 12/11)
제62호 (12. 28)	미 의회, 금융산업 겸업규제법안 제출 ·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상,하원 의원들 일부는 금융산업간 겸업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Insurance Journal, 12/17)

■ 유럽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50호 (2009. 10. 5)	영국 보험사, 총사업본부 이주 증가 · 영국보험협회는 보험회사들의 사업본부 이주 현상을 막기 위해 서는 재해 손실을 2년 이상 이월 공제하고, 자국 유입이 필요 없는 해외 수익은 면세하며, 경쟁국과의 조세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Times online, 9/15, Financial Times, 9/29)
제51호 (10. 12)	영국계 네덜란드 보험사, 구제금융 출구전략 요청 · Aviva 계열사인 Delta Lloyd 보험사는 네덜란드의 구제금융정책이 현재 불공정한 비교 우위를 낳고 있다는 이유로 구제금융 출구전략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Financial Times, 10/8)
제52호 (10. 19)	독일 보험업계, 중앙은행의 보험산업 감독 반대 · 독일보험협회는 자본적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보험회사들을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EU의 리스크중심 감독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Reuters, 10/8)
제53호 (10. 26)	네덜란드 금융시장, 구조조정 속도 급물살 · ING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아시아 프라이빗뱅킹 사업과 미국 재보험 사업을 각각 OCBC(Oversea-Chinese Banking Corp.)와 RGA(Reinsurance Group of America)에 매각하기 함. (Reuters, 10/12, AFP, 10/16, AFP, 10/20)
제54호 (11. 2)	ING, 은행과 보험부문 분리 · ING는 유로집행위원회의 공정경쟁 회복 및 생존가능성 제고 요청에 따라 은행 및 보험영업 부문을 분리하고, 투자영업 부문과 보험사업 부문 등을 2013년까지 매각하기로 결정함. (ING, 10/26, Financial Times, 10/26)
제55호 (11. 9)	호주 금융기관, 유럽금융기관의 아시아지역 사업부문 인수 · 구제금융 수혜 금융기관은 유로집행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아시아지역 해외사업 부문의 매각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으며, 인수후보로는 호주계 금융기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Financial Times 10/30)
제56호 (11. 16)	방카슈어러의 몰락, 유럽 보험시장 재편 촉발 · 첫 번째로 퇴출되는 유럽 보험회사는 방카슈어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사업에 치중해온 보험그룹이 이번에 퇴출될 방카슈어러를 인수할 것으로 파악됨. (Financial Times 11/5, 11/4, 10/26, Guardian 10/30)

■ 유럽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57호 (11. 23)	계속되는 방카슈어러 구조조정 · Lloyds는 보험부문을 정리하는 한편, KBC는 방카슈어러 모델을 유지하되 리스크가 높은 고수익 사업은 정리하기로 하는 등 방카슈어러 업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임. (Financial Times, 11/19)
제58호 (11. 30)	스위스 보험산업, 자국 감독규정 단순화 요청 · 스위스보험협회는 지급준비금과 관련된 여러 테스트들을 모두 통과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현행 보험감독규정은 스위스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함. (Guardian, 11/20)
제59호 (12. 7)	2010년 보험산업 성장 위협요인: 자본강화, 저금리, 기후변화 · 스위스리는 2010년 세계보험산업은 재무구조, 당기순이익이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자본강화, 보험금지급 상승, 저금리 환경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함. (Swiss Re, 12/1)
제60호 (12. 14)	영국, 보험계약법 개정 추진 · 영국법률위원회는 보험계약법 개정 필요에 대한 각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와 허위진술에 대한 개정을 골자로 한 초안을 제출함. (Law Commission, Guardian, 11/29)
제61호 (12. 21)	영국 금융감독청, 연금·보장성보험 판매 투명성 제고 추진 · 영국 금융감독청은 독립설계사에게 판매 수당이 지급될 경우 고수수료 상품이 우선적으로 판매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상품은 기여도에 근거한 수당체제로 변경하며, 보장성보험은 자문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함. (FSA, 12/15)
제62호 (12. 28)	영국 보험협회(ABI), 보험금지급거부를 공시 추진 · 영국보험협회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CI보험의 보험금 거부 사례가 속출하자 보험업계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CI보험에 대한 보험금지급 거부율을 선제적으로 공시하기로 함. (Financial Times, 12/18, ABI, 12/21)

■ 일본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50호 (2009. 10. 5)	니혼생명, 신통합 계획 본격 실행 · 니혼생명은 새로운 사무서비스 체제 구축과 단순화된 상품 개발 등 고객서비스의 혁신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통합 계획'에 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공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일본생명 홈페이지, 니혼게이자이신문, 9/24)
제51호 (10. 12)	미츠이스미토모해상 등 3사, 지주회사 통합계획 발표 ·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홀딩스(업계 2위), IOI손보(업계 4위), 닛세이도와손보(업계 6위) 등 3개사는 2010년 초로 예정된 최종 통합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함. (마이니치신문, 9/30, 후지산케이신문, 10/1)
제52호 (10. 19)	다이이치생명, 변액연금 한시적 판매 중단 · 다이이치생명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방카슈랑스 전용 변액 연금보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함. (FujiSankei Business I, 10/7)
제53호 (10. 26)	생보 상위 4사, FY09 하반기 자산운용계획 발표 · 주요 생명보험회사가 발표한 FY2009 하반기 자산운용계획에 따르면, 상위 4개사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자산운용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짐. (FujiSankei Business I, 10/21)
제54호 (11. 2)	스미토모생명, 베트남 진출 본격화 · 스미토모생명은 본격적인 베트남 생명보험 사업 진출을 위해 최근 베트남 최대 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은 것으로 밝혀짐. (스미토모생명 홈페이지, 요미우리신문, 10/27)
제55호 (11. 9)	AIG, 일본 생보 자회사 매각 중지 · AIG는 추진 중이던 일본 자회사 AIG스타생명과 AIG에디슨생명의 매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으로 알려짐. (FujiSankei Business I, 마이니치신문, 10/31)
제56호 (11. 16)	손보업계, FY09 상반기 전망치 상향 수정 · 도쿄해상홀딩스 등 주요 손해보험 4개사는 당초 예상보다 상향된 FY2009 상반기 전망치를 발표함. (FujiSankei Business I, 11/7)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57호 (11. 23)	아리코재팬, 고객정보 유출 최대 23만 건 예상 · 아리코재팬의 고객정보 유출 규모가 최대 23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밝혀짐. (마이니치신문, 시사통신, 11/11)
제58호 (11. 30)	도쿄해상홀딩스, 일본 최초 인도 생·손보시장 동시 진출 · 도쿄해상홀딩스는 2000년 손해보험시장 진출에 이어 2011년을 목표로 인도 생명보험시장 진출 계획을 밝힘. (NNA ASIA, 인도신문, 11/23)
제59호 (12. 7)	손보업계, 상반기 실적 감소 불구 순이익 실현 · 일본 주요 손해보험 회사들이 공개한 상반기(4~9월) 실적 결산 자료에 따르면,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료 수입은 감소한 반면, 자산운용수익률 회복과 보험금 지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남. (FujiSankei Business I, 11/20)
제60호 (12. 14)	니혼생명, 자산운용사업 강화 위해 슈로더社와 제휴 · 니혼생명은 해외 자산운용사업 강화를 위해 영국의 글로벌 투자회사인 슈로더자산운용과 연내에 제휴 협정을 체결하기로 방침을 정함. (마이니치신문, 12/5)
제61호 (12. 21)	생보업계, 계약 전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 약관에 명기 · 생명보험 업계는 보험계약 전 이미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2010년부터 약관에 명기하기로 함. (FujiSankei Business I, 12/11)
제62호 (12. 28)	취리히보험, 친환경차량 보험료 할인 혜택 확대 · 스위스계 글로벌 보험회사인 취리히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에코카 할인 대상 차종 및 할인율을 확대하기로 함. (취리히보험 홈페이지, 12/15)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50호 (2009. 10. 5)	보험업계 자금 35조원, 부동산시장 유입 전망 ·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보험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험업계의 자산운용수익 향상 및 중국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중국신문망, 9/23)
제51호 (10. 12)	보감회, 개정 보험회사관리규정 시행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산업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회사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신보험법 발효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시행함.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국증권보, 9/28)
제52호 (10. 19)	보감회, 투자형 보험상품 예상수익률 하향 조정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인보험 신규상품 정보공개관리 방법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형 보험상품에 관한 연간 예상수익률 상한선을 7년여 만에 하향 조정함.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성도상보, 9/30)
제53호 (10. 26)	보험중개업체, 차스닥 상장 열기 고조 · 많은 보험중개회사들이 2009년 10월 말 차스닥 개장을 앞두고 자금 확보 등을 위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재경일보, 10/16)
제54호 (11. 2)	보험사 자산운용 채권투자 비율 상향 조정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서 채권투자 비율 및 투자대상 기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채권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와 <보험회사 채권매입업무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잇달아 발표함. (21세기경제보도, 10/21)
제55호 (11. 9)	보험업계, 3/4분기 주식 매수 큰 폭 확대 · 상하이 및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035개사의 2009년 3/4분기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한동안 주춤했던 보험업계의 주식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증권일보, 10/29)
제56호 (11. 16)	보험업계, 후순위채 발행 크게 늘려 · 보험업계는 최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하이증권보, 11/4)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57호 (11. 23)	외자계보험사, 상하이 보험시장에서 고전 중 · 외자계 보험회사들은 중국 최대의 보험시장인 상하이시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 보험회사들과의 경쟁에서 크게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관찰보, 11/13)
제58호 (11. 30)	상하이 생보설계사, 질적 성장 중 · 상하이시의 생명보험 보험대리인(생활설계사)의 인원 수는 감소한 반면, 개인별 수당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해방일보, 11/18)
제59호 (12. 7)	보감회, 보험회사 고위직 자격 조건 제한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외형 성장에 걸맞는 보험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험회사 고위직 자격을 이전보다 강화한 규정을 제정해 발표함. (해방일보, 11/25)
제60호 (12. 14)	글로벌 보험사, 중국 건강보험시장 진출 경쟁 · 글로벌 건강보험회사인 디스커버리는 최근 중국 건강보험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평안보험과 제휴에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건강보험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북경상보, 12/2)
제61호 (12. 21)	2010년에도 방카슈랑스 영향력 지속 확대 전망 · 2010년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방카슈랑스 채널의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힘입어 세계 5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됨. (증권시보, 12/11)
제62호 (12. 28)	상하이 해운보험시장 활성화 기대 · 최근 중국정부는 상하이시를 세계해운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장려책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해운보험시장 활성화가 기대됨. (화하시보, 12/11)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CY2007	CY2008				CY2009		
		4/4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성장률		5.9	5.8	4.8	3.8	-3.4	-4.2	-2.2	0.9
경상수지		3,152	-3,817	2,260	-9,401	4,551	9,287	14,124	9,043
수 출		103,272	99,445	114,492	115,000	93,071	74,405	90,318	94,769
수 입		100,563	106,053	114,793	122,901	91,528	71,445	73,820	84,786
실업률		3.0	3.4	3.1	3.1	3.1	3.8	3.8	3.6
금리	국고채(3년)	5.89	5.10	5.90	5.74	3.41	3.94	4.16	4.39
	회사채(3년)	6.73	6.01	6.88	7.76	7.72	6.13	5.39	5.53
소비자물가지수		106.0	107.4	109.6	111.1	110.8	111.6	112.7	113.3
환율	원/달러	938.2	991.7	1,043.4	1,187.7	1,257.5	1,377.1	1,284.7	1,188.7
	원/엔화	833.3	1,000.2	987.8	1,144.2	1,393.9	1,414.8	1,336.3	1,318.8
KOSPI		1,897.1	1,704.0	1,674.9	1,448.1	1,124.5	1,206.3	1,390.1	1,673.1
외환보유고		261,770	264,245	258,097	239,671	201,223	206,340	231,735	254,247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CY2007	CY2008				CY2009		
	4/4	1/4	2/4	3/4	4/4	1/4	2/4	3/4
보 험	15,577	-23,583	20,865	-14,426	-4,352	-14,909	29,281	-1,416
- 생 보	14,054	-19,752	14,533	-12,340	-4,342	-10,321	21,486	-1,650
- 손 보	1,523	-3,831	6,332	-2,086	-10	-4,588	7,795	234
은 행	196,336	9,228	21,326	-87,115	48,920	-55,887	77,277	64,167
- 일 반	229,843	-44,093	148,250	-145,756	73,186	-30,842	58,172	36,531
- 신 탁	-33,507	53,321	-126,924	58,641	-24,166	-25,045	19,105	27,636
증 권	-51,161	19,789	41,239	-45,641	1,156	78,230	-44,155	-3,121
투 신	156,749	108,941	-138,816	-406,191	352,172	76,686	-377,027	-167,127
총 금	-23,234	20,424	8,467	-98,880	60,172	30,186	-99,222	-11,709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분기 순수신에서 전분기 순수신을 차감한 수치임.

2)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료	141,403	34,444	35,313	35,115	35,842	140,714	34,389	37,016
	성장률	8.6	-0.5	3.8	-1.1	-3.8	-0.5	-0.2	4.8
	구성비	18.8	18.8	19.6	17.9	20.3	19.1	19.6	20.6
사망	보험료	297,700	74,786	74,189	73,160	72,397	294,531	71,889	72,647
	성장률	4.2	1.4	0.6	-2.7	-3.5	-1.1	-3.9	-2.1
	구성비	39.6	40.9	41.2	37.2	41.1	40.0	41.0	40.5
생사 혼합	보험료	66,043	15,267	15,762	15,870	19,467	66,365	18,096	19,321
	성장률	-2.8	-9.3	-3.1	-5.3	20.2	0.5	18.5	22.6
	구성비	8.8	8.3	8.8	8.1	11.0	9.0	10.3	10.8
변액 보험	보험료	173,912	47,399	45,977	42,221	40,318	175,916	40,885	42,100
	성장률	50.9	27.8	5.7	-12.3	-10.8	1.2	-13.7	-8.4
	구성비	23.2	25.9	25.5	21.5	22.9	23.9	23.3	23.5
개인계	보험료	679,058	171,896	171,241	166,366	168,024	677,526	165,260	171,085
	성장률	13.4	5.9	2.2	-5.2	-3.3	-0.2	-3.9	-0.1
	구성비	90.4	94.0	95.1	84.7	95.3	92.1	94.3	95.4
단체	보험료	71,898	10,945	8,744	30,099	8,299	58,087	9,908	8,287
	성장률	9.7	-8.2	-1.2	-25.0	-24.6	-19.2	-9.5	-5.2
	구성비	9.6	6.0	4.9	15.3	4.7	7.9	5.7	4.6
합계	보험료	750,956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175,168	179,372
	성장률	13.0	5.0	2.0	-8.9	-4.5	-2.0	-4.2	-0.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04,361	22,838	31,257	37,527	28,276	9,899	20,832	20,875
	증가율	27.9	9.9	22.5	25.4	0.5	14.9	-8.8	-33.2
	지급률	73.8	66.3	88.5	106.9	78.9	85.2	60.6	56.4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23,728	31,371	35,308	39,016	41,300	146,996	37,161	39,103
	증가율	10.5	13.7	18.7	18.5	23.3	18.8	18.5	10.7
	지급률	41.6	41.9	47.6	53.3	57.0	49.9	51.7	53.8
생존사합보험	지급보험금	102,973	18,738	18,230	19,304	15,351	71,622	12,802	14,843
	증가율	40.1	2.7	-19.1	-45.8	-42.3	-30.4	-31.7	-18.6
	지급률	155.9	122.7	115.7	121.6	78.9	107.9	70.7	76.8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59,022	14,882	13,918	16,765	14,032	59,597	14,922	21,046
	증가율	173.0	33.5	-8.5	-10.3	0.4	1.0	0.3	51.2
	지급률	33.9	31.4	30.3	39.7	34.8	33.9	36.5	50.0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390,084	87,830	98,713	112,612	98,959	398,114	85,717	95,867
	증가율	35.1	13.0	6.2	-3.9	-3.2	2.1	-2.4	-2.9
	지급률	57.4	51.1	57.6	67.7	58.9	58.8	51.9	56.0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58,683	15,960	14,562	21,485	25,317	77,324	15,917	11,625
	증가율	-6.4	20.5	10.2	50.7	41.0	31.8	-0.3	-20.2
	지급률	81.6	145.8	166.5	71.4	305.1	133.1	160.7	140.3
전체	지급보험금	448,766	103,790	113,275	134,097	124,276	475,438	101,634	107,492
	증가율	27.7	14.1	6.7	2.0	3.4	5.9	-2.1	-5.1
	지급률	59.8	56.8	62.9	68.3	70.5	64.6	58.0	59.9

주 :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보험	사업비	31,382	8,427	9,398	8,717	6,060	32,602	6,878	7,674
	증가율	25.7	19.3	21.5	6.1	-27.6	3.9	-18.4	-18.3
	사업비율	22.2	24.5	26.6	24.8	16.9	23.2	20.0	20.7
사망보험	사업비	77,185	18,388	18,447	17,772	16,382	70,989	17,664	18,311
	증가율	10.6	4.2	0.9	-13.4	-21.0	-8.0	-3.9	-0.7
	사업비율	25.9	24.6	24.9	24.3	22.6	24.1	24.6	25.2
생존사합보험	사업비	26,744	7,456	7,391	6,386	4,721	25,954	4,874	4,869
	증가율	18.0	36.7	12.7	-13.7	-35.6	-3.0	-34.6	-34.1
	사업비율	40.5	48.8	46.9	40.2	24.2	39.1	26.9	25.2
개인보험계	사업비	135,311	34,271	35,236	32,875	27,162	129,544	29,417	30,853
	증가율	15.2	13.6	8.2	-9.0	-25.4	-4.3	-14.2	-12.4
	사업비율	19.9	19.9	20.6	19.8	16.2	19.1	17.8	18.0
단체보험계	사업비	3,507	855	957	925	782	3,519	874	862
	증가율	0.3	12.5	22.0	-5.5	-20.6	0.3	2.2	-9.9
	사업비율	4.9	7.8	10.9	3.1	9.4	6.1	8.8	10.4
전체	사업비	138,818	35,127	36,192	33,800	27,944	133,063	30,290	31,715
	증가율	14.8	13.6	8.5	-8.9	-25.3	-4.1	-13.8	-12.4
	사업비율	18.5	19.2	20.1	17.2	15.8	18.1	17.3	17.7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3,075	701	632	792	710	2,835	654	632
	성장률	-1.8	-5.7	-6.9	-9.8	-8.4	-7.8	-6.6	-0.1
	구성비	0.9	0.8	0.7	0.8	0.7	0.8	0.7	0.6
해 상	보험료	6,518	2,166	1,912	2,564	1,864	8,507	2,215	2,009
	성장률	3.1	24.9	7.2	72.6	23.1	20.9	2.2	5.1
	구성비	1.9	2.4	2.1	2.6	2.0	2.3	2.2	1.9
자동차	보험료	108,095	27,397	27,846	27,574	26,554	109,371	27,241	28,248
	성장률	12.0	6.0	3.5	-1.2	-3.2	1.2	-0.6	1.4
	구성비	31.8	30.6	30.4	27.8	28.0	29.2	27.2	26.9
보 증	보험료	9,940	2,814	2,928	2,821	2,966	11,529	3,165	2,890
	성장률	-13.0	16.1	25.1	8.4	15.3	16.0	12.5	-1.3
	구성비	2.9	3.1	3.2	2.8	3.1	3.1	3.2	2.7
특 종	보험료	27,245	7,209	7,488	7,668	6,754	29,119	8,345	8,422
	성장률	9.0	9.5	11.3	2.8	4.3	6.9	15.8	12.5
	구성비	8.0	8.1	8.2	7.7	7.1	7.8	8.3	8.0
해 외 원보험	보험료	1,126	224	341	637	580	1,781	383	500
	성장률	36.8	16.9	34.2	113.9	51.3	58.4	71.1	46.6
	구성비	0.3	0.3	0.4	0.6	0.6	0.5	0.4	0.5
장 기	보험료	163,436	44,857	46,461	47,761	49,749	188,829	53,088	57,299
	성장률	19.5	16.1	16.6	14.7	14.9	15.5	18.3	23.3
	구성비	48.1	50.1	50.8	48.1	52.5	50.4	53.1	54.5
개 인 연 금	보험료	9,994	2,907	3,104	3,394	3,449	12,853	3,654	4,048
	성장률	25.3	28.3	30.0	29.1	27.1	28.6	25.7	30.4
	구성비	2.9	3.2	3.4	3.4	3.6	3.4	3.7	3.9
퇴 직 보 험	보험료	8,258	518	410	4,770	1,110	6,807	758	521
	성장률	26.2	-32.4	-19.7	-21.1	18.7	-17.6	46.4	27.3
	구성비	2.4	0.6	0.4	4.8	1.2	1.8	0.8	0.5
퇴 직 연 금	보험료	2,133	756	389	1,238	939	3,322	534	541
	성장률	61.0	494.4	81.8	-1.5	75.2	55.7	-29.4	39.3
	구성비	0.6	0.8	0.4	1.2	1.0	0.9	0.5	0.5
계	보험료	339,818	89,550	91,512	99,218	94,674	374,954	100,038	105,112
	성장률	14.9	12.9	12.1	7.6	9.3	10.3	11.7	14.9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통계표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1/4	2/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43.0	31.6	47.7	37.9	32.4	37.1
	사업비율	45.0	36.4	49.4	36.4	45.4	43.4
	합산비율	88.0	68.0	97.2	74.2	77.8	80.6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2.9	71.7	82.5	301.8	82.4	89.0
	사업비율	31.1	31.5	21.6	27.2	22.2	28.1
	합산비율	84.0	103.2	104.1	329.0	104.6	117.2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68.1	68.8	72.1	69.7	71.0	74.1
	사업비율	31.3	31.7	31.0	30.2	30.7	30.7
	합산비율	99.4	100.4	103.1	99.9	101.7	104.8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23.7	47.5	78.5	43.6	66.1	47.9
	사업비율	26.0	17.3	19.6	30.2	17.4	18.5
	합산비율	49.7	64.8	98.1	73.8	83.5	66.3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57.8	62.5	69.0	68.3	61.4	67.2
	사업비율	24.6	24.2	23.9	26.0	26.0	25.0
	합산비율	82.3	86.7	92.9	94.3	87.4	92.2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38.1	40.2	48.8	50.5	39.2	29.0
	사업비율	76.6	73.3	68.6	77.3	66.7	65.9
	합산비율	114.7	113.5	117.4	127.7	105.9	94.9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0.0	80.6	79.0	78.0	78.9	78.5
	사업비율	18.8	19.3	22.5	27.0	21.9	23.1
	합산비율	98.8	99.9	101.5	105.0	100.8	101.6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5.7	115.7	115.7	123.9	109.6	108.9
	사업비율	12.1	11.9	12.2	12.8	11.8	11.5
	합산비율	127.8	127.6	127.9	136.7	121.4	120.4
전 체	경과손해율	73.7	75.4	77.3	77.9	75.9	76.7
	사업비율	23.5	23.5	25.0	27.6	24.4	25.0
	합산비율	97.2	98.9	102.2	105.5	100.3	101.6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분기별 실적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조사보고서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09.12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3 이기형, 한상용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키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정 기간행물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연3회)
- 보험회사 재무분석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보험통계월보 (월간)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영문보고서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09년 겨울호 (통권 52호)

발행일 2010년 1월 일

발행인 이 태 열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대화인쇄 /02-2265-1330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77, 3775-90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